

# 襄陽文化

제29호

襄陽文化院

# 앙양8경

##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앙양군민의 식수원이다.

## 5경 하조대



앙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속중 때 앙양부사 이세균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변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상해옹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시중동국여지승람' 앙양포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앙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이름다운 1중 국가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사곶(陽沙島)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열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울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달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앙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 襄陽文化

제29호

襄陽文化院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동부아트** 建築士事務所  
DONG-BU ART ARCHITECTS & ENGINEERS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5 대원 오피스 2층  
TEL : (033) 671-2431 FAX : (033) 671-2502  
E-mail : dart2431@naver.com

webhard : ydongbuy/2501



# 법무사 이재민 사무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84  
전화 : 033-672-2845  
팩스 : 033-672-2846



# PHOTO CLUB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문화학교 개강식



제39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2회 전국한시백일장 시상식



군부대 향토문화교육



제7회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강원어르신문화대축제 서각전시



문화원회원및수강생 유적지답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공연



경로효친문예작품공모 시상식



청소년대상 향토문화 특강



청소년대상 동해신묘 현지견학



대금배우기 강좌 종강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문화학교 수료식

##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9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1
신년사   양양군의회회의장 이기용	12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13

### 향토사료

- 東海神廟의 祭享에 관한 考察  
(제27회 강원도향토사연구발표 노력상 수상) | 향토사연구소 14

### 향토문화교육

- <특강> 襄陽學 考察 | 양언석 교수 34
- 양양의 동해신묘지 |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규환 64
- 양양의 문화유적 진전사와 삼층석탑 |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이철수 68

### 2017 문화학교 소개

- 2017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76
- 2017년도 제11기 어르신문화학교 서각반 | 편집실 82
- 2017년도 대금반 운영 | 편집실 84

###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양양팔경가는 중국 땅 조선 양양촌에 있다 외(1월~12월) | 편집실 86

### 양양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 양양5일장 외 110

### 건강상식

-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114

### 경로호친문예작품

- 심사평 121
- 입상현황 123

### 2017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131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내주신 성원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논밭들녘이 메말라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어느새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비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는 등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문화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사료를 발굴, 보존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대금 연주에 능해 양양의 관노에서 장악원 악공으로 불려가 최고지휘자인 전악을 십 수 년 간 역임하고 대금 악보를 처음 만든 조선 중기(중종) 양양의 관노 천재 음악가를 위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양양양수발전소의 지원으로 대금반을 개설하였고, 양양의 문학적인 자산을 소재로 한 낙산사의 한시들을 발굴 조사하고 번역하여 양양의 이야기가 있고,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길로 만들어 문학적 자긍심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문서 번역 사업을 하였으며, 동구리경창대회가 올해부터 전국대회로서 우리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요(농가, 어가, 노동요 등)를 발굴, 보존, 전승하고 점점 산업화되어 가는 시기에 우리의 전통 민요를 후세에 전하여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양양 기미독립운동 만세재현행사 외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여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전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인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예향(藝鄕)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화합의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6·25당시에 양양에서 겪었던 아픔과 그 생활상이 담긴 “6·25 한국 전쟁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Ⅱ 권을 발간하여 잊혀져가는 6·25의 아픔을 재조명하였으며,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서 해를 더할수록 실력이 배가되어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종 백일장과 대회에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민족혼을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올해 발간되는 양양문화(제29호)는 전통문화의 저변확대와 우리군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우리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우리군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꿈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양양의 비전과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부결되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군민의 힘으로 재개하였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개통, 채무제로와 양양군재정 3천억시대 돌입 등 양양군의 가치를 한 층 더 드높였습니다.

2018년은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민선 6기 출범 당시 세웠던 목표와 비전을 돌아보면서, 군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최고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빠라는 속담처럼 이기회가 양양군 발전의 축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강원도 역사에서 가장 큰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세계속의 강원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이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2018년 무술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이 기 용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떠나 계신 출향군민 여러분!  
희망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일출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향각지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출향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주신 자매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지역의 부대장님을 비롯한 주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7대 양양군의회도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어려운 고비마다 협치와 상생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충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차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군민의 뜻에 어긋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적극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집행부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로 양양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구촌 최대 축제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지난 해 승인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차질 없는 추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활용계획의 마무리,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문제 등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2018년 한 해가 신뢰와 사랑 속에 결실 가득한 한 해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밝고 희망찬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양양군민 여러분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양군민 모두가 오랜 시간동안 염원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사업의 추진 결정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인 값진 성과였  
습니다.

또 지난 한 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준비해왔던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우리 양양군의 매력을 즐기는 사람들로 그 어  
느 때보다 활기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양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써 이룬 성과들이 우리 양양군 지역  
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  
여 더욱 더 단결된 힘을 발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다함께 잘사는 양양'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 東海神廟의 祭享에 관한 考察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규환

## I. 머리말

인류는 예전부터 하늘과 땅 악(嶽)·해(海)·독(動) 그리고 조상의 닛 등에 제사하는 풍속(風俗)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례나 축제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신라·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뉘어 봉행하였고, 오례의(五禮儀)에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 인귀(人鬼)에게는 향(享),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한다.”<sup>1)</sup>고 했다.

동해신묘(東海神廟)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제58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양양에는 동해신사가 있다.<sup>2)</sup>라 했는데 국가 제사처(國家祭祀處)인 중사(中祀)로 관리되어 온 곳이다. 매년 나라에서 왕이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세수(歲首)에는 별제(別祭), 2월과 8월은 상제(常祭)로써 관찰사가 동해신(東海神)에게 국태민안(國泰

1)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 서례, 번사  
2) 『고려사』 권58 - 지 제12 / 지리 3 / 동계 條





民安)과 풍농풍어(豐農豐漁)를 빌던 제사 장소로 조선말까지 제향과 관련된 기록이 전한다. 동해신묘는 역사성과 정체성 차원에서 고려시대부터 명명된 동해신사(東海神祠)로 호칭되어야함에도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동해신사당(東海神祀堂)<sup>3)</sup>, 동해신단(東海神壇)<sup>4)</sup>, 동해묘(東海廟)<sup>5)</sup>, 동해신묘(東海神廟)<sup>6)</sup>로 변천(變遷)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전거(典據)를 통해 살펴보면 『고려사』에 동해신사가 개경의 정동인 양양 땅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때부터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영조, 정조, 철종, 순종 때까지 양양 땅에 동해신묘가 있었다는 기록뿐, 역사적으로 동해신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순종 2년(1908) 12월 26일에 일제의 우리민족정신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에 따라 당시 양양군수 최종락(崔鐘洛)이 동해신묘를 훼손(毀撤)하였는데, 구전에 의하면 동해신묘 훼손 후 3일 만에 급사했다고 전한다. 정조 24년(1800) 강원도관찰사 남공철이 신묘를 중수하고 지은 글인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紀事碑)’ 마저 허리가 잘려 나가 그림 1.에서 보듯이 시멘트로 이어 붙여야 했던 비운(悲運)의 시기도 있었다.

아시아경제(2016. 10. 22)신문에 “일제 강점기 때 남해신당(南海神堂)은 철거되고 제사는 폐지됐다. 폐허가 된 남해신당은 2001년 복원돼 2003년부터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해신제(海神祭)를 봉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1. 동해신묘

태조 3년(1394) 10월 28일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치고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방위가 달라졌다. 고려시대는 개경의 정동은 양양이었지만, 조선시대는 한양의 정동은 강릉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조 2년(1456)에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24가지 시무책(時務策)을 제시하면서 “동해·남해·서해의 신사는 모두 개경을 기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방위(方位)가 어긋난다면 동해신(東海神)을 강릉에,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순천에, 북해는 감산에 이제(移祭)하고 일대의 사전(祀典)을 새롭게 할 것으로 상소하니, 임금이 듣고만 있었다.”<sup>7)</sup> 라 하였다.

그 후 4해의 어느 신사도 이전하였다는 기록이나 새로운 지역에 신사가 있었던 기록은 전무 하다. 이로 볼

3) 『세종실록』 권53 지리지

4) 『신증동국여지승람』

5) 『여지도서』 및 『대동지지』단유

6) 『조선왕조실록』 24년(1800)

7)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년) 3월 28일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중략) “且東, 南, 西海神祠, 皆自開城而定之, 亦乖方位, 乞命禮官詳加考定, 以三角山爲中岳, 金剛山爲東岳, 九月山爲西岳, 智異山爲南岳, 長白山爲北岳, 白岳山爲中鎮, 太白山爲東鎮, 松岳山爲西鎮, 錦城山爲南鎮, 妙香山爲北鎮. 又移祭東海神於江陵, 西海於仁川, 南海於順天, 北海【鴨綠江上流.】於甲山,(중략)上嘉納.”



그림 2. 동해신묘중수기사비

때 강릉 정동진에서 양양으로 동해신묘를 옮겼다는 일부주장은 허구(虛構)라고 할 것이다.

동해신묘는 『고려사』등에도 분명히 고려시대 이래 양양 땅에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의 기록에는 조선시대로만 표기되고 있어 국가사적이 아닌 강원도 사적 제73호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자괴감(自愧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해신묘 제향은 종묘제례 다음가는 국가의 제사처로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 시일(時日)·재계(齋戒)·진설(陳設)·행례(行禮) 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례 법을 도외시 한 채 유럽에서 임의로 사전(祀典)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천여 년 간 이 나라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셔온 동해지신(東海之神)의 사당에서 동해용왕제례를 봉행하고 있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전통제례문화를 계승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매년 세수(歲首)에는 별제(別祭)를 2월·8월에는 상제(常祭)로 복원 정례화(定例化) 해 나가되 시대상으로 보아 전통제례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신·구 절충의식(折衷儀式)으로 보완하여 봉행(奉行)한다면, 국가제사처[中祀]로써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東海神祠의 호칭변천

### 1. 東海神祠의 기록

『고려사』 제58권 동계편 익령현(翼嶺縣)에 보면 원종원년(元宗元年, 1260)에 지양주사로 승격시켰는데 여기에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sup>8)</sup>고하여 이미 고려시대부터 양양 땅에 신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민왕 19년(1370)에 명나라 황제가 비서감직장(秘書監直長) 하상봉(夏祥鳳)을 파견하여 신호(神號)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조서(詔書)해 왔는데 동해신호(神號)는 ‘동해지신(東海之神)’으로 봉해졌다.<sup>9)</sup>고 했다.

8) 『고려사』 권58 - 지 제12 / 지리 3 / 동계

“翼嶺縣 本高句麗翼嶺縣[一云 伊文縣] 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 顯宗九年 置縣令 高宗八年 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 降爲縣令四十四年 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 陞知襄州事別號襄山 有東海神祠屬縣一.”

(국역) (생략)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승격시켰는데 양산(襄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고 소속현이 1개 있다.

9) 『고려사』 세가 권제42 / 공민왕 19년. 7. 16.

“壬寅, 帝遣秘書監直長夏祥鳳來詔曰 (중략) 一四海稱東海之神南海之神西海之神北海之神 (중략) 於戲 明則有禮樂幽則有鬼神其理既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정도 상(京都上)의 【단묘】 “바다는 동해(東海)는 양양(襄陽)에 있고, 남해는 나주(羅州)에 있으며, 서해는 풍천(豐川)에 있다.<sup>10)</sup>”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은 중사(中祀)에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사묘】 “동해신사(東海神祠) 부 동쪽에 있다. 봄가을 나라에서 향·축을 보내 치제(致祭)한다.”라 하였다.

동해신사(東海神祠)를 양양 땅에 처음 설치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사』에 보면 고려의 국가체제를 완비한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 춘추로 제사하는 사직단의 터를 선정해 세우도록 대신들에게 명하였다고 하였고, 국역 『증보문헌비고』 악·해·독·산천(嶽海動山川) 고려 편에는 현종 19년(1028)에 남해신(南海神)을 사전(祀典)에 올렸다고 했다. 또한 『고려사』의 기록에는 동해신사(東海神祠)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호(神號)를 내렸다<sup>11)</sup>고 한다. 따라서 위의 역사자료를 종합할 때 동해신이 주석하고 있는 이곳의 최초의 호칭은 동해신사(東海神祠)였음을 알 수 있다.

## 2. 東海廟로 호칭 기록

전국 지리지 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강원도 양양 단묘(檀廟)에는 동해묘(東海廟), 황해도 풍천 단묘(檀廟)에는 서해단(西海壇), 전라도 나주 단묘(檀廟)에는 남해신사(南海神祠)로 기록하고 있다.<sup>12)</sup>

同其分當正。”

(국역) 임인일에 명나라 황제가 비서감 직장 하상봉(夏祥鳳)을 파견하여 조서를 전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중략) -사해(四海)의 신은 동해지신, 남해지신, 서해지신, 북해지신이라고 칭한다. (중략) 아! 인간의 세상에는 예(禮)와 악(樂)이 있고 저 세상에는 귀신이 있어서 그 이치가 다 같은 것이니 그에 대한 명분을 바로잡아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1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 정도상(京都上) 壇廟 악해독단(嶽海瀆壇) 【단묘】 사직단(社稷壇) 경성(京城) 안 서쪽 인달방(仁達坊)에 있는 것으로, 사(社)는 동쪽에 있고 직(稷)은 서쪽에 있다. 두 단은 각각 둘레는 2장 5척이고, 높이는 3척이며, 사방의 섬돌은 각각 3급(級)이다. 단의 장식은 그 방위(方位)의 빛깔을 따르고 누런 흙으로 덮었다. 사(社)에는 돌로 된 신주(神主)가 있는데, 길이는 2척 5촌이고, 둘레는 1척이며,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흙으로 복돋았는데 반이 단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한다. 사방의 문은 담을 같이하고 있는데 모로는 25보(步)로 담을 두르고 있다.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신좌(神座)는 나란히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있는데, 후토신(后土神)은 국사에 짝하였고 후직신(后稷神)은 국직에 짝하였다. 각각 바른 위치의 왼쪽에 있으면서 북쪽 가까이 있으면서 동쪽을 향했다. ● <사전(祀典)에는 대사(大祀)에 실려 있다. 풍운뇌우산천성황단(風雲雷雨山川城隍壇) 남교(南郊)에 있는데, 둘레는 2장 3척이고, 높이는 2척 7촌이며, 사방에 섬돌을 놓았고, 두 낮은 담은 25보이다. 바람·구름·우레·비의 신좌(神座)는 북쪽에 있고, 산천은 왼쪽에 있으며, 성황은 오른쪽에 있는데, 모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있다. 악해독단(嶽海瀆壇) 남교(南郊)에 있다. 그 제도는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같은데, 오직 낮은 담 하나가 있으며, 단은 없고 사당 세 칸이 있다. ● 악(嶽)은, 남악(南岳)은 지리산으로 남원(南原)에 있고, 중앙은 삼각산(三角山)이고, 서악은 송악(松嶽)으로 개성(開城)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鼻白山)으로 정평(定平)에 있다. ● 바다는, 동해(東海)는 양양(襄陽)에 있고, 남해는 나주(羅州)에 있으며, 서해(西海)는 풍천(豐川)에 있다. ● 독(瀆)은, 남으로는 웅진(熊津)은 공주(公州)에 있고, 가야진(伽倻津)은 양산(梁山)에 있으며, 중(中)은 한강이고, 서쪽으로는 덕진(德津)은 장단(長湍)에 있고, 평양강(平壤江)은 평양에 있으며, 압록강은 의주(義州)에 있고, 북쪽으로는 두만강은 경원(慶源)에 있다.

- 11)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2012 제27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p.27.

- 12) 한국사료총서 여지도서(상) 강원도 양양 단묘, 여지도서(하) 황해도 풍천 단묘, 전라도 나주 단묘 편.



그림3. 해동지도 동해묘

동해묘(東海廟)에 관한 기록은 『현곡집(玄谷集)』 권지7(조위한) 칠언율시 94수(七言律詩 九十四首)에 ‘東海廟’라 기록했고, 『동주집』전집 제7권 시(이민구) 관동록(關東錄)에 ‘東海廟’, 『삼연집(三淵集)』 권지8 김창흠(金昌翕)의 시에 ‘東海廟’ 『백남선생문집(白南先生文集)』 권지2 (김시빈) 시 관동록(關東錄)에 ‘東海廟’, 『희암선생집(希庵先生集)』 권지16(채팽운) 현산록 시 ‘祭東海廟’, 『희암선생집(希庵先生集)』 권지29 ‘동해묘삼차기우문(東海廟三次祈雨文)’, 『순암집(順庵集)』 권지4(이병성) 東海廟,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7년 9월 2일 ‘襄陽東海廟’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2월 10일 ‘동해묘제설행사야(東海廟祭設行事也)’, 『일성록(日省錄)』(정조 7년, 11월 8일) ‘제동해묘칙령지방관(祭東海廟則令地方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99책(순조 9년 1월) ‘양양동해묘수직(襄陽東海廟守直)’, 『관암전서(冠巖全書)』 책28(홍경도) ‘동해묘제문(東海廟祭文)’ 등 다수 문헌과 문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 2외에 광여도, 청구도, 1872 지방지도, 여지도, 지승, 동여도 등 다수의 고지도에 ‘동해묘(東海廟)’로 표기 되어 호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東海神廟로 호칭 기록

『승정원일기』 51책(영조 18년 1월 20일)에… ‘김약로왕, 동해신묘, 재양양(金若魯日, 東海神廟, 在襄陽) <생략> 『승정원일기』 96책(정조 24년 4월 7일)… ‘양양낙산진동해신묘사(襄陽洛山津東海神廟事)’, <생략> 『정조실록』 정조 24년 4월 7일 ‘양양 낙산진에 있는 동해신묘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생략> 『일성록』 정조 24년 4월 7일 ‘양양동해신묘를 신칙(申飭)하여 보수하고’ <생략> 『명암집』 권지4(양양부사 이해조) 『峴山三十詠(현산삼십영)』

시(詩)… ‘東海神廟’는 양양부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는데 봄가을 제를 올린다. <생략>, 『두기시집(杜機詩集)』 권지40보하(卷之四十補下)(양양부사 최성대) ‘東海神廟’, 『나은선생문집』 권지2 시, (양양부사 나온 이동표) ‘양양부사로 있을 때 동해신묘의 사관을 하였다.’ 『나은선생문집』 권지5記(양양부사 나온 이동표) 『유금강산록』(1690년 8월 5일 태평루에서 기록) … ‘말을 타고 대강역을 출발하여 바닷가로 3일 만에 東海神廟에 이르렀으며 조정 명으로 동해신에 제를 올리고’ <생략>, 『방산선생문집』 권지14 잡저(허훈)동유록(東遊錄)에… ‘거음십리(去邑十里)’. 만송창울중(萬松蒼鬱中)。有東海神廟。부해지위물(夫海之爲物)。 <생략> 『연재선생문집(淵齋先生文集)』 권지20 잡저(송병선)… ‘조망상활(眺望爽豁)’。이동해신묘(而東海神廟)۔ ‘재우송림지간의(在右松林之間矣)’ <생략>, 『면우선생문집』 권지4 (곽중석)시 동유록(東遊錄) ‘알동해신묘(謁東海神廟)’, 『노서선생유고속(魯西先生遺稿續)』 권지3 잡저 ‘파동기행갑진(巴東紀行甲辰)’, ‘모역동해신묘(暮歷東海神廟)’, 『금릉집(金陵集)』 권지16 ‘의영남공철원평저 양양동해신묘비명(宜寧南公徹元平著 襄陽東海神廟碑銘)’ 등에 기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세종실록』 권53 지리지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 이라고 표기 된 것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에 ‘동해신단(東海神壇)’으로 표기한 사례도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며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조사 자료 중 자주 등장한 호칭을 중심으로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집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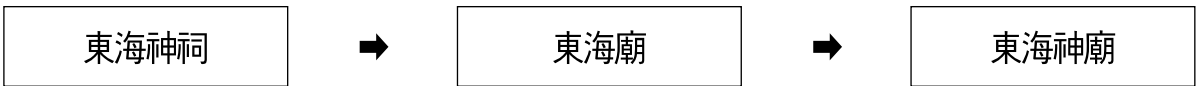


표 1. 동해신사 변천

위를 종합할 때 고려시대 개경을 중심으로 한 방위(方位)가 신격(神格)으로 구체화되어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 중에는 양양의 동해신묘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위해 고려시대의 호칭인 동해신사(東海神祠)로 정정해야 한다며 신묘(神廟)와 신사(神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선 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문헌에 신묘의 호칭이 달라진 연유에 대해 밝혀진 내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현상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 Ⅲ. 東海神廟의 祭享儀式

#### 1. 神廟祭享의 역사기록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는 “동해는 양양,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으로 정하고 치제(致祭)를 관(官)에서 주관하였다.”고 했으며, 조선의 제전(祭典)을 대·중·소사로 등급을 정하였고, 악·해·독(嶽海

13)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년) 8월 21일

“禮曹上山川祀典之制: “謹按唐《禮樂志》, 嶽鎮海瀆爲中祀, 山林川澤爲小祀, 《文獻通考》宋制, 亦以嶽鎮海瀆爲中祀。本朝承前朝之制, 山川之祀, 未分等第, 境內名山大川及諸山川, 乞依古制, 分等第。”從之, 嶽海瀆爲中祀, 諸山川爲小祀。京城三角山之神, 漢江之神, 京畿松嶽山, 德津, 忠清道熊津, 慶尙道伽耶津, 全羅道智異山, 南海, 江原道東海, 豐海道西海, 永吉道鼻白山, 平安道鴨綠江, 平壤江皆中祀; (이하생략)”

(국역) 예조에서 산천(山川)의 사전(祀典) 제도를 올렸다. “삼가 《당서(唐書)》《예악지(禮樂志)》를 보니, 악(嶽)·진(鎮)·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하였고, 산(山)·임(林)·천(川)·택(澤)은 소사(小祀)로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宋)나라 제도에서도 또한 악(嶽)·진(鎮)·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전조(前朝)의 제도를 이어받아 산천(山川)의 제사는 등제(等第)를 나누지 않았는데, 경내(境內)의 명산 대천(名山大川)과 여러 산천(山川)을 빌건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등제(等第)를 나누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악(嶽)·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삼고, 여러 산천(山川)은 소사(小祀)로 삼았다.

動)은 이때에도 중사(中祀)로 모셨다.<sup>13)</sup> 『세종실록』에는 세종 19년(1437) 3월 13일 2번째 기사에 “나라에서 행하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祠廟)의 위판(位版)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쓴다. 동해는 강원도 양주(襄州, 양양) 동쪽에 있다.”<sup>14)</sup> 단종 2년(1454)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祀堂)은 양양부(襄陽府) 동쪽에 있는데 봄과 가을에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중사(中祀)로 제사를 지낸다.”<sup>15)</sup>고 했다. 중종 25년(1530년) 조선 전기의 전국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산천편과 사묘 편을 보면, “동해신사는 부(府) 동쪽 13리에 있고 중사(中祀)이며 봄과 가을에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제사를 지낸다.”<sup>16)</sup>라 하였다.

조선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단묘 사직단 편에도 동해묘는 부(府) 동쪽 10리 해상에 있으며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매년 초에 별제(別祭)를 지내고 2월[仲春]·8월[仲秋]에 상제(常祭)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sup>17)</sup> 정조 24년(1800년) 4월 7일 기사에 암행어사 권준(權駿)의 동해신묘와 관련된 장계(狀啓)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 낙산진(襄陽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닳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 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서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경성(京城)삼각산(三角山)의 신(神)·한강(漢江)의 신, 경기의 송악산(松嶽山)·덕진(德津), 충청도의 웅진(熊津), 경상도의 가야진(伽耶津), 전라도의 지리산(智異山)·남해(南海), 강원도의 동해(東海), 풍해도의 서해(西海), 영길도(永吉道)의 비백산(鼻白山), 평안도의 압록강(鴨綠江)·평양강(平壤江)은 모두 중사(中祀)이었고, (생략)

14) 『세종실록』 오례(五禮) 길례 서례(吉禮序例) 변사편

“大祀：社稷，宗廟

中祀：風雲雷雨【山川，城隍附。】嶽，海，瀆【智異山，全羅道南原南；三角山，漢城府中；松嶽山，開城府西；鼻白山，永吉道定平北。東海，江原道襄州東；南海，全羅道羅州南；西海，豐海道豐川西；熊津，忠清道燕岐 伽耶津，慶尙道梁山。已上南。漢江，漢城府中；德津，京畿臨津；平壤江，平安道平壤府；鴨綠江，平安道義州。已上西。豆滿江，咸吉道慶源。】，先農，先蠶，雩祀【句芒木正，祝融火正，后土土正，蓐收金正，玄冥水正，后稷。】，文宣王，朝鮮檀君，後朝鮮始祖箕子，高麗始祖”

(국역) 대사(大祀)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고 중사(中祀)에(중략) 동해는 강원도 양주의 동쪽에 있다. (중략)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한다.

15)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 강릉 대도호부 / 양양 도호부

“襄陽：(중략) 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

(국역) 양양 (중략)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

16) 『新增東國輿地勝覽』襄陽都護府，山川。

“海 在府東十三里 祀典祭東海神于此 載中祀”；“東海神祀 在府東 春秋降香祝致祭”

17) 『한국사료총서』20집『여지도서』(상) 강원도) 양양) 단묘

東海廟在府東十里海上正殿六間神門三間奠祀廳二間東西齋各二間百川門一間每歲首別祭仲春仲秋常祭香祝皆自京下來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는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증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하는데 전교하기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청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그대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받게 하겠다.<sup>18)</sup>

동해신묘의 제례봉행과 관련한 전거(典據)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충정왕(忠定王) 때 최재(崔宰)는 양주(襄州)를 다스렸는데, 원나라에서 강향사(降香使)가 왔을 때에 존무사(存撫使)를 모욕(侮辱)하니 최재(崔宰, 知襄州事)가 말하기를, 장차 모욕이 내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직하고 집에 돌아갔다. 집정(執政)이 이를 기뻐하여 왕에게 고하니 “감찰장령(監察掌令)으로 임명하였다.”<sup>19)</sup>고 했다. 또한 세조 12년(1466) 윤3월 10일 1번째 기사에 “명하여 동해의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sup>20)</sup>라 하였고, 3일 후인 윤3월 13일 “낙산사에 거둥하였다(甲申/幸洛山寺)”고 했다.

윤휴(尹鑄)<sup>21)</sup>의 저서(著書) 『백호전서(白湖全書)』 권지 34 잡록 풍악록(1672) 8월 13일 기사에 고성태수와, 8월 15일 기사에는 영덕 현령(盈德縣令) 심철(沈轍) 등이 양양에 와 윤휴를 만난 것으로 보아 동해신 제사에 참여(參詣) 차 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년 “8월 16일 기사 간성군수 윤세장(尹世章)이 동해신(東海神) 제사의 예차관(預差官)으로 왔다고 했고, 양양부사 이구(李球, 雅號: 大玉)는 동해신 제사일로 저녁에 떠나면서 감사

18) 『정조실록』 권54, 정조24년(1800년) 4월 7일(기축)

“襄陽洛山津，有東海神廟，享禮在於國典，則其爲所重如何，而近年以來爲祭官者，全欠致敬，牲豆不潔，往來商旅，輒事祈禱，便成淫祠，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在於神廟至近之地，鷄犬糞穢，雜遷於其間，村里烟火，繚繞於逼側。神人狎處，殊非敬遠之義。近來風濤險惡，人物間多滄沒，魚產亦甚絕貴，沿海人言，皆云職此之由。語涉傳會，不足爲經，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不可仍置。分付道臣，重新其廟，使之潔淨，享祀之具，亦必申飭，凡係淫禱，一切禁斷，廟前人家，亟命撤去。” 教曰

襄陽洛山津東海神廟事，亦依狀請修補後，道伯狀聞，則當差爾爲獻官，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19) 『고려사』 권111, 열전24, 최재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명환, 『양양역사자료집』, 2003. p.59.

忠定時，知襄州，有使者降香，凌辱存撫使，宰曰，“將及我矣”棄官歸。執政喜白王，除監察掌令。

20)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윤3월 10일

“命祭東海神”

21) 윤휴(尹鑄, 1617년 10월 14일 ~ 1680년 5월 20일)는 조선의 문신, 성리학자이다. 남인의 거두이며, 청남의 종진이자 예송 논쟁 당시 남인의 주요 논객이었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字)는 두괴(斗魁),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하헌(夏軒), 야보(冶父)이다. 이름 휴(鑄)를 잘못 오기하여 윤준(尹鑄), 윤전(尹鑄)으로도 읽기도 한다. 학자 간서재(澗西齋) 김덕민의 외손으로, 김덕민, 이민주, 이원익의 문인이다. 학행(學行)으로 시강원진선이 되었으며 이후 성균관사업, 사헌부대사헌, 이조판서, 의정부좌찬성 등을 지냈다. 윤선도, 허목과 함께 서인 공격의 선봉장이었다.

22) ...아침에는 심군 철(沈君轍)이 왔다가 갔고, 저녁에는 간성 군수 윤세장(尹世章)이 동해신(東海神) 제사의 예차관(預差官)으로 와서 이 절을 지나다가 여러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또 나를 와서 보았는데, 윤(尹)은 바로 윤 상공 해원(尹相公海原)의 증손이요 윤 판서 이지(履之)의 손자라고 했다. 대옥 역시 동해신 제사 일로 저녁에 떠나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나도 재계가 끝났고 대옥도 제소(祭所)에서 돌아왔다. 나더러 동해신묘비문(東海神廟碑文)을 지으라고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는데, 그날 모두 한번 실컷 즐기고 싶었으나 마침 관사(官事)가 바빠 부득이 서둘러 돌아가야 했기에 간성 군수 윤군이 행리 속에서 꺼내 온 술

(監司)와 도사(都事)가 부(府, 양양부)에 온다는 말을 듣고 하직을 하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sup>22)</sup> “8월 17일 기사 중에 윤희도 재계가 끝났고, 양양부사 대옥도 제소(祭所)에서 돌아왔다. 나더러 동해신묘비문(東海神廟碑文)을 지으라고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다.”<sup>23)</sup>고 했다. 이로써 고려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동해신묘 제례봉행과 관련해 중앙과 도 및 인근의 태수들이 함께 제례를 봉행하였고, 고려 때는 명나라 강항사까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권76<sup>24)</sup> 나라에서 행하는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中祀)로 하고, 제사는 세수(歲首)에 지내는 제사를 별제(別祭), 중춘(仲春), 중추(仲秋)에 좋은 날을 점쳐서 제사하는 것을 상제(常祭)라 하였는데 제사의식(祭祀儀式)에 관하여는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 제사시일(祭祀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중춘(仲春)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仲秋에도 이에 준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중외(中外)의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sup>25)</sup>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이라 쓰며,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양인이나 보충군·공천(公賤) 중에서 2호를 정하여, 부역을 면제하여 항상 간수하며 청소하게 한다.

제사(諸祀)의 의식(儀式)내에 제사의 신단(神壇)과 묘원(廟園) 밖의 30보에는 땀나무와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경작(耕作)과 행인을 금하게 하였으며,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과 안주로 몇 순배 돌리고 각기 파했다. 중 사놀이 나를 보러 왔기에 내가 시로 답하였다...

했는데, “감사(監司)와 도사(都事)가 부(府)에 온다는 말을 듣고 하직을 고하고 떠난 것이다.”라 하였고, 3일 후인 윤3월 13일 “낙산사에 거동하였다(甲申/幸洛山寺)”고 했다. <이하생략>

23) 나도 재계가 끝났고 대옥도 제소(祭所)에서 돌아왔다. 나더러 동해신묘비문(東海神廟碑文)을 지으라고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는데, 그날 모두 한번 실컷 즐기고 싶었으나 마침 관사(官事)가 바빠 부득이 서둘러 돌아가야 했기에 간성 군수 윤군이 행리 속에서 꺼내 온 술과 안주로 몇 순배 돌리고 각기 파했다. <이하생략>

24)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1437년) 3월 13일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 海, 瀆, 山川壇廟及神牌制度: (생략)

(생략)江原道: 國行: 襄陽府東海中祀祠廟位版, 書東海之神. 原州雉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雉嶽之神.(생략)

請國行處立祠廟, 毀其壇壝, 神廚庫房, 各構二間. 所在官行祭處, 或壇或廟, 隨其所設, 無祀廟處藏主室及神廚庫房, 亦令造成. 其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良人及補充軍公賤中, 每一所各定二戶, 免其役, 常令看守掃除.

一, 祭服, 京畿國行祭所, 已曾製造下送, 其餘各道, 令其道用各司奴婢身貢及神稅布, 漸次造作. 所在官行祭則獻官着祭服, 執事校生, 令着儒冠.

一, 諸祀儀式內, 諸祀神壇廟園外三十步, 禁斷樵牧耕種及行人, 請依儀式禁樵牧行人, 且令栽松.

一, 神位版之制, 《洪武禮制》: “州縣社稷神牌高二尺二寸, 闊四寸五分, 厚九分, 座高四寸五分, 闊八寸五分, 厚四寸五分.” 《元史》: “社稷神位版用栗, 素質黑書.” 《杜氏通典》《題主儀》: “書訖, 光漆重模.” 本曹已於宣德六年, 參用古今制度, 詳定嶽海瀆山川位版制度. 今各處神位版, 或以松木, 或以木, 或塗紙或朱黑漆或不書, 體制不一, 橫則全不製造, 請令依規式改造.

一, 壇壝之制, 宣德六年, 本曹詳定中祀嶽, 海, 瀆, 依風, 雲, 雷, 雨壇制, 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小祀名山, 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四出階, 各三級. 今各官祭壇, 高低廣狹不一, 依本曹受教規式改革.”

25) 세종오례/길례의식/제약해독의/시일

書雲觀前一月, 以仲春上旬, 擇日報禮曹, 【仲秋準此.】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隨職供辦





신위를 설치하되 한가운데 있게 하고, 남쪽을 향하게 하며, 자리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축판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1척 2촌이요, 폭은 8촌, 두께는 6푼이다(1척의 길이는 28.621cm이다). 축문은 “국왕 (성)(서명) 감소고”라 쓴다. 축문은 기일 전에 관원이 받들어 바치는데, 근신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치면 전하가 서명하고 이를 마치면 친히 사신(使臣)에게 준다.

기고(祈告)하고 보사(報祀)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폐백(幣帛)의 길이는 1장(丈) 8척(尺)인데 저포(苧布)를 사용하는데 동해는 동쪽이므로 청색을 사용한다.

행사집사관은 헌관(관찰사가 하는데, 만약 제소가 겹치면 수령을 나누어 보낸다), 축(祝), 장찬자(掌饌者), 사존자(司尊者), 찬창자(贊唱者), 찬례자(贊禮者)이다.

## 2) 제사축문(祭祀祝文)<sup>26)</sup>

〈別 祭〉

維歲次某年正月干支朔某日干支 大統領○○○委任將事使襄陽郡守

○○○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灌溉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俾垂豐穰之慶兼任謹禱之至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정기가 아득히 깊고도 넓게 쌓여 오행이 이에 시작하였나이다. 관개의 넓은 공을 고루 펴서 만물이 생성하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 비나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여무는 경사가 오래오래 드리워져서 겸임하여 삼가 계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常 祭〉

維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 大統領○○○委任將事使襄陽郡守

○○○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梁盛庶品式陳明薦 尚 饗

동해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큰 바다의 왕이시어 널리 이롭도록 큰 덕을 베푸시니 이에 향사를 올림이 마땅하여 길이길이 많은 복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삼가 희생 폐백과 진한 술 그리고 여러 제물을 갖추어서 법대로 진설하고 밝게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3) 제사재계(祭祀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그중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

26) 양양군지, 2010년, p.1564.

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친  
 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엽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  
 병(問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  
 거나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 일만을 행한다. 이미 제  
 재하고 빠진 자는 통섭(通攝)하여 행사한다.(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다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  
 아입는다.)<sup>27)</sup> 제복(祭服)은 도(道)로 하여금 각사의 노비의 신공과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고 소  
 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쓴다. 3품의 관은  
 3량이요, 현대는 은을 사용하고, 패는 약옥(藥玉)을 사용하고, 수는 황색·녹색·적색·자색의 네 가지 빛갈  
 의 실을 사용하여 반조화금(盤鵑花錦)을 짜서 만들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으로 맺으며, 수의 고리는 2  
 개인데, 은을 사용하고, 홀은 상아를 사용한다. 무릇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은 모두 우리(滌)에서 3개월 이  
 상 기른 양 한 마리나 되지 한 마리를 쓰는데, 희생들은 매질하여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죽으면 이를 묻고,  
 창병(瘡病)이 있는 것은 이를 대체시킨다.

#### 4) 제례진설(祭禮陳設)

제사 전 2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막차(幕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  
 (饌幔)을 설치하되, 다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전 1일에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에 설치하되, 북쪽에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유사  
 (有司)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헌관 자리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남으로 서향하게 한  
 다.

집사자의 자리는 헌관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여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찬창자(贊唱者)·찬례자  
 (贊禮者)의 자리를 동계(東陛)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헌관의 음복위(飲福  
 位)는 단상의 남계(南陛) 서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헌관 이하는 동문 밖의  
 길 남쪽에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상이 되게 한다.

예감(瘞坎)을 단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해(海)·독(動)에  
 는 예감(瘞坎)이 없다.】 남쪽으로 섬돌[陛]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헌관(獻官)  
 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고, 축(祝)과 찬창자(贊唱者)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여  
 설치한다.

27) 세종오례/길례의식/제약해독의/재계

前祭五日，應行事執事官，並散齋三日，宿於正寢：致齋二日，一日於廳事，一日於祭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祭事：凡齋而闕者，通攝行事。【凡預祭者，皆前祭二日，沐浴更衣。】



미시(未時)뒤 2각(刻)에 유사(有司)가 단의 내외를 소제하고,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통상복으로 부엌에 나아가서 척탁(滌濯)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며, 생의 충실하고 살찐 것을 보고서,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哺時) 뒤에 장찬자(掌饌者)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잡는다.(가죽 썰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진설하고, 폐비(幣篚)를 준소에 진설한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장찬자(掌饌者)가 제수 담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되, 변(籩) 10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울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이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그 다음이다.) 두(豆) 10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왼쪽을 상(上)으로 한다.(첫째 줄에는 구저(菹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그 다음이다.) 조(俎)가 2개인데, 하나는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에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며, 넓적다리[髀]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는 그 다음에 있고, 등심[脊]은 가운데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豕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은 것은 양(羊)과 같고, 모두 생갑(牲匣)이 있다.

보(簋)·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으며, 보가 왼쪽에, 궤가 오른쪽에 있다.(보에는 도(稻)·양(梁)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簋)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등(甑)·형(鉶)이 각기 3개인데, 보·궤 뒤에 있어, 형이 앞에 있고, 등이 그 다음에 있다.(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이 3개인데, 보·궤 앞에 있고(각기 점[坩]이 있다.) 준(尊) 6개를 설치하는데, 모두 작(勺)과 먹(幕)을 얹어서 단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무릇 준(尊) 하나에는 예제(醴齊)를 담고, 하나는 양제(盎齊)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고, 그 현주(玄酒)는 각 상준(上尊)에 설치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써 대신한다.) 세(洗)는 남쪽 섬돌[南陛]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만약 작세(爵洗)의 비라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데, 점[坩]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한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樽)·뇌(鬯)·비(篚)·먹(幕)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먹의 뒤에 설치한다.<sup>28)</sup>

28) 세종오례/길례의식/제악해독의/진설

前祭二日, 有司掃除壇之內外, 設諸祭官次, 又設饌饗, 皆於東門外, 隨地之宜. 前一日, 設神座於壇上北方, 南向, 席以莞. 有司牽牲詣祭所; 設獻官位於壇下東南, 西向; 設執事者位於獻官東南, 西向北上; 設贊唱者贊禮者位於東陛之西, 俱西向北上; 設獻官飲福位於壇上南陛之西, 北向; 設門外獻官以下於東門外道南, 重行北向西上; 開墜坎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陛; 【海濱無墜坎.】

찬실도(饌實圖)<sup>29)</sup>와 찬실도설(饌實圖說)<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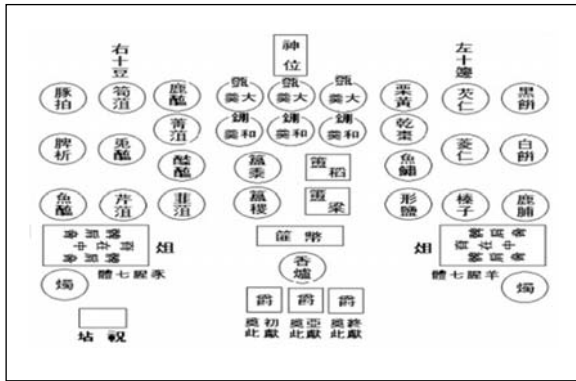


그림 4. 찬실도

돈박(豚拍) : 돼지의 갈비. 순겨(筋筍) : 죽순 집겨. 녹래(鹿醃) : 사슴고기의 젓. 대경(大羹) : 양념을 넣지 않은 국. 대경(大羹) : 양념을 넣지 않은 국. 대경(大羹) : 양념을 넣지 않은 국. 경인(杏仁) : 가시연밥의 알맹이. 음장(栗糝) : 밥의 알맹이. 흑병(黑餅) : 검은 떡. 비석(饔析) : 소의 처념. 토래(虎醃) : 토끼고기의 젓. 상겨(黃筍) : 부추 집겨. 화경(和羹) : 양념을 넣은 국. 화경(和羹) : 양념을 넣은 국. 화경(和羹) : 양념을 넣은 국. 건조(乾菜) : 마른 대추. 능인(蓴仁) : 마름 열매. 백편(白餅) : 흰떡.	당배(糖餠) : 육경(肉餠). 레서(羅食) : 기장 그릇. 보포(餠粉) : 버 그릇. 어수(魚醃) : 말린 물고기. 어배(魚醃) : 물고기의 젓. 근겨(芹筍) : 미나리 집겨. 구겨(韭筍) : 부추 집겨. 레진(羅楨) : 차기장. 보양(餠餠) : 떡조. 형설(形設) : 덩이소금. 진겨(楨子) : 개갈. 녹포(鹿脯) : 사슴고기토 만든 포. 칠제사성(七體祭生) : 7부위준육. 비회(饔解) : 돼백과주리. 칠제양성(七體養生) : 7부위양고기.
---	---

표 2. 찬실도설

5) 제례행례(祭禮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장찬자(掌饌者)가 들어가 제수를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집사자가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례자(贊禮者)가 현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陞]로 해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고 도로 나온다.

전 3각(刻)에 여러 제관(祭官)이 각기 그 제복(祭服)을 입고, 찬창자(贊唱者)·찬례자(贊禮者)가 동문(東門)으로 해서 들어가, 먼저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례자가 제관(祭官)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전 1각에 찬례자가 축(祝)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단(壇) 남쪽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섰으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하여, 축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관세한 뒤에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작을 씻고 작을 닦고 나서, 준소(尊所)의 점(玷) 위에 놓는다. 찬례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가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하여, 현관이 네 번 절한다.

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祝及贊唱者在東西向北。未後二刻，有司掃除壇之內外。贊禮者引獻官，以常服詣廚，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膾，還齊所。〈중략〉【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篋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有玷。】設諸執事盥洗，又於獻官洗東南，北向；執尊壘篋罷者位於尊壘篋罷之後。

29)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찬실도.  
 30)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찬실도설.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아뢰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재배(再拜)하라."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찬하여 홀을 잡게 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서 남쪽 섬돌(南陞)로 올라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찬례자가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게 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香盞)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香爐)를 받들면, 찬례자가 찬하여 삼상향(三上香)하게 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향함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초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陞)로 해서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맥(鬯)을 들고 예제(醴齊)를 떠내면, 집사자가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작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축(祝)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찬례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면, 집준자가 맥을 들고 양제(盎齊)를 떠낸다.

집사자가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으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게 하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말하기를, "중헌례를 행하라."하여,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음복(飲福)하고 조육(胾肉)을 받으라."하면, 집사자가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떠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육을 덜어낸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꽂으면,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시고, 작을 내면, 집사자가 빈 작을 받아서 점(坫)에다 도로 놓는다. 집사자가 서향

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내려가 문을 나간다.

찬례자가 찬하여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재배하라."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변(籩)·두(豆)를 견어치우라."하면, 축(祝)이 나아가 변·두를 변·두 각기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긴다.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망예(望瘞)하라."하면 헌관이 절하고 나면 폐백을 해(海)에 담근다.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창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찬례자가 축(祝) 이하를 인도하여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서게 하면, 찬창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하여, 축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찬례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찬창자와 찬례자가 단 남쪽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서 나간다. 집사자가 신위판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sup>31)</sup>

## 2. 襄陽儒林의 東海神廟 行禮(笏記)

獻官及 諸執事 以下 俱就門外位 謁者引 初獻官詣 點視 因降復位 贊引引祝及 諸執事 詣 盥洗位 盥手 悅手 入就階間配位 四拜 鞠躬 拜興拜興拜興拜興 平身 各就位 設香爐香盒 謁者引 獻官 俱就拜位 謁者進 初獻官之 左白有司 謹具請行事

### ❖ 行降神禮

謁者引 初獻官詣 盥洗位 搯笏 盥手 悅手 執笏 引詣東海廣德龍王神位前 跪 搯笏 三上香 執笏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 ❖ 行參神禮

獻官以下階 四拜 參禮員一同 默禮 鞠躬 拜興拜興拜興拜興 興 平身

### ❖ 行初獻禮

謁者引 初獻官詣神位前 跪 搯笏 酌酒 執爵 獻爵 執笏 俯伏 興 小退 跪 諸位者皆 俯伏 祝進 獻官之左 東向

31) 세종오례/길례의식/제약해독의/행례

祭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掌饌者入, 實饌具畢, 執事者服其服升, 設神位版於座。贊禮者引 獻官升自南陛, 點視陳設訖, 遷出。前三刻, 諸祭官各服其服。贊唱者贊禮者入自東門, 先就壇南拜位, 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중략) 執事者藏神位版, 徹禮饌以降乃退。

跪 讀祝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亞獻禮

贊引引 亞獻官詣 盥洗位 搯笏 盥手 悅手 執笏 引詣神位前 跪 搯笏 酌酒 執爵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終獻禮

贊引引 終獻官詣 盥洗位 搯笏 盥手 悅手 執笏 引詣神位前 跪 搯笏 酌酒 執爵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飲福禮

謁者引 初獻官詣 飲福位 西向跪 搯笏 祝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飲卒爵 以爵授 祝復於坵上 祝以酢授獻官 獻官受酢 以酢授 祝置東門內 獻官興 引降復位

❖ 行辭神禮

獻官以下 皆 四拜 參禮員一同 默禮 鞠躬 拜興拜興拜興拜興 興 平身

❖ 行望塵禮

謁者引 初獻官 焚祝位 北向立 祝以匪取 祝降自置於坎 焚祝 引降復位 謁者進 初獻官之左白禮畢 獻官以下出 祝及諸執事 階間拜位 四拜

鞠躬 拜興拜興拜興拜興 興 平身 以次出. 儒林 饌實圖<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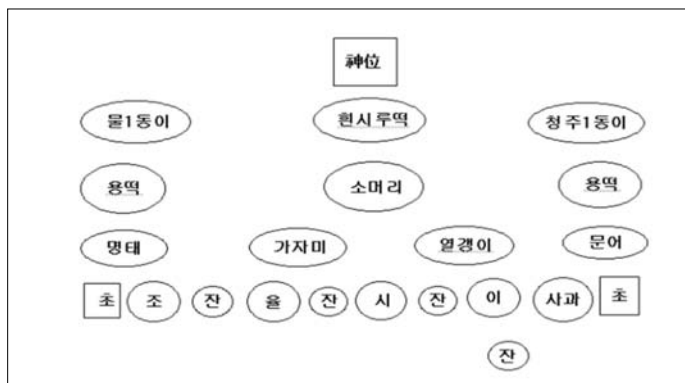


그림 5. 양양유림 찬실도

32) 조성순, 양양읍 율리, 강원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 IV. 東海神廟의 向後課題

### 1. 東海神廟 祭享의 再定立

#### 〈問題提起〉

동해신묘는 일천여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국가제사처로, 관찰사가 헌관이 되어 매년 별제와 상제로 나누어 기원제례를 봉행하던 곳이다. 정전 복원 이후 제례봉행 실태를 보면 1월 1일 06:00 새해맞이축제와 7월 10일 10:00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무탈 기원제 등 두 차례에 걸쳐 동해지신(東海之神)을 모시는 사당에서 동해광덕용왕신(東海廣德龍王神) 신평(神牌)를 모셔 놓고 동해용왕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는 일제강점기에 폐지된 전통제례를 80여 년 만에 복원하면서 고증을 거치지 않고 군 단위(郡單位) 이벤트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제사처가 군 단위제사처로 격하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잘못된 제례문화가 후손에 전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 〈改善對策〉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후손에 물려주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동해신묘와 관련 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첫째, 신·구 전통제례의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절충형(折衷形) 제례방식을 도출.
- 둘째, 현 동해신묘(東海神廟)의 편액(扁額)을 동해묘(東海廟)에서 동해신묘(東海神廟)로 교체.
- 셋째, 동해신묘중수기사비의 비각(碑閣) 건립.
- 넷째, 동해신묘의 신문(神門)과 담장 설치.
- 다섯째, 동해신묘 뒤쪽 진입로 폐쇄 앞쪽이설.
- 여섯째, 동해지신(東海之神) 신평(神牌)만 모시고 상설(像設)은 모두 철거.
- 일곱째, 여지도서 단묘 편에 기록된 시설 복원(정전은 발굴 조사 후 정전 재건축,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 서재 각 2칸, 백천문 1칸 등).



그림 6. 동해광덕용왕신



그림 7. 동해신묘 뒷길





## 2. 國家史蹟으로 昇格

### 〈東海神廟址〉

나라에서 동해신(東海神)에게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豐農豐漁)를 기원하기 위해 중사(中祀)로 설정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번지 외 1필(면적 1,316㎡)에 위치해 있고, 2000년 1월 22일에 강원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동해신묘를 언제 세웠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 “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지양주사 별호양산 유동해신사)”라 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단유】에 동해신단(東海神壇)은 동쪽으로 13리에 있는데, 고려 때는 동해(東海)이므로 중사(中祀)에 실려 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그 외 『조선왕조실록』 『관동읍지』 『양주지』 등에 기록이 전한다. 『여지도서』에 동해신묘는 정전(正殿) 여섯 칸, 신문(神門) 세 칸, 전사청(奠祀廳) 두 칸, 동·서제(東西齋) 각 두 칸, 백천문(百川門) 한 칸 규모였다. 제사는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춘추(春秋)로 상제(常祭)로 지냈다.

경종 2년(1722)에 양양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영조 28년(1752)에 양양부사 이성억(李聖億)이 중수(重修)하였다. 정조 24년(1800)에는 어사 권준의 상소에 따라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주관으로 중수되었다. 융희 2년(1908) 12월 26일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동해신묘는 철폐되었다. 당시 양양군수 최종락이 일제 통감부 훈령에 따라 신패는 신묘 뒤편에 매장(埋藏)하고 신묘를 철폐하였다는 기록이 양양 『향토지』에 전한다. 현재 동해신묘는 1993년부터 시작한 동해신묘 복원사업 일환으로 복원 한 것이다. 또한 정조 24년(1800)에 관찰사 남공철이 지은 글인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현존하고 있으나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나라에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은 양양의 동해신묘와 남해의 남해신사(전라도 나주), 서해의 서해신단(황해도 풍천)이다.

양양의 동해신묘지는 조선시대가 아닌 고려시대부터 동해신묘를 세워 나라의 태평성대(太平聖代)와 동해안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동해신(東海神)을 모신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신묘의 중수기사비가 현존하고 있는 남한 유일의 제사터 임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로 승격시켜야 한다.

## V. 맺는말

양양의 동해신묘는 동해신에게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고려사』에 양주(襄州)는 지금의 양양군으로 ‘有東海神祠(유동해신사)’라 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이미 존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동해신묘’와 ‘남해신사’ 둘 뿐인데, ‘동해신묘’는 1908년 동해신묘가 훼손된 지 9년 후인 1917년 일제가 측량한 지적원도에 사지[社]라 표시되어 있고 1800년도에 남공철 강원관찰사가 세운 동해신묘중수기사비가 현존하고 있는 남한 유일의 국가제사터[中祀]이다.

조선 초기에 사전(祀典, 제사지내는 법도)이 정비되면서 중사로 설정되었고 이때부터 국가적인 제사처(祭祀處)로 관리되었다. 이곳에서 제례봉행은 매년 세수(歲首)에 별제(別祭), 2월과 8월은 상제(常祭)로써 나라에서는 강향사(降香使)를 내려 보내 왕이 내린 향과 축으로 제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관찰사가 동해지신(東海之神)에게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豐農豐漁)를 기원했다.



그림 8. 동해특집다큐출연

정조 24년(1800) 4월 7일(己丑) 기사에 “양양(襄陽)의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동해신묘에 철폐가 가해진 것은 일제의 통감부 시절인 옹희 2년(1908년) 12월 26일에 명을 받은 최종락 양양군수가 신묘를 훼손하였고, 동해신묘중수기념비마저 허리가 잘리는 수몰을 당하였다.

〈그림 8〉은 필자가 지난 2017년 4월 23일 KBS 특집다큐에 출연하여 동해신묘에 대한 인터뷰를 한 기록물의 표지이다. 국제적으로는 동해 명칭이 한·일간의 쟁점으로써 기회 있을 때 마다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해신묘는 동해라는 고유명사로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다는 역사적 전거(典據)로 내세울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차제(此際)에 ‘동해신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여지도서』에 기록된 옛 시설(施設)물들을 복원함은 물론, 그동안 미흡했던 제례도 고문헌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례 절차와 제수(祭需)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실행되고 있는 제례도 관계자 협의를 거쳐 보완하여 신·구 절충제례(折衷祭禮)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국가제사처[中祀]로써 손색이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 『大東地志』
-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襄陽邑誌』

『關東邑誌』

『玄谷集』

『東州集』

『三淵集』

『希菴先生集』

『順菴集』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冠巖全書』

『鳴巖集』

『杜機詩集』

『西山先生文集』

『海左先生文集』

『梅山先生文集』

『白南先生文集』

『懶隱先生文集』

『舫山先生文集』

『淵齋先生文集』

『俊宇先生文集』

『魯西先生文集』

『金陵集』

『白湖全書』

『淵齋先生文集』

『襄陽郡誌』

『峴山22號』襄陽文化院. 2011.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2012 제27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 【도움주신 분】

조성순(55세), 양양읍 율리, 강원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 襄陽學 考察

양언석 (강원도립대)

## 1. 緒論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談論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의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양양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sup>1)</sup>

농업에 힘쓰고, 장례에 정성을 다하고 놀이를 좋아하며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였다는 기록에서 襄陽學의 面貌를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신라의 정책이었다. 불교를 통한 一心과 佛國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양양의 불교는 불교의 聖地답게 우수한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양양은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격전장이 되었으며, 5세기 말엽에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영향력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양양은 신라의 영역에 편제되었으니 익령으로 수성군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sup>2)</sup>

조선조에는 왕조의 外親으로 양양을 부로 승격하고 특별히 관리해 왔다.<sup>3)</sup> 『擇里志』 山水條에 의하면 산수

1) 『輿地圖書』

2) 이규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 박문관, 1994, P27

3) 『新增東國輿地勝覽』

본래 고구려 翼嶼縣인데(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翼嶺이라 고쳐서 守城郡의 屬縣이 되었다. 고려 顯宗 때 縣令을 두었다.

의 승지는 당연히 강원 영동의 영동이 제일(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第一)일 했고, 『新增東國輿地勝覽』樓亭條 形勝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관동이 첫째(我東韓 山水之勝 關東爲最)라고 기록하고 있다.

儒家사회에서 연암이 景觀祿俸論을 언급하기 이전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風光 좋은 양양을 찾아 은둔하거나, 유람하며 심회를 표현한 시와 山行記는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양은 삼국시대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고 불교의 聖地였으며,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조선조왕조의 外親으로 특별히 관리해 왔다.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2016년이 양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600주년이 된다. 600주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지역발전의 중요한 地域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襄陽學은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산업 등을 연구하여 미래발전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오늘의 양양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양양의 문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襄陽學의 正立은 절실히 필요하다.

## 2. 文化的 背景

지역의 역사는 최고의 자원이다.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 새로운 이념인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를 수용하면서 사찰이 건립되었고, 사찰의 상징인 불전과 탑이 양양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불교의 聖地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승려로는 자장을 비롯하여 의상, 원효, 도의 등을 들 수 있다. 승려들은 대부분 입당구법(入唐求法)으로 중국의 선진문화와 불교로 教化에 힘썼다. 대표적인 사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香城寺

진덕여왕 6년(652) 창건하였고, 효소왕 7년(698)에 소실되었다가 효소왕 10년(701) 의상대사가 향성사 능인암터에 중건하고 選定寺하였다. 그 후 인조 22년(6144)에 신흥사라고 하였다.

慈藏(건평왕32, 610-태종무열왕1, 654)이 활동했던 7세기 중반은 선덕여왕이 재위했던 시기이다. 여자가

---

高宗 8년(1221)에 거란군사를 방어한 공이 있다고 하여 읍호를 襄州로 하고 防禦使를 파견하였으나 고종 44년 적에게 항복하여 德寧으로 읍호를 바꾸고 강등하여 監務를 두었다가 元宗 원년(1267)에 다시 양주로 회복하고 知襄州事를 파견하였다. 본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 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왕위에 올라 백제의 공격을 받아 40여개 성을 빼앗기면서 위태로워졌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선덕여왕의 귀국령으로 유학 중이던 승려들이 귀국하여 왕과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로 민심을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자장은 진골출신으로 조정의 자리를 포기하고 출가를 실행하였다. 이때, 왕명으로 위협하자 “백년을 파계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계를 지키겠노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승려의 꿈을 굽히지 않았다.

자장의 사상 중에 眞種說을 주장하였다. 진종설은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생시킨 왕실과 신라왕실이 같다는 신성성의 주장이다. 석가모니 종족이자 전륜성왕(인도의 이상적인 정복군주)이 다스리는 신라사회는 현재 부처와 보살이 머무르는 신라불국토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으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상주처이고, 설악산을 雪山이라고 명칭한 것(영혈사, 역성사, 오색석사)은 설산이 석가모니가 득도한 신성한 장소로 자장에서 비롯되었고, 설산(설악산)의 지류인 오봉산의 낙산사는 관음보살의 상주처가 되었고, 신라시대 양양을 불교 聖地의 토대로 만든 것이 자장이다.

양양지역은 불국토사상과 호국불교사상으로 불교의 성지로 확인되어 화랑도와 승려들의 중심수련장과 순례지가 되었다.

## 2) 洛山寺

671년(문무왕11) 義湘이 관음보살을 親見하고 낙산사 창건하였고, 그 후 범일선사가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 모셨다.

문무왕이 대당전쟁을 승리하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경주의 王城을 새롭게 하고자 의상에게 묻자 의상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성곽을 새롭게 하여 화려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政敎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왕은 이에 공감하여 역사를 그만두었다.

이러한 의식에서 의상은 변방의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인식하여 성지로 정착하고자 낙산사를 창건하였고, 이 지역을 불심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해용왕에게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받은 설정은 불교의 성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변방이지만 군사적이고, 교통 중심인 양양을 중심으로 불국토 사상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신라의 불국토사상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통일 후에도 불교를 신앙체계로 하여 변방의 기층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신라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의상의 관음보살 상주처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원효가 낙산사에서 비참한 시련을 겪게 된다.

낙산사 남쪽 교외에 이르니 눈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벼를 베고 있었다. 원효가 희롱삼아 벼를 달라고 하자 여인은 벼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원효가 또다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다. 원효는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했다. “휴제호(休醜湖), 화상아!” 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니 관음보살상 아래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이에 원효는 전에 만났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 하였다. 원효는 결국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고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났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자, 원효는 그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던<sup>4)</sup> 곳을 냉천이라고 한다.

이 냉천을 문화유적으로 활용하면 흥미로울 수 있다. 의상과 원효는 동학이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루면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왕실에서는 원효의 자율적인 사상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위해 의상의 체계적인 사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당의 종남산 지상사에서 중국의 제2조인 지엄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화엄교학을 펼쳤다. 의상은 우리나라 화엄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경전 중심의 교종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도를 계승하는 선종이 중시되었다. 이 선종이 도의에 의해 진전사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양양은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과 조계종의 개시조인 도의선사가 개창한 진전사가 불교의 성지로 자리하고 있다.

일연국사가 저술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의상과 원효의 담론과, 조선전, 그리고 범일선사의 정취보살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일연국사가 낙산사에서 가까운 진전사에 출가하여 직접 들었던 연유로 보인다.

이처럼 양양의 불교는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 그 활용가치는 무한하다. 불교의 성지순례로, 그리고 낙산사의 조선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그 가치와 소설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가치도 활용 하여야 한다.

#### 4) \* 『신증동국여지승람』

냉천(冷泉)-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이 여자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는데 원효대사가 냉천 물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며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냉천\_ 부 북쪽 15리 오봉산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 관음보살이 덕녀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원효대사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실없이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鄭樞의 시에 “덕녀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연했네” 하였다.

### 3) 陳田寺

창건년대 미상으로 道義선사가 창건하였고, 九山禪門 중 迦智山門의 개시조이다. 그리고 一然스님 14세에 진전사로 출가하였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 『조당집』 권17에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전(도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도의의 속성은 왕씨이다. 임신하기 전 그의 아버지는 흰무지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한 승려와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이에 부모들은 반드시 聖子를 얻을 꿈이라고 하였는데 임신한지 39개월만에 도의가 태어났다. 출생하는 날 아침에 異僧이 錫杖을 짊고 문 앞에서 “금일 낳는 아기의 태를 강과 산으로 첩첩이 둘러쌓인 곳에 묻어라”하고 사라졌다. 이에 태를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지켰는데 해가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해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상서로움으로 법호를 明寂이라 하였다.

建中 5년(선덕왕5, 784)에 당나라에 입당하였다. 곧바로 오대산에 들어가 文殊의 감응을 받았는데 허공에서 聖鐘의 소리를 듣고 산 속에서 神鳥가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廣府의 寶壇寺에 머물면서 구족계를 받고 曹溪에 가서 祖師堂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려 하자 갑자기 문빗장이 저절로 열렸고 예배를 세 번 드리고 나니 저절로 닫혔다. 그로부터 江西 洪州의 開元寺에 가서 西堂智藏(735-814)을 참문하고 의문점이 해결되고 막힌 체증이 풀리게 되었다. 지장이 그를 맞이함이 마치 石間에서 美玉을 쥘 듯하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워내는 듯하여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랴”라고 말하고 법명을 道義라고 고쳐주었다. 이에 頭陀의 길을 떠나 百丈山 悔海和尚(749-814)의 처소를 찾아가 서당에게하는 것과 똑같이 하니 백장이 탄복하여 江西(馬祖 道一)의 禪脈이 모두 東國으로 돌아가는 구나“ 라고 하였다. 신라의 선승들은 거의 마조도일의 제자로 서당지장과 백장회해도 마조계의 법을 이었다.

37년 정도 중국에서 보내고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의 심인을 전해 받은 도의는 헌덕왕 13년(821) 귀국하였다. 귀국 후 교종에 의해 불교계에서 魔語라고 배척 받으며 북산(설악산)에 은거하여 산문을 열고, 법을 廉居禪師(?-884)에게 전하였다.

雪山 億聖寺에서 조사의 심인을 전하고, 도의의 가르침을 퍼다가 普照禪師 體澄(804-880)에게 법을 전하였다. 체징은 염거가 설산 역성사에서 행화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참문하여 조사의 심인을 얻었다.

체징은 희강왕 2년(837)에 입당하여 문성왕 2년(840) 귀국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여 도의의 선풍을 계승하였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선문은 제1은 도의이고, 제2는 염거, 제3은 체징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종은 마조도일의 영향으로 원적도의—염거—보조체징—백장회해로 법을 이어왔다.

진전사지와 3층석탑, 석조부도, 불좌의 중대석 및 많은 유물이 전해 오고 있다. 도의가 진전사를 개창한 이후, 가지산문의 토대가 되었다. 의상은 낙산사를 중심으로 낙산사에서 화엄사상을 널리 선교하였지만 신



라 말부터 고려조에 도의가 진전사를 창건하여 선종사상을 선교하였다.

普覺國師 一然(1206-1289)은 충열왕 9년(1283) 국사에 책봉되어 불교계의 상징이었다. 일연국사가 진전사로 출가한 것은 역사적인 사상사의 흐름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양지역은 신라 불교문화의 중심축으로 군사적, 교통적 중심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왔다. 변방이지만 삼국통일과 통일 후 중심지로서 의상이 귀국하여 처음으로 양양에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낙산사를 창건하여 불교를 통해 민심을 일심으로 하여 중앙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의상이 후 원효가 다시 불교의 성지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조신전은 깨달음의 공간으로 승려들에게 구도적인 의미와 양양인에게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화하였다. 도의는 당에서 유학하여 중국선종을 수용하여 진전사를 개창하여 선종의 개창자로 추앙 받고 있다.

진전사에서는 선종의 개시처로, 그리고 일연국사와 『삼국유사』를 통한 학문적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 沙林寺(禪林院)

사람사는 애장왕 5년(804)경 창건 되었고, 황이리 미천골에 있었던 사찰로, 후에 역성사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선림원을 창건한 弘覺선사의 비가 역성사에 세워진 것<sup>5)</sup>으로 보아 알 수 있다.

貞元 20년 갑신(804) 3월 23일 當寺의 종을 만들어졌다. 古尸山郡 仁近 大內末과 紫草里가 시납하신 古鐘은 쇠 280廷과 當寺 고종의 쇠 220廷으로 토대로 삼아 十方의 杵越(檀越)들을 권하여 이루었다. 기원하는 것은 法界有情이 모두 佛道에 이르러 감이다. 서원할 때, 들으신 님은 信廣夫人이다. 上坐 舍妙寺의 日照和尚이고, 당시 감독(時司)은 元恩師고, 종을 만드는 伯士(기술자)는 당사 覺智師, 上和尚 順應和尚, 良惠師, 平法?, 善覺師, 如於?, 宣司 禮覺師, 節唯乃 同說이다.<sup>6)</sup>

선림원 종은 고시산군 인근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한 고종과 당사의 고종인 500정으로 건립하였다. 고종이라는 표현에서 이 절은 804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을 만들 때, 참여란 인원을 보면 이 절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화상인 순웅은 의상의 제자인 神琳의 제자이다. 혜공왕 2년(766) 입당한 인물로, 애장왕의 지원으로 해인사를 창건한 화상이다. 순웅이 선림원에서 있었던 이유는 의상과의 관계로 보아진다. 당시 당이나 신라의 불교계의 경향은 화엄종에서 선종의 영향으로 교선일치의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엄종의 승려이면서 선림원에서 선종을 받아들였던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선림원 종의 제작에 참여하였다.<sup>7)</sup>

기록을 고찰해 보면 이 시기에 양양을 중심으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사상적 경향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신

5) 億聖寺

廉居 화상이 道義에게 법을 이어 이곳에서 머물면서 보조 體澄에게 법을 전수하였고, 홍각선사 비가 있다.

6) 沙林院鐘名,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7) 최치원비문

라의 불교가 선림원은 홍각선사 利觀(813-880)이 창건하기 보다는 이곳에 머물면서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선승이었던 홍각선사는 역성사의 염거화상과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순응은 화엄종의 승려이면서 당에 유학하여 의상의 직계제자인 神琳에게 牛頭禪을 익혔다.

홍각은 해인사에서 화엄학을 배우다가 가지산문으로 나가 선승이 되어 선림원에 비문에 세워졌다. 이처럼 신라 하대의 화엄학 중심에서 선종의 세계로의 흐름이 양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선림원의 존재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호),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삼층석탑(보물 444호)로 보아 규모와 역사를 인지할 수 있다.

사림사비-부 서쪽 30리 사림사 遺墟地에 있다. 石碑는 김시습이 王羲之體의 글자를 모아 弘覺禪師를 찬한 것이다. 비의 자체가 매우 오래되고 훌륭하여 보물로 삼았는데 중년에 들불로 불에 타게 되었다. 일찍이 남은 돌조각을 府中에 두어 남게 하였다.<sup>8)</sup>

## 5) 靈穴寺

신라 신문왕 9년(689) 기축에 元曉대사가 창건하였다. 조선 숙종 14년(1688)무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동왕 16년(1690) 경오에 절의 중 聚遠이 증건하고 영천사로 개칭하였다.(절 서쪽에 영천이 있다) 고종 18년(1881) 信士 김중욱이 중수하고 다시 영혈사로 이름 하였다.<sup>9)</sup>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설악산 관모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효가 낙산사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와서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 6) 五色石寺

서면 오색리 있었고, 成國寺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찰에는 朗慧和尚碑文이 보인다. 비문에 의하면 雪山 오색석사로 되어 있다. 조당집권 17에 無染傳<sup>10)</sup>에도 기록이 보인다.

8) 『관동지』

9) 『강원도지』

10) 『孤雲集』 권2 碑

무염 화상 비명병서. 하교를 받들어 짓다. 이하 동일하다.(無染和尚碑銘 並序 奉教撰 下同)

-생략-

마침내 설산(雪山)의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입은 불경의 약 맛을 보는 데에 정통하였고, 힘은 터진 하늘을 기울(補天) 만큼 왕성하였다. 법성 선사(法性禪師)는 일찍이 중국에서 선종(禪宗)인 능가종(楞伽宗)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사가 몇 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면서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모두 탐색하였다. 이에 법성이 탄식하면서 “빠른 발로 치달려서 뒤에 떠나 먼저 도착하였다(迅足驟驥 後發前至)는 말을 내가 그대에게서 확인하였으니, 나는 흠족하기만 하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팔 남은 용기(餘勇可賈)가 없으니, 그대와 같은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니, 대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생략-

성주산문의 낭혜 무염(880-888)은 12세인 헌덕왕 3년(811)에 오색석사에 출가하였고, 스승인 法性선사에게 법문을 배우고 浮石寺의 釋登대덕에게 화엄학을 배웠다. 법당지와 층계난간석, 3층석탑, 석사자, 연화대석, 석탑기단 등이 전해 오고 있다.

교종사찰: 낙산사, 관음굴

선종사찰: 선림원, 진전사, 억성사, 오색석사

활동한 스님: 자장, 의상, 원효, 범일, 도의, 염거, 홍각,

양양의 불교는 처음에는 관음보살의 상주터로 의상의 화엄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불교의 성지가 되었지만 도의선사 이후 가지산문의 선승들이 선교하여 선종의 성지가 되었다.

## 7) 安軸(1282-1348)과 향교

안축이 고려조에 양양향교를 건립하면서 양양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안축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양주공관의 시운을 따라서

이름 있는 길 가는데로 앞길은 기약 없고

이 누각에 오간지 벌써 두 해다 되었네

난간 덮은 대 숲에 시원한 기운이 일어나고

문을 가린 용나무는 푸른 연기 흔드네

백성 일 두루 보고 내 나라 걱정하니

헛되이 임금 은혜 저버려 하늘에 부끄럽네

줄렬한 계책 아직 이로운 길 일으키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여 계곡의 샘물같이 좋은 생각 연 이으리<sup>11)</sup>.

존무사로 온지 2년이 지나 양양공관에 머물며 지은 작품으로 환로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도모하지 않고, 공관의 누에 올라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의 성은에 보답하고자 양양을 위해 학교<sup>12)</sup>를 세우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줄

11) 『謹齋全書』

12) 『謹齋全書』 「襄陽新學記」

관동은 산수가 기이하고 수려한데 양양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 빼어난 정기와 맑은 기운이 반드시 헛되이 축적함이 없다. 백여 년 동안에 뛰어난 재주와 덕이 있는 선비가 이 고을에서 나서 인륜을 상서롭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 했다. 이는 산수의 기운이 영험 없어서이지 고을 사람들의 성품이 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이 고을은 예부터 국경에 인접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났고 학교에서 도를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렬하다며 부족함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좋은 계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양양에 향교를 건립하였다.

안축의 양양신학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강원도 준무사로 와서 양양에 향교를 세운 것은 양양문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사적으로 황폐화된 시기이다. 산수가 아름답고 수려하지만 백여 년 동안 재주와 품위 있는 선비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방이라 변란이 자주 일어나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준무사 안축의 생각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면 집에 재주와 학문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에 양양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고을마다 미풍양속이 전해 오고 있다.

안축의 관동별곡<sup>13)</sup>은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200여년 앞선 작품으로 안축의 선양사업 중에 관동별곡도 주

---

이제 국토가 통일되어 백성들이 병란을 알지 못 하게 되었으니 성학이 거듭 자체가 날마다 번성하니 마땅히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육하여야 할 것인데 이 고을에 부임하는 관리는 오직 문서를 닦는 것을 급하게 여겨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 하였다. 이 어찌 고을 사람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고을에 와서 옛일을 아는 늙은이에게 들으니 고을 북쪽에 마을이 있어서 文宣王洞이라 하니 틀림없이 옛날 학교가 있었던 터이며 폐허가 되어 오래된 것이라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즉시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곳에 학교를 짓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 뜻이다”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도 잊었다. 이에 과거 동기생인 통주수정랑 진군(通州守正郎 陳君)에게 부서(符書)를 보내어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고을 수령 정랑 박군이 부임해 왔는데 박군은 또한 글하는 선비 상문의 아들이다. 실상은 그의 힘으로 내 이루었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대저 땅의 기운이 쇠하여 오래되면 그 왕성 하는 것도 빠르고 축적된 것이 오래되면 발하는 것도 성하니 이제부터 집에는 재주와 학문이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산수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거칠고 소략하여 공사에 빠진 점이 있으니 바라건대 뒤에 오는 군자는 한번 눈 여겨 보아 주기를 바란다.

\* 『關東邑誌』

文廟 - 부 서쪽 3리에 있다. 大成殿 9간, 東西廡 각 6간, 神門 7간, 奠祀廳 3간, 東西齋 각 4간, 明倫堂 14간, 祭器庫 1간, 書籍庫 1간

13) 『謹齋全書』 「관동별곡」

-생략-

설악산의 동쪽, 낙산의 서쪽에 빼어난 양양의 경치  
강선정, 상운정,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구나  
자춧빛 봉황새와 붉은 난새 타고 내려오는 우아한 신선들  
아! 붉은 거문고 다투어 타는 광경 그 어떠 합니까  
옛 고양땅 술꾼들 객사는 연못가에 늘어서 있으니  
아! 사계절 놀아 봅시다.

-생략-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  
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

목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양양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 8) 東海神祠

양양의 동해신묘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위해 동해신사로 정정해야 한다. 신묘는 신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신사는 황해도 풍천의 西海神祠, 전라도 나주의 南海神祠와 함께 우리나라 三海의 海神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과 축을 보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sup>14)</sup>

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sup>15)</sup>

名山雪嶽 在府西 新羅時爲小祀 東海神祠堂 在府東 春秋降香祝 致祭中祀<sup>16)</sup>

동해신단: 동쪽 13리에 있다. 고려 때 동해이므로 中祀에 실려 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sup>17)</sup>

동해묘: 부 동쪽 10리 바다 가에 있다. 正殿 6간, 神門 3간, 奠祀廳 2간, 東西齋 各 2간, 百川門 1간으로 매년 초에 別祭를 지내고 2월, 8월 常祭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sup>18)</sup>

동해묘: 부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창건 연월을 기록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으나 매 초봄에 별제를 御諱(임금의 이름)로써 친히 향축을 내려 지내는데 일의 형편에 따라서 존중하고 중시 하였다. 여러 산천의 제사의식이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 별제를 2월과 8월에 하고 또 상제도 있다. 경종 2년(1722) 임인에 부사 채팽운이 중창하였고, 동해묘와 백천문 등의 편액도 채팽운의 글씨이다. 지금의 임금 임신년(영조 28년-1752)에 부사 이성억이 또 새로 지었다.<sup>19)</sup>

爲 爭弄朱絃景 幾何如

高陽酒徒 習家池館

爲 四節 流伊沙伊多

14) 지현병 외, 양양 동해신묘, 강릉대박물관, 1999, P13

15) 『高麗史』卷58, 志, 第12, 地理3, 翼嶺縣

16)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襄陽都護府

17) 『新增東國輿地勝覽』

18) 『關東誌』

19) 『峴山誌』

동해신사: 군 동쪽에 있다. 봄가을로 향축을 내어 제사 지낸다.<sup>20)</sup>

동해신사(東海神祠): 봄가을 降香使가 내려와 致祭를 한다.<sup>21)</sup>

오늘은 바다가 생명의 중심으로,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수협이나 해양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해양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럼 왜 동해신묘라고 했는가. 그것은 17-18세기 유교문화가 불교와 불교같이 귀신의 세계를 폄하하는 시대적 사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복원해야 할 문화유적 다음과 같다

### 1)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관아(官衙)

조선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친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 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이 기록에 의하면, 2016년 음력 8월 10일(양력 9월 1일)은 定名 600주년이다. 定名 600주년 즈음하여 양양도호부 관아가 재건된다면, 안축의 향교건립처럼 양양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양도호부 관아 건물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門樓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경이고, 문루의 이름 또한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성안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었다.

도호부 관아 복원을 통해 영북지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양양의 역사성을 복원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양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신라시대 양양은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고, 고려 목종 10년(1007) 10월에 348간의 성(城)을 축조하고 성문 4개를 설치하였다.<sup>22)</sup>

기록<sup>23)</sup>과 구전에 의하면 양주성 축성을 계기로 성내(城內)에서 성황신을 봉안하여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신 전통이 그대로 복원되어 지금의 양양문화제로 이어오고 있다.

『관동지(關東誌)』 공해조(公廡-공관)에 의하면,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향청(鄉廳) 10간, 훈련청(訓練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으로 되

20) 『江原道誌』

21) 『輿載撮要』

22) 『고려사』 권82 표36 병2 성보조

23) 『고려사』

『고려사절요』

어 있다. 그리고 군보(軍保)조 의하면, 기병(騎兵) 454명, 어영군(御營軍) 19명, 금위군보(禁衛軍保) 37명, 자보(資保) 21명, 훈련도감 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188명, 별과진(別破陳) 5명, 악공보(樂工保) 18명, 악생보(樂生保) 6명, 전설보(典設保) 36명, 무학(武學) 13명, 아병(牙兵) 63명, 속오군(束伍軍) 309명으로 그 규모를 인지할 수 있다.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峴山誌)』 공해(公廡-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성: 돌로 쌓은 곳은 둘레가 403척, 토성은 둘레가 2825척으로 성안에는 우물에 2곳이 있다. 지금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다만 동, 남, 서문만 남아 있다.<sup>24)</sup>

양양읍성 둘레 2724척은 본부와 원주인 군인 14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다.<sup>25)</sup>

(1) 청연당(淸燕堂): 내동헌(內東軒, 동헌은 지방관아에서 수령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이다. 영조 6년(1736) 부사 김중희가 창건하고 “사우(四雨)”라고 하였으나 영조 32년(1756) 병자에 부사 임희교가 “청연(淸燕)”으로 개칭하였다.

(2) 와유헌(臥遊軒): 외동헌(外東軒)이다. 영조 6년(1730)에 부사 권부가 창건하였다.

(3) 양양관(襄陽館): 객사(客舍)이다. 영조 30년(1756)에 부사 이성익이 창건하였다.

(4) 태평루(太平樓): 객관(客官)의 문루(門樓)이다. 원나라 인종 연우 2년(1315)에 창건되었고 세종 21년(1439)에 송목이 재건하였다. 중종 32년(1537)에 윤사임, 정광정이 계속 수리하였다. 효종 9년(1658)에 이인이 기둥을 세웠고 한진이 상량하였다. 인조 18년(1640)에 이현이 중창하였는데 넓고 화려한 것이 이곳에서 첫째였다. 정조 21년(1797) 2월에 부사 윤헌주가 중수하였다. 다락 안팎 모두에는 태평루 3대자(大字)가 있는데, 내부 동편의 글씨는 송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필적이고 외부 서편의 글씨는 안평대군의 글씨이다. 고려조의 문장가인 가정(稼亭) 이곡(李穀, 충렬왕 24년, 1298-충정왕 3년, 1352)은 고려시대 양주(양양의 옛이름) 관아에서 태평루에 관한 시를 남겼다.

(5) 한수루(漢水樓): 동쪽 성문이다. 숙종 26년(1700) 경진에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였고, 문루의 현판은

24) 『관동지』

25) 『문종실록』 권10, 1년(1451) 11월 28일

채팽윤이 썼다.

- (6) 현산정(峴山亭): 남쪽 성문이다. 숙종 26년(1700)에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였다. 영조 24년(1748)에 부사 박필정이 다시 창건하였는데 정자의 현판은 채팽윤의 글씨이다.
- (7) 애련정(愛蓮亭): 와유헌의 앞쪽 연못 가운데 있다. 영조 24년(1748)에 부사 박필정이 창건하였다.
- (8) 통원루(通遠樓): 객관 동쪽 채원(蔡圓) 언덕위에 있다. 남대천을 굽어보고 앞에는 무산을 대하고 있으며 멀리까지 보인다. 부사 이맹우가 중수하다가 압사한 사람이 많아 대간(臺諫)의 계문으로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 (9) 납호당(納灑堂): 객관 동쪽에 있다. 부사 홍찬이 창건하였다.
- (10) 향사당(鄉射堂): 성 서쪽에 있다. 좌수(座首)는 鄉人으로서 풍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였는데 유생으로서 科業을 폐하지 않은 자로 과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망(差望)하였다. 영조 32년(1756) 부사 임희교의 권금록 작성시 정식이 되었다.
- (11) 군기고(軍器庫): 객관 남쪽에 있다. 감관(監官)은 2인이다.
- (12) 훈련청(訓練廳): 객관 서쪽에 있다. 파총(把摠)은 1인이다.
- (13) 군청(軍廳): 객관 서쪽에 있다. 여수(旅帥)는 1인이다.
- (14) 취산루(醉山樓): 부의 문밖에 있다. 영조 31년(1755)에 부사 이성익이 창건하였다.
- (15) 교아청(校衙廳): 부의 문밖에 있다. 영조 33년(1757)에 부사 임희교가 창건하였다. 행수(行首) 군관 1인, 번군관 40인이다.
- (16) 상정청(詳定廳): 부의 문 밖에 있다. 영조 12년(1736)에 부사 김중희가 창건하였는데 옛 이름은 대동청(大同廳)이었다.



이상의 양양도호부 관아건물의 그림이 양양읍지도(고종 9년, 1872 작자미상)에 비교적 자세히 그려 있고, 관동지, 관동읍지, 그리고 해동지도에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양양도호부는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하며 동·서·남·북 성위의 문루에 누각이 있고, 양양성내에는 170여 간의 관아건물 있었고, 성내에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어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이곳을 지나는 관리나 시인 묵객들이 양양관아에서 머무르며 관아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수백편의 시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양양도호부 복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의 차원에서 양양도호부 관아건물이 복원되어야 한다.
- (2) 도호부 복원을 통해 우리의 아름답고 우수한 문화를 복원하여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 2) 梨花亭

양양은 예부터 배가 유명하다. 그 시원지가 낙산으로, 이곳에 이화정을 짓고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그러나 山寺 가까이 있었던 이화정은 선비들의 풍류의 장소로 변질되어 의도적으로 철폐한 것으로 보인다.

삼천 길 설악산에 뭉게뭉게 구름인데  
구만 길 동해에선 둥그렇게 달이 솟네  
이화정 위의 오늘 가진 이 모임에  
한 가락 아양곡은 고인의 마음이어라

雲垂雪嶽三千丈  
月湧東溟九萬尋  
今日梨花亭上會  
峩洋一曲故人心

했고, 또 읊기를,

동쪽 바다 저 멀리 이화정이 있거니  
술을 들고 오르자 유흥이 절로 난다  
누가 그리 말했던가 낙양의 탐승객이

梨花亭迴海東傍  
杯酒登臨引興長  
誰道洛陽探勝客

한때는 수운향을 너무 좋아했노라고

一時青眼水雲鄉

하고서 나에게 화답을 구했으나 나는 술에 취해 자느라고 화답하지 못하였고 유군만이 화답하였다. 그날 밤 내 잠자리에는 기생들이 곁에 있었다.<sup>26)</sup>

낙산기유(洛山記遊)로 암 노석(岳老釋)에게 주다

설악산 높아높아 창공에 꽂혔으니  
 일만 옥이 다투어 푸른 놀에 솟았구려  
 한줄기 꿈틀거리려 오봉을 지어내니  
 바다 위에 금부용이 우뚝이 빼어났네  
 영도는 암암리에 보타와 어울려라  
 유궁은 예부터 원통이 장엄하이  
 용천팔부들이 법종을 배부니  
 백호(白毫)는 빛을 내쳐 동쪽 바다 비추네  
 금산의 장로는 부처님의 후신이라  
 석장 짚고 여기 와서 이궁을 얻었다네  
 백의의 대사가 진상으로 나타나서  
 마니 구슬 내려주어 묵은 업장(業障) 없앴다오  
 전단이 옥을 바쳐 대가 땅에 솟아나니  
 경각 사이 화궁이 구름 밖에 세워졌네  
 채색 노을 창에 비쳐 벽에 어린 붉은 색깔  
 나는 듯 솟은 누각 뺨뺨이 마주보네  
 일곱 겹의 구슬발이 주전을 가리웠고  
 세 발 달린 금오가 금방으로 날아들어  
 향화에 정근한 지 자그마치 천 년이라  
 장엄한 그 공덕 진실로 끝이 없네  
 어느 해에 임금께서 자해를 순행했나  
 암자마다 연이어 채장을 옮기었네  
 임금께서 만월의 용모를 알아보니

雪嶽之山高插空  
 萬玉爭聳青霞中  
 蜿蜒一脈作五峯  
 海上秀出金芙蓉  
 靈圖暗與寶隋合  
 幽窟自古莊圓通  
 龍天八部設法從  
 白毫光照滄溟東  
 金山丈老佛後身  
 一錫來瞰得異宮  
 白衣大士現真相  
 投下摩尼除宿障  
 旃檀貢玉竹湧地  
 頃刻花宮雲外創  
 彩霞射牖丹寫壁  
 飛樓聳閣森相向  
 七重珠網鎖珠殿  
 三足金烏翥金榜  
 精勤香火一千年  
 功德莊嚴信無量  
 何年清蹕慈海巡  
 岳竇聯翩移彩仗  
 重墩親識滿月容

26) 『白湖全書』

법되는 소리 흘러 공악이 울렸어라  
 새는 꽃비 머금어 천의에 떨어지고  
 용은 향운을 뱉어 어장을 감쌌다오  
 그 향운 그 꽃비가 공중으로 사라지니  
 임금 행차 아득아득 물을 곳 없네그려  
 산문의 성사가 이보다 더할쏜가  
 노승들 이야기 지금도 들려주네  
 내가 온 때 바야흐로 팔월달 맑은 가을  
 죽장에 짚신 신고 숲 속을 걸어가니  
 바다에 부는 천풍 산악을 뒤흔들어  
 바라보니 놀란 파도 불골에 침하하네  
 이화정 가에서 달 뜨기를 기다리니  
 옥바퀴 돌아돌아 하늘로 떠오르네  
 계수나무 그림자 금계를 뒤덮으니  
 일천 바위 변하여 구슬 굴이 되는구만  
 선들선들 마치도 바람탄 열자인 듯  
 황학의 등에 올라 부구를 붙들고자  
 함께 간 풍류승이 티끌 생각 벗어나니  
 총채를 휘두르며 선 이야기 싫지 않아  
 법라의 혀끝으로 인천을 다 흔드니  
 부생이란 주착이 없다는 걸 깨달았네  
 사리가 재촉하여 오경종을 두들기니  
 새벽녘 동쪽 방에 비단발을 걷는구나  
 둘러싼 향기 구름 양곡을 가렸는데  
 고래가 화주 끌고 푸른 하늘 날아가네  
 문을 닫고 향 피우니 일 만 생각 맑아져서  
 부처님 설법하신 미타경을 다 읽었네  
 미진을 건너갈 보벌도 빌렸어라  
 각로에서 다시 또 금승을 찾아가네  
 이 몸은 황홀하게 극락 땅에 와 있는데  
 묘오에 어찌 꼭 명성을 봐야 하나

法雷流音空樂響  
 鳥銜花雨墮天衣  
 龍吐香雲籠御帳  
 香雲花雨入空去  
 縹緲宸遊問無處  
 山門盛事此最雄  
 只今猶聞老僧語  
 我來正值清秋節  
 竹杖芒鞋步林樾  
 天風吹海瀆雲根  
 笑看驚濤侵佛骨  
 梨花亭畔待初月  
 玉輪輾出琉璃滑  
 桂影婆娑遍金界  
 千巖變作瓊瑤窟  
 冷然似馭列子風  
 欲挹浮丘跨黃鶴  
 同遊韻釋出塵想  
 揮摩談禪也不惡  
 人天掉盡法螺舌  
 頓覺浮生無住著  
 闍梨催打五更鍾  
 曉上東房褰綉箔  
 繚繞香雲掩暘谷  
 鯨引火珠渡碧落  
 焚香閉閣萬慮清  
 讀盡佛說彌陀經  
 迷津已借寶筏騰  
 覺路更覓金繩行  
 恍然身在極樂土  
 妙悟何必看明星

내 한평생 발걸음 모두 길을 잃었는데  
 무슨 일로 하늘이 이 구경 막지 않지  
 원컨대 이 몸을 유마에 기탁하여  
 우리 스님 짝을 삼아 부처님께 참여하리  
 언젠간 벼슬 놓고 행각을 머물리니  
 청련의 한 탑자릴 나에게 허해주오<sup>27)</sup>

平生投足總失路  
 何事茲遊天不阻  
 願將身世寄維摩  
 長伴吾師參佛祖  
 投簪他日住行脚  
 一榻容我青蓮宇

절구(絕句)

이설당 가운데 비단 장막 나직한데  
 석양이 막 화란의 서쪽으로 내려가네  
 오는 이 없어 문을 닫아 적적도 한데  
 다만지 산새만이 마음껏 울어대네

梨雪堂中錦幕低  
 夕陽初下畫欄西  
 閑門寂寂無人到  
 只有山禽盡意啼

경함이 십년 만에 선관을 작별하고  
 삼월이라 명주에서 귀밑머리 희끗희끗  
 해당화 다 저러 떠나자도 못 떠나니  
 밤만 되면 꿈은 가서 오봉산을 찾는다오

經函十載別禪關  
 三月溟洲鬢已斑  
 落盡海棠行不得  
 夜來歸夢五峯山

홍농의 재자들은 사화가 풍부하여  
 갠 날 남전에 고운 놀 일었었지  
 종이 서창을 향해 취한 꿈 되새기니  
 이백(李白)의 큰 붓은 단정코 꽃 피우리  
 단양의 시객이 동파를 배웠어라  
 은황을 내리쏟아 세상이 다 자랑하네  
 반산의 두보처럼 바짝 여위려 말고  
 종이 규합 좇아 명하나 지어보소

弘農才子富詞華  
 晴日藍田壁綉霞  
 好向西窓揜醉夢  
 謫仙椽筆定生花  
 丹陽詩客學東坡  
 屈注銀潢世共誇  
 莫似飯山成杜瘦  
 好從閨閣賦明河

일찍부터 개원의 시격(時格)을 공부하여  
 사구 지으면 음갱(陰鏗) 하손(何遜)보다 절묘했지

早向開元着力多  
 發爲詞句妙陰何

27) 『성소부부고』

그 누가 알았으랴 강서사로 타락하여  
큰 바다의 고래를 못 끌어올릴 줄을

誰知晚墮江西社  
未掣鯨魚碧海波

점필재 김공은 두소릉에 가깝건만  
백년이라 구학에 등덩굴만 얽히었네  
유편의 남은 향기 지금도 싱그러워라  
주옥 같은 그 문장 그 누가 계승하리

佔畢金公逼杜陵  
百年丘壑蔓寒藤  
遺篇賸馥今追丐  
玉佩瓊琚嗣未能

손곡은 시를 읊어 머리가 희었어라  
백편의 시 화려함이 수주에 가깝다오  
지금 사람 육안으로 아무리 비웃지만  
만고에 흐르는 저 강하를 어찌 폐하랴

蓀谷吟詩到白頭  
百篇穠麗近隨州  
今人肉眼雖嗤點  
豈廢江河萬古流

비로가 북으로 가 양양을 배알하니  
말 달림 도리어 술취한 갈강 갈네  
응당 이화정 달을 구경하면서  
한바다를 웅달샘처럼 바라보며 잔을 들리<sup>28)</sup>

毗盧北去謁襄陽  
馳馬還同醉葛疆  
應踏梨花亭畔月  
杯看碧海倒瓊腸

양양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시인묵객들이 낙산사의 의상대보다 이화정을 찾아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했던 역사적 장소로 존중하여 복원되어야 한다.

### 3. 地理的 背景

양양은 우수한 문화와 함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명의 삶을 살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택리지 강원도 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저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 地理(땅의 생김새와 형편)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生理(생활하는 도리, 두보-生理何顔面 憂瑞且歲時), 人心(백성의 마음), 山水(산과 물)를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28) 『성소부부고』

없어도 살기 좋은 고을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하면 오래 살 곳이 못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좋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다 해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아름다운 산수가 없으면 맑은 정서를 기를 수 없다. (擇里志 大抵卜居之地 地理爲上 生理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理乏不能久居 地理雖好 地理惡則亦不能久居 地理及生理俱好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

집터는 산소자리와 달라서 물이 있어야 재산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는 부유한 집과 명촌과 번성하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여 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살터가 된다. (擇里志 然陽基異於陰宅 水管財祿故積水之濱 多富厚之家 名村盛塢 雖山中亦有溪間聚會 方爲世代久遠之居)

여러 산이 있고, 산과 바다 사이에는 奇勝地가 많고 골짜기 동네는 그윽하고 깊고 물과 돌이 깨끗하여 혹은 仙靈의 異蹟이라 전한다. 지역의 주민들은 자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여 동네 노인들은 기꺼이 기악과 술과 고기를 가지고 산이나 물가에 가서 마음껏 놀았다. 이것으로 큰일을 삼기 때문에 자제들이 이에 감화되어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이 적었다(山海之間 多奇勝地 洞府幽深 水石清潔 或傳仙靈異蹟 士人重游衍 其父老 喜載妓樂酒肉 跌宕於湖山之間 以此爲大事子弟化之少治文學)

사람의 성품은 지세와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양양은 한반도의 중심부분에 위치하며 장엄한 설악산의 정기와 호탕하고 정열적인 동해를 접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우수한 문화와 함께 풍요로움으로 인해 여유로운 삶을 살아 왔다.

오늘날 전통축제는 제의에서 시작하여 제의로 마무리 하지만 신성성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축제는 대부분 전통적인 향토축제인 향토축제의 성격을 지닌다. 축제의 다른 말은 잔치이다. 잔치는 사람을 만나고 즐겁게 축하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면 노는 행위이다. 이 축제는 특별한 의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이것이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흥과 연희가 일탈로 변이 되었다.

원래 축제는 신성한 행위이다. 축제의 시작은 신을 모시고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즐기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다시 삶의 힘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날 세속화 되면서 지역경제와 연결된다. 현대 축제에서 신성성은 약화되었지만 축제의 중심은 전통적인 신성성이다.

양양은 동예의 후손으로 집단적인 생활의식을 알 수 있고, 가무와 유희의 제천행사로 문화 예술을 즐기면서 살았다. 勝地를 찾아 술과 놀이를 즐긴 풍속은 천성이 순박하고 낙천적인 성품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유희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 유희의 본성이 정제되어 예술로 승화되어 축제이다. 그러므로 축제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일상과 생산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희를 통하여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한다.

陳壽(233-297)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예의 남쪽으로 진한이 있고,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 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라고 전하고 있다. 濊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성질은 조심스럽고 진실하며 욕심이 적고 염치가 있어 남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는데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읍락을 서로 침범하면 벌로서 生口(노비)와 牛馬를 부과하는데 이를 責禍라 한다.

이상의 기록으로 濊가 씨족공동체 생활양식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양양은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와 평야를 남대천이 흐르면서 풍부한 음식과 기후가 온화하여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문화가 어느 지역보다 먼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오산리와 도화리에서 삶이 시작되었다.

기후가 온화하여 일찍부터 인간의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시베리아와 연해주로 이어지는 동해안의 신석기문화보다 앞서 형성되었다. 함경북도 옹기군 굴포리와 부산 공삼동 일대의 선사시대 문화를 형성하였다. B.C 6000년경의 오산리 선사유적이 신석기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영동지방민속은 매년 3,4,5월 중 날을 잡아 무당을 맞이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부자는 신고 가난한 자는 지고 장소를 마련하여 차려 놓고 북과 피리로서 흥을 돋구고 3일 동안 취흥을 즐긴 후에 집으로 돌아간다.

南孝溫 『秋江冷話』

또한 교산(蛟山) 허균(許筠)은 낙산사를 자주 찾았다. 석주에게 보낸 서찰<sup>29)</sup>에 의하면 “옛 부임지인 낙산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덮어 주었고, 태수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베풀어주니 호연히 안석의 동산에 노닐던 흥이 있었습니다.”고 하였다. 이 서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직되어 산수를 유람하던 허균에게 양양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리와 여유 있고 아름다운 풍습을 알 수 있다.

양양인은 장엄한 산과 바다를 통해 경외심을 갖게 되어 다양한 민속신앙이 존재 한다. 이 신앙의 특징은 독자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풍요와 열정적인 힘을 배웠고, 산의 장엄함, 호수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배웠다. 그리고 농경생활을 통해 기다림의 인내심과 진실한 삶의 세계를 배우면 다양한 신앙과 연희를 볼 수 있다.

29) 『惺所覆復藁』卷之九 文部六, 書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풍요롭게 살았던 양양은 불교의 발상지로 미적인 작품들이 전해오고 있다. 양양은 풍수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삶의 터전을 잡고 생활해 왔다. 고대사회부터 일정한 지역의 交界(경계)와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禁標는 산과 강, 그리고 들과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이나 계곡이 중요한 경계였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交界와 금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양양은 고대사회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하여 신성시하였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양양금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금표- 洛山寺禁標, 東海神祠禁標
- 2)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黃腸禁標-釜淵禁山, 剪林禁山
- 3) 사냥을 위한 구역의 금표- 洛山寺禁標<sup>30)</sup>
- 4) 왕실의 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태봉금표- 下福里 胎封禁標
- 5) 어렵금지의 禁標- 洛山寺禁標<sup>31)</sup>

강원도 일대<sup>32)</sup>에서 발견되고 있는 禁標는 조선시대 중요한 경계와 표지로, 주로 산림과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황장목은 강원도 일대와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의 의하면 법전에 의거하여 황장금표를 立標하였다. 이 금표를 통해 국가정책과 생활사, 그리고 산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 양양의 금표는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江原道誌』 卷3, 土産, 三陟條에 의하면, 橋谷山黃腸 新羅朝採伐黃腸木云라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강원도일대에서 황장목을 伐採하여 경주까지 운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葬禮에 관한 禮를 존중하는 민족으로, 최고로 인식하였던 사회상으로 인해 문헌과 실록에 황장목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의 장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양양의 금표는 소나무 보호뿐만 아니라 사냥이나 어로, 그리고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신성시하였던 낙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양양을 궁중불교의 도량과 동해신을 모셨던 신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 성종 9년 집의 김춘경이 낙산사에서 경작과 사냥금지의 폐단을 상소하다.

31) 성종 9년 절을 위해 금표를 세우고 고기 잡는 것은 금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 강원도민일보, 2014.12.03.

산림청이 '인제 한계 황장목표와 황장목림'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한계 황장목표는 조선 중기 무렵 한계리 일대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표석으로 '황장금산 자서고 한계 지동계이십리(黃腸禁山 自自古寒溪 至東界二十里)'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 옛 한계부터 동쪽 경계는 이십리까지'라는 뜻이다. 강원도내에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 외에 영월군 수주면 두산 2리·법흥 1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황장목표가 각각 발견됐다. 황장목은 나무 중심부에 누런 황심을 가진 소나무로 조선시대 임금과 사대부의 관재나 궁궐, 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됐으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던 수종으로 한계리 임야 245ha가 이번에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양양의 산림이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황장목표의 조사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국방의 중요한 지역으로 중시하였다. 고려 목종 10년(1007) 10월에 348간의 성(城)을 축조하고 성문 4개를 설치하였다.<sup>33)</sup>

기록<sup>34)</sup>과 구전에 의하면 양주성 축성을 계기로 성내(城內)에서 성황신을 봉안하여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신 전통이 그대로 복원되어 지금의 양양문화제로 이어오고 있다.

양양군지(2010)에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목종 10년(1007)에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하고 매년 침입해 오는 외적들과 향전을 계속하면서 향토를 수호하고 이 후 양주성을 동서남북에 4대문을 내고 성내에 성황사를 짓고 춘추로 치제를 하였으며 선조 25년(1592) 이후 매년 5월 5일 제의 뿐만 아니라 성황굿을 성대하게 하였다. ...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장군성황제가 열렸는데 15시경 고치물제부터 시작하여 장군성황당에서는 양양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성황제를 지낸다.

#### 4. 歷史的 背景

양양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고구려에 속하였지만 후기에는 신라에 속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제 6대 태조 4년(56)7월 함남지방의 동옥저를 정벌하고 동으로 창해로 진출하였다. 19대 광개토대왕 18년(409) 동해안을 고구려 영토에 편입하였다. 제20대 장수왕 42년(454)에는 신라의 북방을 정벌하였다. 장수왕 56년(468) 2월 말갈군사 2 만 명으로 신라의 悉直州城(삼척)을 공격하여 삼척 이북의 모든 땅은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제21대 文咨王 5년(496) 신라의 牛山城(靑陽)을 공격하자 신라는 군사를 보내어 泥河(강릉)상류를 공격하였다. 泥河는 양양 남대천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양양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으로 분쟁이 계속되었다.

신라 제5대 婆娑尼師今 23년(102) 삼척지방에 있던 실직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신라에 편입하였다. 제6대 祗摩尼師今 14년(125) 고구려의 침입으로 泥河 남쪽까지 퇴각하였다. 제6대 祗摩尼師今 11년 하슬라 사람 15세 이상을 징집하여 泥河에서 성을 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영토였던 양양을 신라가 자주 침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니하는 양양의 남대천으로 양양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격전지였다. 제21대 炤知麻立干 때 신라가 고성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21대 炤知麻立干 3년(481) 2월 北列城(安邊)에 행차하여 군사를 위문하고 군복을 하사하였다. 제22대 智證麻立干 6년(505) 悉直州에 異斯夫를 군주로 삼았다. 이때 비로소 동해안의 삼척지역은 확실한 신라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智證麻立干 13년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하였다.

33) 『고려사』 권82 표36 병2 성보조

34) 『고려사』 『고려사절요』

양양을 고구려에서는 翼峴縣 또는 伊文縣이라고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수성군에 속해 고 翼嶺縣이었다. 익령현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의 성지로 화랑들의 순례지였다. 낙산사 등에서 범일, 의상, 원효, 도의 등 고승들이 불교도량에 佛法에 정진하였다. 실록과 많은 문헌에 의하면 낙산사에 대해 특혜<sup>35)</sup>를 주었다.

조선 왕조 (1392년 창건)를 보면, 우리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의 외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翼祖께서 貞淑王后와 함께 여기에 와서 후사를 점지하도록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가사를 걸친 중이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善來이다.” 하였다. 얼마를 지나서 도조가 태어나니 선래라 이름 하였다.<sup>36)</sup>

태조 6년(1397) 1월에 양주를 임금의 외친 본관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켜 양주부라고 하였다.

태종 13년(1413) 예에 따라 양주부를 왕조의 외친이라 하여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다.

태종 16년(1416) 양주를 양양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히 관리해 왔습니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였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고 자신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태조실록권일, 충서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인 이선래를 낳다. 즉, 낙산사 관음굴은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의 후사를 점지한 기도처로 해마다 강향사를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홍예문을 축성하였다. 이때부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와 부인이 여기서 빌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빌이 굴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종실록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35) 과정록

아버지는 신유년(1801,65세)봄에 벼슬을 그만두고 상경하였다. 양양 天吼山(울산바위) 아래에 신흥사가 있었으니 강원도의 큰 사찰이었다. 그 절 昌悟와 巨寬이라는 중이 서울 근교의 山寺에 출입하면서 宮廳(각 궁궐에 속한 서리이하의 노복)과 結탁하여 內需司(궁중에서 쓰는 쌀, 배, 잡물과 노비 등 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청)의 公文이나 宮家(대군, 왕자군, 공주, 왕후 등)의 명함을 얻어내어 그럴듯한 말을 꾸며 사람들을 현혹했으며 관리를 욕박지르고 능멸하였다. 그리하여 선대 임금님의 글이라느니 願堂에 봉안 한다느니 큰 소리를 쳤으며 심지어 관속을 구타하고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분개하여 말씀하셨다. ‘행패가 이런 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는 나라에 법이 없는 게 된다.’ 마침내 감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올리셨다. 그러나 감사는 꺼리는 바가 있어 눈치를 보며 얼버무리기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탄식 하였다. ‘궁속과 중들에게 제압되는 고을 원이 아전들과 백성들을 어찌 다스린단 말인가.’ 이에 아버지는 상경하여 병을 핑계로 사임하셨다.

### 36) 『新增東國輿地勝覽』

이처럼 양양이라는 지명은 조선조 태조 6년(1397) 정축에 外親<sup>37)</sup>이라 하여 부로 승격하고 태종 13년(1413) 계사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1416) 병신에 양양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이나 다른 많은 문헌에서 태종 16년(1416)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미 양양이라는 명칭이 문헌에 나타난다. 근재집에 의하면 충숙왕 17년(1330) 안축(安軸, 1287-1348)이 강릉도 존무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읊은 관동별곡에 양양의 지명이 나온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이상적인 인간은 화랑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으로 그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상형인 화랑으로,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전통이 이어진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울리는 교육방법이 있었다.

1) 相磨以道義 2) 相娛以歌舞, 3) 遊娛山水의 道를 중시하였고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벗하였다. 화랑들의 교육방법은 첫째가 상마도의이다. 道와 義를 연마하였다. 둘째가 상열가락 이다. 가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훈련이다. 셋째가 유오산수 이다. 名山大天을 다니면서 천지기운을 받는 수련이다.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인물은 화랑이었다.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이어진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전통으로, 전통은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 양양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화랑의 순례지가 양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화랑도의 삶과 이념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가무로 풍류를 즐기면서 서로 긴밀해졌고 산수에 노닐며 자연승배도 함께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며 강릉대도호부에 수록된 한송정, 경포대 가문과 이것을 읊은 시인묵객들의 시가 전해지고, 조선조 초기까지 화랑의 유물과 자취가 잘 보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돌절구, 돌샘, 돌

37) 조선조 태조실록권 1에 의하면 翼祖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와 함께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였더니 밤에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善來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얼마 안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宜州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善來라고 했으니 이분이 度祖이다. 관음굴은 지금도 양양부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낙산사 관음굴은 이태조의 조부인 度祖의 후사를 점지한 기도처로 이태조는 해마다 강항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홍예문을 축성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권11 6년(1397) 1월 24일(정축) 강원도 양주를 승격하고 부모 만들었으니 이는 임금의 외친 본관이기 때문이다. 태조의 증조부인 익조가 비 정숙왕후가 여기서 아기를 빌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빌이 굴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임금의 외친이라는 말은 도조의 첫 번째부인이 간성의 박씨 朴得賢의 딸이기 때문이다.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왕실에서는 그 보답으로 낙산사를 중창하고 봄가을 제를 올렸다. 특히 세조는 낙산사에서 정성을 다 하였다. 태종실록 권10 5년(1405)11월 21일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자 왕이 이에 따랐으나 낙산사는 제외하였다. 태종실록 권32 16년(1416)8월 10일 군현의 칭호를 고치었다. 이조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칭하니 이에 襄州를 襄陽 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권208 18년(1487) 10월 5일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의 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산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궁이 등은 화랑이 차를 마시던 기구로 화랑도의 수련도량으로 강릉이 중요한 순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교육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최초의 화랑인 설원량의 기념비가 명주에 세워졌다는 의미 있는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수련장소를 '風月之庭'이라고 불렀지만 구체적으로 강원도 해변의 山水名勝地일대 이다. 王都, 경주 南山<sup>38)</sup>, 그리고 관동의 명승지로 총석정, 삼일포, 영랑호, 文珠寺, 三和寺, 鏡浦臺, 飽石亭, 五臺山 등이다.<sup>39)</sup>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성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수련 장소는 동해안 바닷가의 명승지, 호수, 정자, 사찰 등으로 귀족 출신의 화랑들은 그의 郎徒들과 함께 했다. 그들은 예의와 도덕 그리고 名山大川을 순례하며 풍류를 즐기며 멋을 누렸다. 그러므로 화랑을 風流道, 風月徒, 香徒, 國仙徒 또는 神仙, 國仙이라고도 하였다. 이곡의 「東遊記」에 의하면, 그가 通川 庫底에 있는 총석정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로 영랑, 술랑 등 四仙童이 그 徒衆 3000人과 함께 海上에서 놀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東遊記」나 『東國輿地勝覽』 44~47의 의하면 영랑 등 사선이 유오한 자취는 영동해안지방으로 집중되어 있다.

삼일포 丹書六字의 마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옛날 고을 사람 중에 유람하는 사람은 접대하기 괴로워하여 丹書를 쪼아 버릴 때, 깊이가 5寸 쯤에 이르러도 자획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두자가 분명하니 못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고을 사람 중에 遊覽者가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한송정의 집을 털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람자가 많고, 의도적으로 화랑의 유적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화랑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강릉을 찾은 것은 강릉이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이상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한다.

「東遊記」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화랑도의 동해안 遊娛地 순례기에 의하면 강원도 通川의 叢石亭과 四仙亭, 金蘭窟, 高城의 三一浦, 石龕, 四仙亭, 杆城의 永郎湖, 江陵의 鏡浦臺와 寒松亭, 平海의 越松亭 등이 四仙의 유오지였다.

임영의 경포대는 신라의 永郎仙人이 놀던 곳인데 내가 이 대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즐거워 지금까지도 간절히 생각나고 잊혀 지지 않습니다.<sup>40)</sup>

四仙이 지었다는 〈寒松亭曲〉이 『고려사』 樂志에 수록되어 이다.<sup>41)</sup> 세상에 전해오는 말이 이 곡조를 琵琶바닥에 써 둔 것이 물결을 타고 강남지방(중국)으로 떠밀려 갔으나 강남인들이 그 글의 뜻을 몰랐다.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 사람인 張晉公이 강남으로 사신으로 갔더니 그에게 가사의 뜻을 묻자 진공이 시를 지어 노래의 뜻을 풀이하였다.

38) 三品彰英, 「신라화랑 연구」, 『조선고대연구』 제1부, 동경, 三肖堂, 1943).

39) 유창선, 「신라의 화랑제도의 연구」(신동아, 1935) pp.5~13.

40) 『東文選』 제 68권, 李詹의 「江陵府鏡浦臺記」.

논자들이 말하기를 師의 조직은 비록 교묘하나 前篇의 天趣의 자연스러움만 같지 못하다고 했다.<sup>42)</sup>

亭依松麓斷	정자가 소나무 산기슭에 의지했는데
東望海無門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는 끝없다
境靜仙蹤在	지경이 고요하니 신선자취 있고,
沙明鳥篆存	모래 밝은데 새발자국 남았네
碑心苔藁綠	비석은 이끼 무늬 푸르고
石面兩痕昏	돌에는 비 맞은 자국 어둡네
一榭泉無渴	한웅큼치는 샘 마르지 않으니
源乎天地根	천지의 뿌리에서 솟아 나오네 <sup>43)</sup>

古仙浪遊處	옛 선인이 유랑하던 곳에
爭慕客墳門	다투어 사모하여 객이 문간을 메우네
鍊藥人何去	약을 만들던 사람은 어디로 갔나
煎茶竈獨存	차달이던 이궁이만 홀로 남았네
壺中閑日月	항아리속 일월이 한가로운데
世上郎晨昏	세상일은 아침저녁 동안이어라
回首尋遺迹	머리돌려 유적을 찾으니
唯松自託根	오직 소나무만이 절로 뿌리 박았네 <sup>44)</sup>

白沙汀

雪積廻灣淨	회만에 눈이 쌓여 조출한데
瓊鋪闊岸紆	넓은 독 구불구불 구름 깔렸네
銀河通玉府	은하수는 옥부를 통해 흐르고
瑤海湛冰壺	요해는 빙호 하냥 맑기로 하이
履迹行疑陷	신발자국 다니면 빠질까 싶고

41) 『素昂先生文集』上, 四仙老 趙素昂은 이 노래가 사선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42) 李仁老, 『破閑集』

43) 『新增東國輿地勝覽』권57.

44) 『新增東國輿地勝覽』권44.

松梢看似無	솔가지는 보아도 없는 것 같아
長歌答明月	긴노래로 밝은 달에 대답을 하니
吾是迹郎徒	나는 바로 술랑의 무리로세 <sup>45)</sup>

(남곤의 白沙汀記에 阿郎浦는 곧 옛적 화랑이 놀던 곳이다. 그래서 아랑포가 된다)

화랑도는 도의로써 연마하기 위해 山川을 순례하며 가악으로 서로 즐기면서 노닐었다. 화랑도는 풍류를 중시했고, 그 풍류는 화랑의 중심사상이었다.

어느 종교나 자연 순례를 중시하였다. 이 자연과 순례를 통해 신과 인간과의 조화가 일치하고 싶었던 의식 반영이다. 이 의식을 춤과 노래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류로 먼 곳까지 서로 순례하면서 낭도들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조화로운 삶과 멋은 후대 선비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意專尋勝景	오로지 좋은 경치만 보려고
早出古城門	옛 성문을 일찍 나섰네
仙去松亭在	선인은 가도 송정은 그대로이고
山藏石窈存	산에는 돌아궁이 묻혀 있네
人情有古今	인정은 옛날과 지금이 달라도
物像白朝昏	경치는 아침저녁 아름답다.
不是會來此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聞言謂不根	말만 듣고 근거 없다 했겠네.

- 李 穀 -

산수의 경치가 좋은 곳은 마땅히 강원도 영동지방이 제일이다...다음 간성의 화담은 달이 맑은 샘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영랑호는 큰 못에 구슬을 감춘 것과 같고 양양의 청초호는 그림경대의 거울을 연 것과 같다. 이 세 호수의 기이한 경치는 위의 세 호수에 다음 간다. 우리나라의 팔도에 모두 호수가 없으나 오직 영동의 여섯 호수는 인간이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삼일포의 호수 가운데 四仙亭이 있다. 곧 신라의 영랑, 술랑, 남석행, 안상의 화랑이 놀던 곳이다. 네 사람이 벗이 되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수 간에 노닐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도를 얻어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호수의 남쪽 돌 벽에 붉은 글씨가 있다. 즉, 네 선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붉은 흔적이 벽에 물들어서 천 여 년이 지났으나 바람과 비에 씻겨 나가지 않았으니 또한

45) 『惺所覆菴』 卷1.

이상하다.<sup>46)</sup>

신라 때의 사선은 곧 술량, 남량, 영량, 안상이다. 함께 고성에서 놀다가 삼 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을 삼일포라고 한다. 남량은 丹書에 소위 “남석행”이 그것이다. 이것을 선이라고 한 것은 대체로 그 때에 화랑들이 국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한 것이지 정말 신선은 아니다.<sup>47)</sup>

세월이 지나 태정 병인년(1326)에 지금 전법사의 학사로 있는 박 숙이 관동의 안무사로 있다가 돌아와 나에게 말하기를 “강릉의 경포대는 신라 때 영량이라는 선선이 놀았던 곳이다”고 하였다.<sup>48)</sup>

옛날에 영량이 이 언덕에서 놀았는데 반드시 즐기는 것이 있었다. 이제 박공이 즐기는 바는 바로 영량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박공이 고을 사람들에게 정자를 짓도록 명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량이 이 언덕에서 놀았으나 정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고 하였다.<sup>49)</sup>

안축의 기문에 임영 경포대는 신라시대 영량 선인들의 놀던 곳이다. 내가 이 대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참으로 즐거워하였고, 지금에도 남아 잇을 수 없다. 누대에 정자가 없어서 풍우를 만나면 유람하는 자가 괴로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고을 사람에게 명하여 대 뒤에 정자를 지으니 그 대는 나를 위하여 기문을 지으라 하였다. ... 옛적에 영량이 이대에 놀았으니 좋아하는 것도 영량의 마음과 같은 것인가. 약공이 고을사람에게 이 정자를 짓도록 명하자 고을사람들이 다 영량의 이대에 놀았으나 정자가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천년이나 지난 뒤에 정자를 지어서 무슨 소용이라고 하고 마침내 풍수가의 꺼리는 말로써 씌하였다. 그러나 공은 듣지 아니하고 역군을 독촉하여 흙을 깎다가 정자엿터를 발견하였다. 주추와 섬돌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고을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감히 탄 말이 없었다. 정자 터가 이미 오래되어 까마득하고 묻혀 지기까지 하여 고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발견되었으니 이 일을 보면 영량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46) 『擇里志』 권4, 山水, 山水勝地

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爲第一...次則杆城花潭, 如月墮清泉, 永郎湖, 如珠藏大潭, 襄陽青草湖, 如鏡開畫, 此三湖奇勝, 亞於上三湖. 我國八道, 俱無湖水, 惟嶺東六湖, 殆非人世間所有 然三一浦, 則湖中心, 有西仙亭, 卽新羅永郎, 述郎, 南石行, 安祥(詳)所遊處, 四人結爲友不仕, 遊山水間, 世傳得道仙去. 湖之南石壁, 有丹書, 卽西仙題名, 丹痕清壁, 風雨不, 千有餘年, 亦可訝也.

47) 『芝峰類設』(下)卷18, 外道部, 仙道

新羅時 四仙卽述郎南郎永郎安詳同 遊高城三日不返 故名其地曰三日浦 南浪疑丹書 所謂南石行是也 謂之仙者 蓋其時謂郎徒 爲國仙故云非眞仙也.

48) 『謹齋全集』, 鏡浦新亭記, 謹齋思想研究會, 1994

越泰定丙寅 今知秋部學士朴公淑 自關東杖節而還謂余曰 臨瀛鏡浦臺 羅代永郎仙人所遊也

49) 『謹齋全集』, 鏡浦新亭記, 謹齋思想研究會, 1994

昔永郎之遊是臺也 必有所樂焉 今朴公所樂者 其得永郎之心歟 朴公命邑人 構是亭 邑人咸曰 永郎遊是臺而未聞有亭字

내가 전에 악공의 말을 듣고서 그 단서를 알고 지금이 대에 올라 그 자세한 것을 상고하여서 정자위에 쓰노라.<sup>50)</sup>

부사 趙云佐이 안렴사 朴惠肅에게 경포대에는 ‘옛 선인의 유적이 있고, 산꼭대기에는 차 달이던 아궁이 있고, 또 여기서 수십 리 거리에 한송정이 있고, 정자에 또 四仙의 비석이 있으며 지금도 신선 무리가 그 사이에 오가는데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에 간혹 본 사람도 있네’ 하였다.<sup>51)</sup>

丹穴이 군 남쪽 십리 되는 곳에 있고 通川에는 四仙峰이 있는데 모두 사선이 놀던 곳이다. 간성에 仙遊潭과 永郎湖가 있고 금강산에 영랑봉이 있는데, 영랑 등 신선들이 그 땅에서 놀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또 張淵에 阿郎浦가 있고 강릉에 한송정이 있고 정자 밑에 茶泉과 돌솥, 돌절구가 있는데 다 사선이 놀던 곳이다.<sup>52)</sup>

화랑의 고장인 영동지방은 한국문화의 근원이다. 영동지역은 멋과 풍류의 고을이고,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통적인 고장으로 우리에게 멋의 풍류를 느끼게 하고 있다.

화랑제도는 신라의 촌락공동체 사회에서 형성되었고, 외래사상인 유, 불, 도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화랑의 정신적 세계는 확장되었다. 화랑의 수련 중에 국토를 순례하고 자연을 숭배하며 국토사랑을 체험하였다.

화랑의 교육방법에서 풍류와 가악을 중시한 것은 이 가악이 단순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이며 교육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화랑의 교육이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양에는 낙산사와 화랑 원일 살았다는 원일전에 자취가 남아있다.

화랑정신은 풍류정신으로, 풍류는 우리 민족이 중시하는 단아한 멋의 표출로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영동지방 중에서 양양은 화랑의 수련 장소였다는 사실에서 풍류와 멋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 5. 結論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중요한 것은 문화전통으로, 전통은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 양양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양양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전해오고 있다. 현대나 미래시대는 이야기의 시대이다.

50) 『東文選』 제68권.

51) 『東人詩話』

52) 『新增東國輿地勝覽』



문제는 이 무한한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담론들은 생활 속에서 애정을 갖게 되고 상상력은 미래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게 된다. 우수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라져가는 문화도 복원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가 양양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양양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으면 좋겠다.

# 양양동해신묘지

## (襄陽東海神廟址)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규환

### ● 동해신묘(東海神廟)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번지 외 1필에 위치하며 2000년 1월 22일 강원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동해신(東海神)을 모신 사당(祠堂)이며 매년 나라에서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정초에는 별제(別祭), 2월과 8월에는 상제(常祭)로 관찰사(도지사)가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豐農豐漁)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곳이며, 그 외 기우제와 기청제도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 건립년대(建立年代)

동해신묘를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사』를 참조하면 고려 성종 10년(991)~현종 19년(1028)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려사』 제58권 동계편 익령현에는 “양양에 동해신사가 있다. [원종원년 승지양주사 별호 양산 유동해신사(元宗元年 陞知襄州事別號襄山 有東海神祠)]”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의 도읍(都邑)지인 개성(開城)으로부터 정동(正東)인 양양에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동해신묘의 제향의식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 그린 동해신묘의 찬실도(攢室圖: 제사 차리는 방법을 그린 그림)를 보면 “동해는 양양,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으로 정하고 치제(致祭: 제사를 지내는 일)를 관에서 주관하였다”

고 하며, 조선의 제전(祭典: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등급을 정하였다. 세종 19년(1437) 3월 기사에 “나라에서 행하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祠廟:신주를 모셔 두고 제사 지내는 건물)의 위판(位版)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쓴다. 동해는 강원도 양주(襄州:양양)동쪽에 있다.”라고 했다.

제사재계(祭祀齋戒)는 제사 전 5일에 집사관은 3일 동안 산재(散齋:심신을 정결히 함)하는데 정침(正寢:제사지내는 몸체의 방)에서 유숙하고, 2일 간 치재(致齋:심신을 정결히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 함)하는데, 1일은 마루에서 1일은 제실에서 지낸다. 무릇 삼갈 적에는 평소처럼 일을 보되 금기사항(禁忌事項)은 다음과 같다.

-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 문상과 병문안 하지 말 것.
- 파·부추·마늘·염교(돼지 파)를 먹지 말 것.
-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 등 말 것.

치재를 할 때에는 오직 제향일만 행하는데, 이미 재계해 놓고 그르친 사람이 있으면 대리로 교체한다.

## ● 동해신묘의 잘못된 이전 설

태조 3년(1394)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치고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천도함에 따라 방위가 달라졌다.

세조 2년(1456)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시무책(時務策)을 제시 할 때 동해신을 강릉에,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순천에, 북해는 갑산에 이제(移祭)하고 일대의 사전(祀典:제사지내는 예의에 관한 법도)을 새롭게 할 것을 상소하니 임금이 듣고만 있었다.

그 후 4해(四海)중 어느 신사(神祠)도 이전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강릉시청의 인터넷 공식홈페이지인 “디지털강릉문화대전” 등의 동해신묘 이전 설 내용을 보면, “동해신묘는 당초 강릉도호부 정동진(正東津)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선 성종(成宗) 21년(1490)에 강릉대도호부 안인진에 주둔하였던 수군만호영이 양양도호부 대포진(조산)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 연유를 살펴보면 1968년 양양교육청 발간 「향토지」와 1976년 양양문화원 발간 「향토지」에 “묘(廟)가

본래는 강릉에 있었는데 성종 21년 경술(1490)에 수군만호영을 강릉으로부터 대포성(양양읍 조산리)에 이전할 때에 같이 이전하였다는 설이 전파한 것이 아닌 가 본다.”라고 잘못 추정 하였을 뿐이다. 그 외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甌藁)」중 ‘중수동해용왕비문(重修東海龍王碑文)’ 등을 각각 인용하여 마치 동해신묘가 강릉에서 양양으로 이전한 것으로 강릉원주대학교의 모교수가 주장하였는데 이를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유는 동해신묘가 고려 개경의 정동인 양양에서 한양의 정동인 강릉으로 옮겨졌다면 서해신단은 풍천에서 인천으로, 남해신사는 나주에서 순천으로 함께 옮겨졌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한양의 정동인 강릉의 동해신묘를 정동이 아닌 양양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당시 강릉은 대도호부로 동해신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야 함에도 한 건도 주장할 수 있는 전거(典據)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왜곡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잘못 알려진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 ● 동해신묘의 시설규모와 훼손

동해신묘는 남한 유일의 중수기사비가 남아있는 사적지이다.

『관동읍지』 양양부 단묘편과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군 단묘(壇廟) 편에 의하면 동해신묘의 시설규모는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당시 양양군수 최종락이 강제 훼손 하였다고 하는데 구전에 의하면 훼손 후 3일 만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 후 80여 년이 지난 1993년 양양군의 자체예산으로 정전 1동만을 복원하였고, 두 동강 나 버려진 동해신묘중수기사비도 수습(收拾)하여 시멘트로 접합 현 위치에 복원해 놓았다.

## ● 동해신묘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문제점〉

동해신묘는 관찰사가 별제와 상제로 제향한 곳인데 유림(儒林)은 동해광덕용왕신(東海廣德龍王神)을 모시고 매년 새해맞이 동해용왕(東海龍王) 제향(祭享)을 매년봉행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며, 그 외 미흡한 사항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보완하지 않고 있다.

## 〈개선사항〉

동해신의 위패만 모시고 상설은 모두 철거해야 함.

전통제례로 회복하되 절충의식으로 보완 봉행 필요.

동해신묘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원형 복원해야 함.

동해신묘 뒷길은 폐쇄하고 내삼문과 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현재 동해묘(東海廟) 편액을 동해신묘(東海神廟)로 교체해야 함.

# 양양의 문화유적 진전사(陣田寺)와 삼층석탑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진전사



삼층석탑



부도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5번지 (물치에서 서쪽 7km)

▶문화재 : 강원도 기념물 52호, 국보 제 122호, 보물 제 39호

## 1. 조계종의 宗刹 陣田寺(종찰 진전사)

우리나라 선종(조계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신라 헌덕왕 13년(821년)에 주석한 사찰이다.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의 개산조인 도의선사가 82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은거했던 곳으로 그 뒤를 이어 염거화상, 보조국사와 같은 고승들이 이어갔고 선종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찰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가 구족계를 받은 사찰이다.(고려 21대 희종 2년(1206년 6월생으로 9세때 무량사에 입문, 공부하였고 14세때 진전사로 옮)

도의선사의 선법과 사상은 중국 당나라에서 西堂(서당)에게서 37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경주일원

에는 敎學(교학)사상이 크게 융성하였으므로 경주를 떠나 설악산 아래 진전사로 오신 것이라 한다. 도의 선사의 법통은 선종의 2대조인 역성사의 염거화상에게 전하고 염거화상은, 3대조는 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의 보조선사(체징)에게 전수되어 선종의 법통을 이어갔다. 도의 선사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였던 8세기는 진전사는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고려 때는 선종의 대 도장 가지산문의 근본도장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조 12년(1467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 폐사되어 일제 강점기에 屯田寺(둔전사)로 불리다가 진전(陳田)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면서 陳田寺라는 것이 밝혀졌다.

1965년 3월 단국대학교 정영호 박사팀이 일대를 답사하고 석탑, 부도 등을 발굴 조사하여 학계에 보고 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기우러져 가는 석탑을 해체 하여 바로세우고 흩어져 있던 부도 파편들을 모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11월 3일 국가 문화재로, 3층석탑은 국보 122호로 석조부도는 439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부도탑이 있는 상부 영역을 전면 발굴하여 원형대로 남향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법당을 복원하였다.

진전사의 위치는 동쪽을 바라보며 멀리 동해가 굽어보이는 眺望(조망)이 절터 앞을 흐르는 계류와 잘 어울려 마치 경주 동해안의 감은사터를 연상케 한다.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첫 전법자가 道義(도의)이다. 그는 선덕왕 5년(784)에 당으로 가서 마조, 도일의 고제자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못하고 오히려 魔說(마설)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염거에게 전하니 염거는 체징(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2. 三層石塔(국보 122호)

3층 석탑은 신라식 일반형식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석까지 있고 그 이상은 결실되었다. 2층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9세기 통일 신라시대의 석탑으로 1966년 2월 28일 국보 제 12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5m의 화강암 3층 석탑은 8장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후 2층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은 낮게 구성하였으며 양쪽에 우주와 중앙에 탕주를 1개로 입면을 구성하고 그 사이 면석에 연꽃 무늬 받침 위에 앉아있는 비천상 2구씩 새겼다.

면석에는 구름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 2구씩을 새겼는데 면석의 조각 수법과 하층에 비해 높은 입면을 구성한 전체적인 비례는 9세기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연화자 상에 안좌하고 2중의 원형 단신은 구비하였으며 면천의를 날고 있었는데 수인은 합장을 하거나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이한 형태이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고 사우는 유실되었는데 노반에는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있어 정확한 높이는 알수 없는 상태다. 낙수홈을 음각하여 세밀한 의장을 보이고 있다.



〈층석탑 모형〉

탑의 높이: 5m.

下基面高(하기면고) : 32.5cm      下基面幅(하기면폭) : 230.5cm

上基面高(상기면고) : 91.5cm      上基面幅(상기면폭) : 178.0cm

塔身部

단위 : cm

	身高(신고)	身幅(신폭)	屋蓋長(옥개장)
제1층	79.5	90.0	154.0
제2층	30.5	80.5	136.5
제3층	26.5	66.5	116.5



### 3.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 439호)

전형적인 부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진전사지 부도는 사각형 2층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부를 올린 특이한 형태인데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1966년 2월 28일 보물 제 439호로 지정되었다.

사각형의 낮은 지대석 위에 2층으로 구성된 4각형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 면석 중앙에 탕주가 없고 상하기단의 각 면에 초각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위의 탑신은 8각형으로 연꽃문양을 초각한 8각의 탑신몸돌 위에 놓여있고 정면에 문짝 모양을 초각하였을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 처마는 수평이고 추녀는 안으로 휘어있고 상륜부의 구형 보주를 받치는 옥개석의 상부는 두 겹의 연꽃을 새겼으며 보주 아래 부분에도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을 받치고 있는 8각형 연꽃문양의 탑신몸돌 위쪽 중앙에 크기 26.5cm \* 29cm, 깊이 9.5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석조 부도에 연꽃모양의 몸돌을 별개의 돌로 만들어 사리구멍을 만든 예는 드물다. 전체 높이는 2.17m로 부도 앞에 원을 중심으로 8장의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놓여있다. 부도탑의 조성연대와 관련하여 진전사의 창건연대와 관련된 도의 선사의 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도의선사의 부도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부도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도〉

〈사진 설명〉 석탑의 상층기단 신중상(동편)

중앙 당주로 양분하여 한쪽에 각 2 座式(좌식)의 天人座上(천인좌상)을 양각하였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蓮花座(연화좌) 위에 安座(안좌)하고 2층의 원형 短身光(단신광)을 구비하였으며 天衣(천의)를 날리고 있는데 手印(수인)은 합장하거나 혹은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조각은 각 천인의 相好(상호)가 원만하고 美麗(미려)하며 천의자락이 잘 어울려 당대의 秀作(수작)이라 하겠다.

### 4. 신라 말기의 선종의 전래

35대 경덕왕(재위 742~765) 때에까지 활발했던 신라 불교는 그 후 점점 침체되어 갔다. 이 무렵에 직절 간명한 선(禪)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선풍(禪風)은 중국에서 달마 이래 종풍이

확립되어 독특한 선종(禪宗)으로 성립·발전된 것이다. 중국의 선종이 6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기세가 극성할 무렵 신라 학승들이 선법을 배워왔다. 북선(北禪)은 흔적만 남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6조 혜능의 남선(南禪)은 크게 일어나 신라의 선종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전법자가 도의(道義)이다. 그는 선덕왕(宣德王) 5년(784)에 당으로 가서 마조(馬祖) 도일(道一)의 고제자 서당(西堂) 지장(智藏)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설(魔說)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제자 염거(廉居)에게 전하니 염거는 다시 체징(體澄, 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九山禪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5. 고려 전기의 선종 구산의 완성

고려 태조는 불교를 외호하는 데 있어서 종파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무인적인 성격에서 자연 선종을 좋아하여 선승(禪僧)에게 귀의,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958년에 관리등용을 위해 과거제도를 쓴 데에 견주어, 승려의 위계질서를 가리려고 승과(僧科)를 설치했다. 이것은 승려를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 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신라 말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9산선문은 고려에 와서 이엄(利嚴, 866~932)의 수미산파의 성립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 6. 고려 중기의 선종의 부진

성종 구산의 성립에 따른 선법의 영향으로 여러 종파의 교학이 빛을 잃은 듯했으나 화엄교학만은 그 세력을 잃지 않았다. 남북국 시대에 의상이 화엄을 널리 펼친 이래 끊임없이 연구되어 고려에 계승되었다. 화엄교학은 고려조 전체를 통해 선종이나 교종을 막론하고 널리 연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승보살의 실천적 행동을 강조한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자들의 출가가 많았는데, 의천(義天: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은 문종의 제4왕자로 11세에 출가, 영통사의 왕사 난원(爛圓)에게서 화엄을 배웠다. 그는 송(宋)에도 유학하였으며, 그때 천태학(天台學)을 전수받고 귀국 후에는 천태교관(敎觀)을 널리 강설했다. 그는 또 교장도감을 설치, 국내외의 논저(論著)를 널리 수집하여 속장경(續藏經)을 출판했다. 고려는 초기부터 선(禪)이 성하였으나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중기에는 재래의 선종은 심히 부진하게 되었다.

## 7. 고려 후기 선종의 중흥과 조계종의 성립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고려 중기에는 선종은 심히 부진하였다. 이때 고승 지눌(知訥, 1158~1210)이 나와 조계선종의 중흥을 이루었다. 많은 선승이 끊이지 않고 배출되어 고려불교의 후기는 선종 일색이 되었는데, 지눌은 9산선문의 교리를 종합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인 조계종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 8. 선종 구산(禪宗九山)

선종구산은 남북국 시대의 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 태조 때 완성된 불교 선종(禪宗)의 구산문(九山門)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성행한 달마(達摩)의 선법(禪法)을 이어받아 한국 선종의 종풍(宗風)을 일으킨 아홉 산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지산문·동리산문·봉림산문·사굴산문·사자산문·성주산문·수미산문·실상산문·희양산문이다.

이후 이들 9산문은 선적종(禪寂宗)에 속하게 되며 의천(義天)이 만든 선종 천태종(天台宗)에 대립하였다가 조계종(曹溪宗)으로 개칭되어 선종 2종파 중의 하나가 되었다.

## 9. 선종의 9산은 다음과 같다.

### 1. 가지산문(迦智山門)

설악산에서 도의(道義: 825)의 법을 배운 제자 체징(體澄: 804-890)이 837년에 당에 건너갔으나 실망하고 840년에 신라로 돌아와서 장흥의 가지산(迦智山)에서 보림사(寶林寺)를 창건하고 도의의 종풍을 떨쳤다. 이로써 선종 9산의 일파로 가지산문이 최초로 성립되었다.

### 2. 실상산문(實相山門)

홍척(洪陟: fl. 830)이 당의 지장(智藏: 735-814)에게서 배워와(826) 남원의 지리산 실상사(實相寺)에서 실상산문을 열었다.

### 3. 희양산문(曦陽山門)

도헌(道憲: 824-882)은 준범(遵範)·혜은(慧隱)의 법맥을 받아와 문경의 봉암사(鳳岩寺)에서 희양산문을 열었다.

### 4. 봉림산문(鳳林山門)

현욱(玄昱: 787-868)·심희(審希: fl. 9세기) 등에 의해 창원의 봉림사(鳳林寺)에서 봉림산문이 형

성되었다.

5. 동리산문(桐裡山門)

혜철(惠哲: 785-861)에 의해 곡성의 태안사(泰安寺)에서 동리산문이 형성되었다.

6. 성주산문(聖住山門)

무염(無染: 800-888)에 의해 보령의 성주사(聖住寺)에서 성주산문이 형성되었다.

7. 사자산문(獅子山門)

도윤(道允: 798-868) · 절중(折中)에 의해 영월의 흥령사(興寧寺)에서 사자산문이 형성되었다.

8. 사굴산문(闍崛山門)

범일(梵日: 810-889)에 의해 강릉의 굴산사(崛山寺)에서 사굴산문이 형성되었다. 사굴산문은 도굴산문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신라말에 8산이 형성되었다.

9. 수미산문(須彌山門)

이엄(利嚴: 869-936)에 의해 고려초에 해주의 광조사(廣照寺)에서 수미산문이 열려서 9산 선문이 정립되었다.

〈참고자료〉

\* **둔전(屯田)** : 변경 지역이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한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토지이다. 그러한 제도를 둔전이라 한다.

\* **화엄종** : 화엄경(華嚴經)을 주요경전으로 삼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당초 인도에서는 화엄종의 시조는 용수(龍樹) · 세친(世親)이었다. 중국에서는 창시자 법장(法藏)이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서 '현수(賢首: 보살의 이름)라는 법호를 하사받았으므로 현수종이라고도 하고,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을 주장했으므로 법계종이라고도 불린다. 화엄종의 특색은 법계연기론에서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와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理: 본체)와 사(事: 현상)는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사와 사 또한 서로 원융하다고 본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여서 우주 만물이 서로 융통하고 화해하며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이룬다. 이 종파의 시조는 두순(杜順: 法順이라고도 함)이며 2조는 지엄(智嚴), 3조는 법장인데 법장의 저작이 매우 많다. 오교장(五教章) · 금사자장(金師子章)이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현장(玄奘) 교리를 받아들여 교판(教判)을 완성했으며, 아울러 5대 화엄사찰을 건립하는 등 화엄종의 창립에 큰 역할을 했다. 4대 징관(澄觀)은 '청량국사'(清涼國師)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문인인 종밀(宗密)은 선교(禪敎)의 융합을 꾀했으며, 유가 및 여러 사상을 조화시켜 이후의 화엄종풍의 기초를 이루었다. 당 무종(武宗)의 멸불(滅佛) 사건 이후 이 종파는 큰 타격을 입어 쇠퇴했다. 우리나라의 승려 의상(義湘)은 지엄에게 화엄을 배운 후, 신라에서 화엄종을

열어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시조가 되었다. 8세기 신라의 승려 심상(審詳)은 일본에 건너가 화엄 교리를 강의하고 일본 승려 양변(良辯)에게 법을 전하여 일본의 화엄종을 성립시켰다. 그후 우리나라의 화엄종은 고려초에 교종(敎宗)이 되었다.

\* 교종 : 불심종(佛心宗)이라고도 함.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종지(宗旨).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종(宗)의 강격(綱格)으로 하고, 좌선으로써 내관자성(內觀自省)하여 자기의 심성(心性)을 철견(徹見)하고, 자증삼매(自證三昧)의 묘한 경지를 체달함을 중요(宗要)로 하는 종. 선종이란 말은 부처님의 설교(說敎)를 소의(所依)로 삼는 종파를 교종(敎宗)이라 함에 대하여 좌선을 닦는 종지라는 뜻. 당나라 말기로부터 선종·교종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며, 교(敎)밖에 선(禪)이 있다는 치우친 소견을 내고 교외별전의 참 뜻을 잃게 되어, 도리어 선종이란 명칭을 배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됨. 이 종은 석존에게서 정법의 유족을 받은 가섭으로부터 보리달마까지의 28조가 있고, 제28조인 보리달마가 520년(양의 보통 1) 중국에 와서 혜가에서 법을 전함으로부터 동토의 제5조 홍인에 이르러 그 문하에서 혜능을 제6조로 하는 남종(南宗)과, 신수를 제6조로 하는 북종(北宗)으로 갈리었다. 북종은 오래지 않아 후손이 끊어지고, 혜능의 1류(流)만이 번성하여 5가(家) 7종(宗)을 내었다. 원나라·명나라 때 이르러서는 다른 종파가 다 쇠퇴기에 들어갔으나, 이 종만은 오히려 번성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784년(신라 선덕여왕 5) 당나라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서 법을 받아 온 도의(道義)를 초조(初祖)로 하는 가지산문(迦智山門)을 비롯하여, 역시 지장의 법을 받은 홍척(洪陟)을 초조로 하는 실상산문(實相山門), 염관 제안(鹽官齊安)에게서 법을 받아 온 범일(梵日)을 초조로 하는 사굴산문(闍崛山門), 지장에게서 법을 받은 혜철(惠哲)을 초조로 하는 동리산문(桐裏山門), 마곡 보철(麻谷寶徹)의 법을 받은 무염(無染)을 초조로 하는 성주산문(聖住山門), 남전 보원(南泉普願)의 법을 이은 도운(道允)을 초조로 하는 사자산문(師子山門), 선종 혜은(禪宗慧隱)의 법을 이은 도헌(道憲)을 초조로 하는 희양산문(曦陽山門), 장경 회휘(章敬懷暉)의 법을 이은 현욱(玄昱)을 초조로 하는 봉림산문(鳳林山門)과, 신라 말기에 운거 도응(雲居道膺)의 법을 이은 이엄(利嚴)을 초조로 하는 수미산문(須彌山門)의 9산문(山門)이 성립되어 한창 번성했으나, 고려 때에는 차츰 쇠퇴하여지다. 고려 명종 때 불일 보조(佛日普照) 국사가 나서 조계산에 수선사(修禪寺)를 세우고,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설립하여 일으켰으나, 그뒤부터 승행(僧行)이 타락되면서 차차 쇠퇴하기 시작. 고려 말기에 이르러 태고 보우(太古普愚)는 중국 호주 하무산(霞霧山)의 석옥 청공(石屋淸瑛)의 법을 받아 왔고, 나옹 혜근(懶翁惠勤)은 강서의 평산 처림(平山處林)의 법을 받아 오므로부터 두 파가 갈리다. 나옹의 법계(法系)는 얼마 안되어 없어지고, 태고의 법계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 현재 조계종에까지 맥이 이어지고 있음.

# 2017 문화학교 소개



##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계		196
한시교실	이종우	16
서예교실(한문)	함연호	15
서예교실(한글)	김광희	11
한국화교실	조정승	13
민요교실	이건남	20
통기타교실	강명근	15
사물놀이교실	홍이표	9
색소폰교실	이명재	14
난타교실	주동진	12
수채화교실	김영덕	14
양양600합창단교실	김혜선	57

##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시교실	안병대	사물놀이교실	김은영
서예교실(한문)	신동우	색소폰교실	이상순
서예교실(한글)	조영순	난타교실	최정희
한국화교실	유철호	수채화교실	권기복
민요교실	허옥환	양양600합창단교실	오세길
통기타교실	정미애		

# 2017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시

- ❖ 제25회 전국한시 백일장
  - 가작 : 황재권 - 장려 : 김경일, 김주호, 김형래, 양동창
- ❖ 제24회 조선시대 과거 재현 한시 백일장
  - 병과급제 : 김경일
- ❖ 제3회 오색달빛 강릉야행 한시콘서트
  - 차하 : 추종삼 - 우작 : 황광수
  - 가작 : 김경일, 안병대, 양동창, 김구래, 황재권
- ❖ 양양문화제 전국 한시 백일장
  - 차하 : 안병대 - 참방 : 이성복 - 가작 : 김경일, 김형래
- ❖ 거창 한시 백일장
  - 가작 : 김형래
- ❖ 화성 한식 백일장
  - 가작 : 황광수
- ❖ 양양연어축제 한시 백일장
  - 장원 : 김윤래 - 차상 : 김구래 - 차하 : 추종삼, 김형래
  - 참방 : 김경일, 이성복, 최종학, 김무풍, 박문희



한문  
서예

- ❖ 운곡서화대전
  - 특우수 : 신동우
  - 특선 : 김주용, 이광우, 윤지환, 고순재
- ❖ 강릉단오서화대전
  - 특선 : 김주용, 이광우, 윤지환, 고순재, 신동우, 최용일
- ❖ 무릉서예대전
  - 특선 : 신동우
  - 입선 : 이근천
- ❖ 양양문화제 휘호대회
  - 최우수상 : 이근천
  - 우수상 : 고순재
  - 특선 : 윤지환, 김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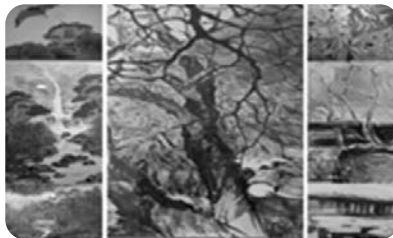


한글  
서예

-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 우수상 : 조영순
  - 삼체장 : 노복현
  - 초대작가 자격획득 : 노복현
  - 입선 : 조덕희, 김영순
- ❖ 강원도 서예전람회
  - 특선 : 이정희, 조영순, 조덕희, 김종금, 노복현
  - 입선 : 이근천, 유철호
- ❖ 대통령상님의 침묵 서예대전
  - 삼체상 : 조덕희
  - 초대작가 자격획득 : 조덕희, 이근천
- ❖ 대한민국 운곡 서예 문인화 대전
  - 삼체상 : 조덕희
  - 특우수상 : 이정희
  - 특선 : 유철호
  - 입선 : 김종금
-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 입선 : 노복현, 조영순



한국화





민요

<수상>

- ❖ 강릉단오전국민요경창대회
  - 명창부 장려상 : 이혜숙, 조복순 - 일반부 은상 : 김영도
  - 일반부 장려상 : 송종석, 허옥환 - 신인부 동상 : 정옥경
  - 단체 장려상
- ❖ 제9회 양양전국국악경연대회
  - 우수상 : 송종석 - 은상 : 임만재 - 동상 : 정옥경
- ❖ 삼척전국시조, 가사경창대회
  - 시조을부 장려상 : 정수미, 허옥환
- ❖ 양양문화제 양양슈퍼스타 : 최우수상
- ❖ 제7회동구리 전통 민요 전국경창대회 : 통합대상
- ❖ 제1회 동부민요아리랑 전국경연대회
  - 장려상 : 김영도 - 단체 동상
- ❖ 2017년 제5회 문학산경기12잡가전국국악경연대회
  - 일반부 대상 : 송종석



<공연>

- ❖ 양양문화제 공연
- ❖ 상복골 농요 공연
- ❖ 인제 동서고속도로 개통식 공연
- ❖ 동구리대회 축하공연
- ❖ 연어축제 축하공연
- ❖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축하공연

통기타

<공연>

- ❖ 양양지역 요양원 봉사 공연
- ❖ 정다운마을 봉사 공연
- ❖ 낙산요양원 봉사 공연
- ❖ 제39회 양양문화제 공연



사물놀이

〈수상〉

- ❖ 제2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은상

〈공연〉

- ❖ 신년하례식 공연
- ❖ 2017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공연
- ❖ 2017 어린연어 방류행사 공연
- ❖ 제32회장애인의 날 행사 공연
- ❖ 제39회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 ❖ 사천 호박축제 공연
- ❖ 제22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 ❖ 적십자행사 공연
- ❖ 행자부행사 공연
- ❖ 제7회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공연
- ❖ 제10회 양양예술제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행사 축하공연
- ❖ 양양지역아동센터 제3회 어울림한마당 축하공연



색소폰

〈공연〉

- ❖ 제39회 양양문화제 축하공연
- ❖ 떡호박축제 축하공연
- ❖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행사 축하공연
- ❖ 양양군민 송년음악회 공연



난타



수채화

〈전시〉

- ❖ 제5회 양양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수채화전
- ❖ 제39회 양양문화제 전시
- ❖ 다문화 가정에 전시작품 기증(10가구)
- ❖ 양양군의회



양양  
600  
합창단

〈공연〉

- ❖ 제39회 양양문화제 공연
- ❖ 제10회 양양예술제 공연
- ❖ 가족노인주간보호센터 공연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행사 축하공연



2017

## 양양문화원 제11기 어르신문화학교 서각반

1. 양양 어르신들이 서예(한글·한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통서각에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활용하여 스스로 글을 쓰고 이를 서각으로 연결하므로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하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 양성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구축하고 서각 기술습득으로 어르신문화일자리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2년동안 “양양 황장목 서각에 빠진 어르신”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 자신이 원하는 서각 작품작업을 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감과 정신적 안전감을 유지하고, 스스로 글을 쓰고 이를 서각으로 연결하므로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3. 노인들에게는 서각이 집중력과 치매운동에 도움이 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서각작품을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심신 건강유지, 서각작품 기부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교육 하였던 문화학교의 수업은 종료되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 전시회를 열어 양양 어르신들의 전통 서각에 대한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수강생명부**

김중하 김교남 김복자 김선웅 김윤영(총무) 김준호 김창영 김태홍 김태희 박공수 박근석  
 박상형 박종식 박현숙 방기환 서병철 신동우 양병진 오은영 윤지환 이승재 이영관  
 이은정 최선익 최성상 최숙자 최용일 최현식 변대환 한도웅(강사)

※작품 전시 내역 - 2017. 06.08~10 양양문화제 남대천 둔치 서각반 부스  
 - 2017. 10.17 2017 강원 어르신 문화 대축전 (홍천)  
 - 2017. 10.31~11.01 양양문화원 전시  
 - 2017. 12.13~ 일출웨딩홀 전시





# 2017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 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니므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



3.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4.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도 향상.



5. 이를 바탕으로,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 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수강생명부**

공도영	김광영(총무)	김나연	김영재	김윤영	김은영	노송현	노이준	박종량	변대환
성낙민	손영애	손종옥	신요섭	유철호	윤여준	이건남	이광형	이금순	이상세
이주행	이홍수	임만재	장형화	조남선	최돈균	최소부	최현식	표옥효	허옥환
홍이표	최명호(강사)								

※ 공연내역

- 2017. 12. 13 2017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식전공연



1월

## ‘양양팔경가(襄陽八景歌)’는 중국 땅 조선 양양촌에도 있다!

양양팔경가는 강원도 양양에서 창작 처음 불리었는데 ‘산 좋고 물 맑은 양양 이라네’ 라는 첫 소절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청정(淸淨)함을 순수하게 표현하면서 전승(傳承)된 자랑스러운 신 민요다. 이 민요(民謠)는 발 없는 말처럼 흔적 없이 국경도 넘고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멀리 중국 땅 조선족사회에도 존재한다. 이 노래가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까지 어떻게 퍼졌을까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이 노래는 북한에서 불리다가 1970년대 가사만 개사(改詞)되고, 곡조(曲調)는 여전히 북녘 땅에 남아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양팔경가가 중국조선족 사회에 전파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과 교류가 빈번했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으로 연변지구에 양양주민 집거마을이었던 조양촌(朝陽村, 조선 양양촌)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부른 것이 전 연변지구에 전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양팔경가는 1981년에 출간된 『중국조선족민요집』에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의무교육 조선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 하권에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밝히지 않은 채 ‘조선민요’로만 수록되었고, ‘중국 조선족민간음악집’에도 악보가 실려 있다.

양양팔경가에 대한 각계의 이론(異論)도 다소 있으나,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1947년 양양초급중학교 2학년 때 합창부 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양양팔경가 작사자(作詞者) 최용대 교장과 작곡자 김태선 선생께 직접 배웠다고 했다.

작사자 최용대(崔容大, 1901. 11. 22~)는 양양읍 조산 출신으로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을 시작으로 신간회 양양지회를 이끈 대중 운동가였다. 1937년부터 2년 동안 동아일보 양양지국장과 당시 양양초급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작곡자(作曲者) 김태선(金泰善, 1909~2000)의 호는 범소이며 양양군 서면 수리 태생으로 8·15광복 후 북한 공산치하에서 양양초급중학교 음악 교사로 재임 시 양양팔경가를 작곡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후 6·25한국전쟁 시 월남하였다가 수복 후 귀향하여 양양국민학교 교장(1953~1954)과 양양면장(1955~1956)을 역임한 바 있다.

양양팔경가는 곡조가 아름다워 부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노래한 것에서부터 고향을 그리워한 해외동포들의 신민요조의 애향가로써 자리매김은 문화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절〉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줄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놀기 좋고 물색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로다.  
남으론 하조대 북으론 운봉산  
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에헤-줄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양양8경가 노래비



애향 노래 창작곡집



음악책 표지사진



음악책 내용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 생활사(책 앞표지)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 생활사(책 뒷면)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 역사에 길이 빛날 애국충절(愛國忠節)의 고장, 양양

- 3·1만세운동이 지방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곳 -

## ❖ 만세운동 촉발제인 독립선언서를 들여온 분들!

이석범(李錫範, 1859 ~ 1932) 선생은 양양면 임천리 태생으로 기미년(1919년) 2월에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풍문이 이곳에 나돌아 민족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양양유림 10여 명과 함께 육로로 한성(漢城)에 올라갔다.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양양만세운동 전개(展開)를 위해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겨 오던 중 일본 군경의 검문검색(檢問檢索)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검문소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버선 속에 숨겨 무사히 일행과 함께 3월 20일 귀향하였다.

조화벽(趙和璧, 1895 ~ 1975) 지사는 양양면 남문리 태생으로 양양교회의 본처전도사(本處傳道師) 조영순의 딸이다. 개성소재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이면서 비밀결사대 일원으로 3월 3일 개성의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가방에 숨겨가지고 경원선 열차를 이용하여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뱃길을 이용 대포항구에 도착하였다. 조화벽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경찰이 소지물을 전부 압수하고 나를 경찰서장 관사로 끌고 가 심문을 하였다. 그러나 가방의 버선목 숨 속에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아 그것을 교회청년 김필선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 만세운동은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요약하면 1919년 4월 3일에 이석범은 양양면 임천리에서 각 면별로 치밀한 조직을 구성하고 다수군중의 참여를 위해 구장들과 손을 잡았고, 4월 4일 만세시위에 사용할 태극기 제작에 들어갔다. 반면 3월말 조화벽이 가지고 내려온 독립선언서는 면사무소 고용원 김필선과 등기소 고용원 김계호·김주호 등에게 인계 되어 양양면사무소 창고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샘 등사한 유인물을 본부에 전달했고, 임천리에서는 이교정, 이건축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다가, 군속 심운택의 밀고로 이동혁 군수가 현장에 출동하여 태극기 374매와 제작도구 등을 빼앗고, 이석범을 비롯한 주모 급 22명을 체포 하자 이들은 다시 양양면 성내리 뒷산의 곳집에서 5천여 개의 태극기(手旗)를 만들었고, 장날인 다음날 양양시장(襄陽市場)을 철시하였음에도 4월 4일 아침부터 각 면에서 장꾼을 가장한 만세 시위 군중들이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다. 전날 연행된 22명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가평리 리장 함홍기(咸鴻基)는 경찰서장실로 뛰어 들어가 서장에게 화로를 던지려 할 때 일본 경찰에 의해 피살 되었고, 격분하여 뒤 따라 들어가 항거하던 간리의 권병연(權柄淵)과 상평리의 김학구(金學九)도 일경에 의해 각각 피살되었다.

이에 분노한 만세시위대는 4월 4일부터 양양장터를 중심으로 물치장터 등에서 계속되었는데 4월 9일에는

현북면 하광정리 오익환, 김재한 등 1천여 명의 군중이 처음에는 양양면으로 가려했으나 수비대가 주둔해 있어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입수 하고 계획을 변경 기사문리 주재소를 공격하기로 하고 진출하던 중 미리 잠복중인 수비대와 경찰의 발포로 9명이 피살되는 참상을 입었다.

### ❖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영원하리!

일제강점기 한국근현대잡지자료인 개벽42호(1923. 12. 1)에 의하면 “己未年 民族運瀆時에 江原道로는 襄陽이 제일 격렬 하얏다. 안이-江原道뿐 안이라 조선에 멧재 안이 갓싯다.”라고 기록하였듯이 양양군의 삼일만세운동은 지역 내 유림세력과 기독교계, 농민, 현산학교, 보통학교 졸업생 등 계층을 가리지 않은 전 군민의 항일운동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양양만세운동은 1919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1주일 동안 군내 7개면 1백32리 중 6개면 82리 4천6백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는 1만5천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상자는 총칼에 쓰러진 12명의 열사를 비롯해 43명, 체포인원은 1백42명, 옥살이를 한 사람은 73명이며 혹독한 태형(笞刑)을 받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니 당시의 선열들의 독립만세운동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3.1운동 기념비(현산공원)



독립문(현산공원)



만세고개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만세운동재연



이석범 지사



조화벽 지사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 양양의 현산공원을 재조명(再照明)하다!

### ❖ 양양군민의 애환(哀歡)이 서려있는 곳이다.

현산(峴山)은 일제강점기 오대환[(吳台煥) 재임기간 1911~1913] 군수가 재임 중에 현산공원(峴山公園)으로 지정한 곳이며 장구한 세월 속에 양양군민의 애환(哀歡)이 서려있는 작은 진산(鎭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산이란 이름의 효시(嚆矢)는 조선 고종 원년(1864)에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우리나라 지리책인 대동지지(大東地志) 산수(山水)에 현산은 부(襄陽府) 북쪽 3리에 있다고 했다.

고려 목종 10년(1007)에는 현산에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하고 주신(主神)인 장군성황신(將軍城隍神)을 모신 성황사(城隍祠)가 있다. 매년 국태민안과 풍농풍어 기원제(祈願祭)를 올렸는데 기원제는 일제강점기에 일시 중단하였다가 광복이후 계속 봉행되고 있다.

### ❖ 신성(神性)한 곳으로 매년 제례를 봉행한다.

현산공원의 상부에는 성황사가 있다. 여기에 주신(主神)으로 중앙에 將軍城隍神, 좌측에 梅花女城隍神, 우측에 南大川龍王神을 각각 모시고 매년 양양문화재 시 제례봉행 하고 있다.

성황사 앞쪽에는 충열사(忠烈祠)가 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거 독립운동에 참여한 34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양양 3·1만세운동 시 일제에 항거하다 순직한 12위의 열사와, 22위의사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현산공원의 하부에는 충훈탑이 있다. 반공애국지사 106위와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에서 전사한 영령 187위가 봉안되어 있다. 그 외 각종 기념비 중 행정수복기념탑, 수복기념공병탑(독립문), 필승탑, 양양3·1운동기념비, 조선시대 관찰사, 부사, 현감 등 19기의 비가 현산공원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 ❖ 몽골항쟁 시 산화(散花)한 넋을 기리자!

고려사에 의하면 1253년 10월 22일 동북면에서 남하한 몽골군이 통천 방면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양주성(襄州城)을 진격하였을 때 양양의 부병(府兵)과 부민(府民)들은 결사 항쟁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양주성은 함락되었고, 부병과 부민은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당시 양주성(襄州城)에서 항전하다 돌아가신 수많은 부병과 부민들의 그 수효와 인적사항 기록은 없으나, 몽골군과 맞서 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차원에서 몽골항쟁양주부민위령비를 현산공원에 건립하던가, 아니면 무명용사 위령제를 다른 제례 봉행시 함께 지내주어야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의 역할이 아닌 가 한다.

반면 현산공원은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본래의 성격보다는 나라와 겨레

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현산추모공원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3.1운동기념비



부사비



충열사



충훈탑



필승탑



행정수복기념탑



독립문



현산공원

## 양양지역의 청동기 시대 거석문화(巨石文化)를 살펴보다!

### ❖ 범부리에는 고인돌길(Dolmen Road)이 있다.

고인돌은 사전적 의미로 “지석묘(支石墓, dolmen)로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괴어 놓은 고대의 거석 구조물(Megalith)을 말한다.”라고 했다. 양양군은 지난 2010년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서면 범부리에 소재한 청동기 시대의 유적(遺蹟)인 고인돌 2기가 있는 곳까지의 진입로 약1km를 ‘고인돌길’ 이라고 명명(命名) 고시했다.

흔히 역사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전통문화의 고장임을 내심 강조하고 있지만, 이처럼 유적지가 소재한 곳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구사(驅使)한 발상은 흔치 않은 일이다.

1970년대 초반 양양읍 감곡리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와 서면 범부리 고인돌이 확인된 이래 최근까지 포월리, 기정리, 수여리, 금강리, 상양혈리, 밀양리, 포매리, 원포리, 지리, 임호정리, 입암리, 강선리 등에서 다수의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당시 주민들은 주요하천의 나지막한 구릉지대(丘陵地帶)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 발굴되어 남아있는 고인돌 8기의 보전실태는?

- (1) 범부리 1호 고인돌은 덮개돌 밑에는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m, 너비 0.8~1.45m, 두께 40cm이다.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 (2) 범부리 2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둘로 갈라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06m, 너비 0.7m, 두께 40cm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1호와 마찬가지로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석실이다.
- (3) 수여리 고인돌은 손양면 수여리 전3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고인돌은 마을에서 ‘칠성바위’로 불리고 있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한다.
- (4) 금강리 고인돌은 손양면 금강리 고인돌로 알려져 왔으나 손양면 수여리 산 4-2번지에 위치한다. 7번 국도변에서 오산리 방향으로 약 2.1km쯤 들어가다가 두 번째 고갯길 왼쪽 구릉 정상부에 도로방향과 나란히 놓여 있다. 고인돌 덮개돌은 장방형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8m, 두께 40cm이다.
- (5) 기정리 고인돌은 양양읍 포월리 48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좌측 포월리 마을 뒤쪽 낮은 구릉의 북서편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장축 모서리에는 정 자국이 있으며, 길이 2m, 너비 60cm, 두께 50cm이다.
- (6) 포월리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의 주변은 작은 넷돌이 폭 1m 내외로 덮개돌 중간 부까지 쌓여있고, 덮개

돌 밑으로 받침돌들이 보인다. 덮개돌의 방향은 남-북향이며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7m, 두께 20cm이다.

(7) 2호 고인돌은 농공단지 공사 시 매몰 소실되었다.

(8) 3호 고인돌은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만 조사되었다. 석곽의 장벽은 3~4단으로 쌓았으며, 단벽은 1매 또는 2매의 판석을 세워 마감하였다.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이전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시중이다.

❖ 선조들의 혼이 서린 고인돌 함께 잘 보존하자.

지금까지 고인돌은 역사현장 보전 차원에서 나름 분포숫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하겠으나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는 남아있는 고인돌은 물론 추가로 확대 발굴하여 현황과 위치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도굴과 건설공사로 인한 훼손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향토문화유산 보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여리 고인돌 양양중학교 역사반 답사



수여리 고인돌



양양중학교 역사반 답사



포월리 1호 고인돌



포월리 2호 고인돌



포월리 3호 고인돌

## 조선의 천재음악가

## 許億鳳은 襄陽官奴였다!

## ❖ 권문세가의 자손 허억봉이 관노 된 사연은?

어린나이에 관노가 되었던 허억봉의 본관은 하양(河陽)이다. 조선시대 권문세가의 자손으로 그의 8대조는 세종대왕 때 좌의정을 지낸 허조(許稠, 1369~1439)였고, 그의 아들 허후(許誦; 우참찬, 예조판서)가 수양대군이 권력을 찬탈하고자 했던 움직임에 반대하다가 귀양살이 중 교형을 당했다. 교형을 당한 허후(許誦)의 아들은 아버지의 산소에서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자결했다. 결국 그 집안의 직계 자손은 죽임을 당하고 그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노비가 되었다고 『세조실록』에 기록하고 있어 이때 양양관노가 된 것으로 본다.

## ❖ 뛰어난 대금연주로 장악원의 전악이 되다.

허억봉(許億鳳)은 10대 중반에 대금 연주에 능하여 악공에서 일약(一躍) 장악원(掌樂院)에 불려가 최고 지휘자인 전악으로 십 수 년을 재직하며 16세기 조선의 음악계에 대단한 명성을 떨쳤다. 조선 명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낸 정사룡(鄭士龍)은 허억봉의 대금연주를 극찬하며 “허억봉의 대금연주”라는 시(詩)까지 지어 그의 문집에 전하고 있다. 허균(許筠, 1569~1618)은 자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소식적에 태평한 문물을 볼 수 있었다. 악공(樂工)가운데 허억봉(許億鳳)이란 사람이 있어서 대금을 잘 불었는데, 만년에는 현금(玄琴)을 잘 탔다.”라고 기록했다.

## ❖ 조선 최초로 대금악보(大笳樂譜)를 만들다.

조선 명종 16년(1561) 안상(安瑠)의 주도로 『금합자보(琴合字譜)』를 만들면서 허억봉에게 대금악보인 적보(笛譜)를 만들도록 하였다. 안상은 장악원 첨정(僉正)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인(樂人)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악보를 새로 만들게 하였는데, 그 악보가 현재 보물 제283호로 지정되었고, 선조 5년(1572)에 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안상은 『금합자보(琴合字譜)』의 편찬 경위를 밝힌 서문에서 악공 허억봉은 적(笛: 대금)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고 소개했다. 반면 그의 아들 허임(許任)은 신통한 침술의 대가로 75세 때에 평생 경험을 집대성하여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을 저술하였다.

## ❖ 양양은 대금(大笳)으로 이름난 고장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편(紀異篇)에 “적(笛, 피리)을 불면 적병(敵兵)이 물러가고 병이 낮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 올 때는 개이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도 평정(平靜)하여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한다.



양양지방의 해풍 맞은 대나무는 2000년대 초까지 대금을 만드는 재료로는 최고의 품질로 각광(脚光)을 받았다. 당시 양질의 대나무로 제작된 대금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주로 서울에 소재한 악기점에 납품을 하였다고 전한다.

양양문화원은 조선의 허억봉(許億鳳)선생이 10대 중반의 어린나이에 이고장의 관노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익힌 대금연주(大箏演奏)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약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이 된 것은 놀라운 일로, 이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일환책으로 올부터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금반(大箏班)을 개설 운영하는 등 저변확대와 대금의 고장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다각도(多角度)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선의 침뜸이 으뜸이라 책자
  - 한국음악의 거장들 책자
  - 대금 수강생모집 팸플릿
  - 대금 개강식
  - 최명호 대금강사 연주 모습
  - 대금(쌍골죽), 소금
- 〈별첨 사진자료들의 제목 임〉



## 襄陽鄉校는 고려와 조선이후 儒生을 위한 官學教育機關이다.

창건(創建)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사』에는 “인종(仁宗) 5년(1127) 3월에 조서(詔書)를 내려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워서 가르침의 도를 넓히게 하였다.”라 하였으니 이 시기를 향교의 설립기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말엽의 문인 안축(安軸)선생은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와서 양양에 향교를 중건(重建)한 것은 향토 문화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숙왕 17년(1330) 5월에 강릉도 존무사로 나가 충혜왕 1년(1331) 9월에 임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왔는데, 1년 4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남긴 문집 중 근재집(謹齋集)과 신중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학교)편에 수록된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는 다음과 같다.

“100여 년간 인재(人才)가 나지 않은 것은 양양의 수령(守令)이 행정에만 몰두하고 성학의 중흥에는 게을리 하였으니, 이제 곧바로 명하여 문선왕동(舊校里) 옛 학교터에 학교를 중건(重建)케 했고, 양양의 주민들과 학교 준공의 기쁨을 같이하였다.”라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숙종 10년(1684년) 8월 20일에 최상익(崔尙翼) 양양부사에 의해 진사 박호(朴灝)와 최상은(崔相殷)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양주민들의 자조협동으로 흥학(興學)의 명당기 지인 현재의 위치 임천리(林泉里)로 이건(移建)하였다.

시설은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전면에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재(東齋)·서재(西齋) 그리고 내삼문(內三門)을 지나 동무(東廡)·서무(西廡) 그 위에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동재·서재는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식의 건물이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10철(十哲)·송조6현(宋朝六賢)과 동무·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賢)을 합쳐 39위(位)를 배향(配享)하고 춘추로 석전(釋奠)을 봉행한다.

교생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의 소위 양반집 자제와 평민집 자제로서 신분이 분명하면 입학 가능했었다. 교육과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숭덕광업(崇德廣業)이란 유교의 이념구현을 목표로 개인의 수양, 사회기강 확립, 인격도야에 힘썼다. 교과목은 사서오경(四書五經), 통감(通鑑), 사서(史書)등을 강독하고, 향교에서 행하는 향사례(鄉射禮), 거접(居接) 등을 체험케 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8·15해방 전후까지는 향교 건물이 잘 보전되었으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되었다. 1952도는 한국전쟁과중임에도 당시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대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림대표 이종하(李鍾夏)의 주선으로 대성전(大成殿)·동재(東齋)·서재(西齋) 등 건물들을 잇따라 복원함으로써 전화(戰禍)

로 중단되었던 석전(釋奠)재개와 양양군의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유림들은 1954년도 향교재단 자체자금으로 명륜당(明倫堂)을 중창(重創)후 명륜중학교(明倫中學校)를 설립하고 중등교육에 힘써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70년에는 명륜기술학교로 개편 발전을 모색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1975년에 폐교되었다. 이로써 강학(講學)기능은 없어지고 제향(祭享)기능 중심으로 봄·가을에 석전(釋奠)과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한다.

성균관장정(成均館章程) 제12장 향교(鄕校) 규정에 의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수 명 등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소장전적(所藏典籍)은 칠서(七書)를 비롯하여 많은 전적과 국보급 서화(書畵) 및 유물 등이 있었으나, 6·25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 『거접록(居接錄)』1책, 『청금록(靑襟錄)』1책, 『학부수록(學府隨錄)』1책, 『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1책 등이다.



명륜당



대성전



대성전 내부



배향



석전제



삼내문



양양향교

## 東溟書院은 朝鮮中期

## 趙緯韓 부사가 세운 私學이다!

조선 인조 6년(1628)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은 이 지역에 서원(書院)이 없어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전의 양양읍 조산리에 소재한 대포영의 군용건물이 방치되어 장차 헐리게 될 것을 발견하고 이곳을 학사로 전용토록 한 것이 서원 건립의 단초(端初)가 되었다. 그 후 서원 건립을 위해 승모(崇慕)의 상장이 될 만한 선현을 물색하던 중 전 정언(前正言) 노경복과 사림 최정립, 이현일 등의 향론(鄉論)으로 襄烈公 조인벽이 추천되었으며, 이에 조 부사(趙府使)의 협조로 강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충현사(忠賢祠)라 명명하고 조인벽을 봉향(奉享)하였으며, 東溟書院으로 현판(懸板)하였다. 아울러 조위한 부사는 학도들과 유생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 전답과 소금 굽는 가마와 어선 한척을 지급 전속시켜 서원 운영을 자급하도록 하였으며, 서원의 재산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학생들에게는 부역과 병역까지도 면제해 주어 공부에만 전념토록 했다.

## ❖ 조인벽과 조사(趙師)를 배향한 연유는?

사림의 향론으로 동명서원을 창건하면서 조인벽을 奉祀하게 된 것은 이 지방의 문향(文鄉)을 열은 인물로 평가되는데다가 고려 말엽에 양양으로 낙향한 것이 계기이다. 조인벽의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조원수(趙元壽)의 5세손이다. 그는 여말 충목왕(忠穆王)대 이래로 홍건적의 퇴치와 왜구의 격퇴에 공헌을 한 무관이었으며, 아울러 학문과 덕망을 갖춘 문인이었다. 그는 처남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가담하였다. 그의 봉작은 純誠翊衛協贊輔理功臣三重大匡龍源院君(순성익위협찬보리공신삼중대광원부원군)이었다. 조인벽은 이처럼 고려 말 신진세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나 이후 신진세력이 분열하면서 그는 양양으로 낙향한 이후 이곳에 海月亭을 짓고 산수간을 소요(逍遙)하면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시예(詩藝)로 소일하였고 특히 후진을 양성하면서 학문과 도덕을 일깨워 이 지방의 풍속 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명서원이 창건된 이후 얼마 안 되어 양열공(襄熱公)의 넷째 아들 조사(趙師)가 배향(配享)되었는데, 조사는 정몽주의 문인으로서 양열공을 따라 낙향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양열공의 사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근처의 원천석(元天錫)과 교유하였다. 조사는 사적으로 이태조의 생질이었던 관계로 通情大夫僉知中樞府使(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이를 사양하여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보였으며 이에 후인의 사표(師表)가 되었음으로 배향(配享)될 수 있었다.

## ❖ 순흥 와란(臥蘭)에서 196년 만에 돌아오다.

동명서원의 소실(燒失) 연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력의 부족으로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정조 10년(1786)

에 순흥와란(順興卧蘭)으로 옮겨서 재건되었다. 와란은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로서 과거 조인벽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던 봉화와 양양 등지의 사람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의 동명서원에는 당시 봉화의 승모상징인 趙貞이 追配되었다. 조정은 조인벽의 6세 손으로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의 문인이다. 고종 8년(1871) 3월 20일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전국 700여 서원중에서 사액서원(賜額書院)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훼철되었다. 광무 2년(1898)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이 동명서원을 창건하였던 조산리 옛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그 후 1982년 양양의 유림들과 한양조 문중(漢陽趙門中)이 중심이 되어 196년 만에 사당과 강당을 조산리에 복원하였는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4월 5일 대형 산불로 사당(忠賢祠)이 전소되어 2010년 복구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고 2011년 4월 22일 사당복원 고유제(告由祭)를 올린 후부터 매년 3월 둘째 정일(丁日)에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 조계종조 도의국사는 양양 진전사에서 은둔 수도하다.



‘도의(道義)’는 신라 후기의 승려로,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며 도의는 법명이다. 성은 왕(王)씨로 북한군(北漢郡:漢城)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임신한지 39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의 출생과 입적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가 생애였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선덕왕 5년(784)에 해로(海路)로 당나라에 건너갔으며 오대산을 찾아가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比丘戒)를 받고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慧能)을 모신 조사당(祖師堂)을 참배하였는데,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하며 이후 강서의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서당 지장(西堂地藏)에게 법을 물어서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전한다.

또한 백장산(百丈山)의 회해선사(懷海禪師)를 찾아가서 법요를 강의 받았는데 회해는 말하기를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며 선법(禪法)을 터득하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신라로 돌아온 도의국사는 “경전이나 해석하고 염불을 외우는 일보다 본연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심즉불(自心卽佛)’을 외치고 다녔는데, 당시 통일신라의 왕권불교는 왕즉불(王卽佛)의 엄격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왕은 곧 부처요, 귀족은 보살이고, 대중은 중생이니 부처님 세계의 논리와 위계질서는 사회구성체의 지배와 피지배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신라의 승려와 귀족들은 도의선사의 무위법(無爲法) 즉 선(禪)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외침을 ‘마귀의 소리’라고 배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도의국사는

아직 선법(禪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산북행(北山北行)을 향하여 신라 변경에 해당하는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40년 동안 수도에 전념하였다.

진전사의 장로(長老)로 주석(駐錫)하면서 제자인 염거화상(廉居和尚)에게 남종선(南宗禪)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염거화상은 제자 체징화상(體澄和尚)에게 선(禪)을 전하니 체징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 기슭에 보림사를 창건하여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도량으로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리하여 도의국사를 선종의 1조(一祖), 염거화상을 2조(二祖), 체징화상을 3조(三祖)로 받들어 도의국사를 가지산파의 개산조사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821년에는 이미 진전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시창(始創)은 늦어도 8세기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 되는 바 현지에 건립되어 있는 3층 석탑의 각부 양식과 기법을 고찰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에 건립된 석탑이므로 이때에 이미 진전사가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宗憲)에 ‘본종(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대사(曹溪 慧能大師)의 증법손 서당 지장선사(曾法孫西堂智藏禪師)에게서 심인(心印)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중흥조(中興祖)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淸虛浮休兩法脈)을 계승승(繼繼承承)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스님이 이곳 진전사에서 14세 때 머리를 깎고 득도(得度)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진전사에 어떤 스님이 계셨고, 언제 폐사됐는지는 알 수 없다.

##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 ❖ 산지가람(山地伽藍) 선림원지를 탐방(探訪)하다!



선림원지

선림원지(禪林院址)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번지 미천골(米川谷)에 있었던 사찰로 절터만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선림원지라 부르며 강원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삼층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 등의 중요 국보급 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범종(新羅梵鐘)의 내부 명문(銘文)중에는 해당 사찰명이 아닌 약칭(略稱)으로 ‘당사(當寺)’ 즉 이 절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것은 선림원지를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억성사(億聖寺)라 하고, 그 외 학자마다 사림사(沙林

寺) 또는 선림원(禪林院)이라 학술지를 통해 주장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찰 이름이 셋으로 나뉘어 불려지고 있다.

지금의 선림원지는 명칭 상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명칭에 대해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즉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어휘로, 원(院)은 사찰 속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사용한다.

선림원지(禪林院址)는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 등이 창업하였다고 하는데 그 연대의 추정을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면서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804)으로 밝혀져 절도 이때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림원지 승탑(부도)



주목할 것은 범종의 명문(銘文)에는 ‘당사(當寺)’라고 표기 되어 이 절은 선림원(禪林院)이 아니라 사(寺)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문(銘文) 중에 “이 절의 옛 종 쇠 이백 이십정을 밀천을 삼음이란 것은 순응법사가 이곳의 범종을 주조하기 전에 이미 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아도 크게 빛나간 추론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 **홍각선사가 이곳 절 이름을 명명(命名)한 것으로 추정하다!**

이곳 사찰의 이름에 관한 문헌(文獻)은 여지도서, 양주읍지, 관동지 등 다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고, 양양 부사를 지낸 명암 이해조(李海朝)의 1709년 재임 시 남긴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양양삼십경) 시(詩)에 “사림사(沙林寺)”란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사헌을 지낸바 있는 홍경모의 관암전서에 “신라 설악산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선림원’과 ‘사림사’ 두 절이 신라 하대에 이곳에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이 지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는 신흥사·백담사·영혈사 등 사찰을 중수하거나 이전 복원 한 경우 기존의 사찰명칭과는 무관하게 개명한 것으로 기록 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불문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각선사가 함통 말년(870)에 이곳 역성사로 다시 들어와 머물면서 퇴락한 절의 금당과 누대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기존의 역성사(億聖寺)를 사림사(沙林寺)로 개칭하고, 별사[別廬, 승방지]를 선림원(禪林院)으로 명명(命名) 하였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림사와 선림원이 대등관계가 아니라 사림사에 속한 선림원 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향후 호칭도 ‘사림사의 선림원’ 또는 ‘사림사 경내의 선림원’으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신라 천년고찰의 명칭이 현재까지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기회에 절 이름을 바로 찾아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선림원지 석등

## 양양 하조대(河趙臺)는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

### ❖ 이곳 유래와 정자각 건축연대를 알아보다.



하조대는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대의 암석 해안으로 2009년 12월 9일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곳이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의 고적條(古跡條)에 “하조대는 부 남쪽 30 리에 있다. 해안에 닿아 있는 작은 산기슭의 험한 곳에 돈대(曠臺)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초기에 하륜(河崧)과 조준(趙浚)이 풍류를 즐긴 곳인 까닭에 이름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자각은 조선 정종 때 최초로 건립한 후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한바 있으나 퇴락하여 철폐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40년 현북면에서 기념사업으로 주민들이 팔각정(八角亭)을 건립하였으나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 그 후 195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현재의 정자는 1998년에 해체복원한 건물이다. 양주읍지 형승조(形勝條)에는 정자각 앞 바위에 ‘하조대(河趙臺)’라 새겨 놓은 글자는 조선 숙종 때 대사헌과 양양부사를 지낸바 있는 이세근(李世瑾)이 각자(刻字)하였다고 전한다.

### ❖ 시인 묵객(詩人墨客)들의 제영(題詠) 시(詩)는?

- 택당 이식(澤堂李植, 1584~1647)은 동부승지·우참찬 등을 역임했고 다음해에 대사간·대사성(大司成)·좌부승지를 지냈으며, 한 때 인조의 노여움을 사 간성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했는데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하조대(河趙臺)〉

臺名河趙自何年 / 대명하조자하년 / 하조대란 이 이름 시작된 게 언제 인고

形勝兼將姓氏傳 / 형승겸장성씨전 / 멋진 경치와 더불어서 성씨까지도 전해 오네

扁扁千尋爭巨浪 / 희희천심쟁거낭 / 엄청난 물결과 맞싸우며 천 길 우뚝 솟은 누대

灣回一曲貯深淵 / 만회일곡저심연 / 한 굽이 돌 때마다 깊은 연못 물 고이였네  
 草疑砥柱當橫潰 / 초의지주당횡궤 / 격류 속의 지주런가 처음에 눈을 의심타가  
 更覺桑田閱變遷 / 갱각상전열변천 / 문득 상전벽해 세월의 변천을 깨달았네  
 從古爽鳩遺此樂 / 종고상구유차낙 / 상구씨가 이 즐거움 물려준 뒤로부터  
 幾人陳迹逐風煙 / 기인진적축풍연 / 속인의 발길 그 얼마나 이 풍광을 좇았을꼬

- 명제 윤증(明齋尹拯, 1629~1714)은 학덕이 높아 현종 때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이후로도 우의정 등의 교지를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하여 백의정승이라 불리며,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河趙臺(하조대)〉

奇峰突兀入波心 / 기봉돌울입파심 / 파도 속으로 불쑥 솟은 기이한 봉우리여  
 十里松間冒雨尋 / 십리송간모우심 / 숲 사이 십리 길을 비 맞으며 찾아 왔네  
 遊子何知河與趙 / 십리송간모우심 / 나그네는 하륜과 조준을 어찌 알 것인가  
 倚巖空腹費莊吟 / 의암공복비장음 / 바위에 기대 부질없이 시 한수 읊었 다음



하조대와 관련된 위의 시 외에 양양부사를 지낸 현곡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십청헌 김세필(十淸軒 金世弼, 1473~1533), 창녕군수 백현 이경석(白軒 李景奭, 1595~1671), 황해도관찰사,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1602~1654), 양양부사, 희암 채팽윤(希菴 蔡彭胤, 1669~1731), 저촌 심욱(樛村沈鎔, 1685~1753), 대사성, 지퇴당 이정형(知退堂 李廷馨, 1549~1607), 대제학 호음 정사룡(湖陰 鄭士龍, 1491~1570) 등 기라성 같은 명사들이 시를 남겼는데 특별히 택당 이식과 백현 이경석의 하조대 제영(題詠)시 두

편이 정자각 내에 편액(扁額)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연암 박지원 부사가 남긴 교훈과 양양의 황장봉산 실태를 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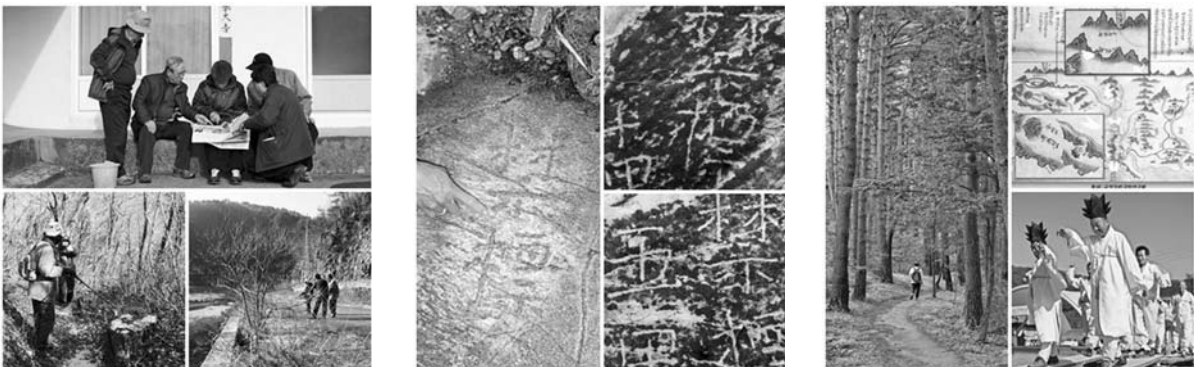
### ❖ 문란하고 해이한 공직기강을 다잡다.

연암이 양양에 부임할 당시 환곡(還穀)이 문란해 아전(衙前)들이 흠치고 포흠(逋欠)하여 창고에는 한 톨 비축 없이 장부로만 있었다. 그럼에도 전임 부사들은 아전들의 횡포에 밀려 이를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연암은 아전들이 스스로 포흠한 곡식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이 걸핏하면 도망가 버리겠다고 한데, 참으로 딱하다. 고을 원이 할 일이란 군정과 전세와 환곡이거늘 창고가 텅 비어 있고서야 원은 두어 뿔 하겠느냐? 너희들이 달아나고자 한다면 모두 달아나라. 한 사람도 남아 있지 말고 모두 달아나라. 나도,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장계를 올려 죄를 청한 다음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만 아니냐?”하고 연암은 작은 방에 거처하면서 포흠을 되돌리기 전에는 공무를 하지 않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 후 부사에게 녹봉이 들어오자 직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녹봉을 받기 부끄럽다면서 이를 포흠한 환곡을 매우는데 사용토록 하였다. 이에 아전들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을의 부유한 백성들까지도 흑비용을 내어 몇 달 만에 창고가 모두 채워졌고 이 후 비로소 동헌에 거처하며 공무를 살핌으로써 아전들의 포흠을 막고 환곡을 바로 잡았다.

### ❖ 백성을 위해 청렴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선 후기에 박종채(朴宗采)가 지은 잡록인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양양에는 별목을 금하는 황장목(黃腸木) 숲이 펍 많았다. 매년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훗날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 했다. 연암이 양양에 부임하자 친지들은 황장목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연암은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



였다.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狼藉)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연암은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놓으라고 하였다. 모두들 그 영문을 몰랐다. 며칠 후 몸소 그 시냇가에 가서 말했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 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연암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으로 만든 널을 썼다. 그걸 보고 경탄(驚歎)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 ❖ 황장봉산의 보전실태를 알아보다.

조선왕실에서 주로 관곽재(棺槨材)와 궁궐 건축에 쓰일 목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황장목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腸封山) 또는 황장금산(黃腸禁山)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로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이라고 하는데, 이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는 산의 경계표시를 이르는 말이 황장금표(黃腸禁標)이다.

조선 후기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전국 지리지인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부 토산편에는 황장봉산이 두 군데 있다고 했다. 법수치리 방향의 부연산 봉산은 둘레가 300리 이고, 갈천리 방향의 전립동 봉산은 둘레가 350리 로 기록되어 있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 기준에 확보한 문헌과 구전자료를 바탕으로 양양지역의 금표의 분포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총5개소(오색리 금표, 장리 금표, 원일전 금표, 어성전리 금표, 법수치리 용화사 금표)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황장금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선시대 국가지정 황장봉산 2개소와 금표 각자(禁標刻字) 5개소가 확인됨으로써 전국에도 흔치 않은 일로 명실상부한 황장목의 고장으로써 긍지를 갖는다. 그러나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달리 무분별한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어 현존하는 황장금표 각자(刻字)가 한곳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自愧感)을 갖는다.



##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 갖는 소회(所懷)

### ❖ 향토사 연구원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한 해 우리 향토사를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양양소식지에 연재(連載)하여 주민들에 잔잔한 감동(感瀆)을 주었다. 물론 자료수집이나 집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 내에 우수대학이나 사학연구기관 한 곳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향토사에 대한 연구와 오래전부터 잠재된 오류(誤謬)를 고문헌의 전거(典據)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준 역할에 보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향토사(鄉土史)에 대한 정의는 “특정 지방에 관한 역사, 지리, 경제, 인물, 문화재, 민속, 풍물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지역사(地域史), 또는 지방사(地方史)”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 활동의 중심에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향토사연구원이 있다. 이 고장 출신들로 교육계의 원로 두 분과 양양군청 실·과장으로 퇴직한 두 분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로 지난 2011년에 위촉 재구성하였는데 최근 전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을 새로 위촉 모두 7분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양문화원에서 마련한 회의실에 모여 각자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3~4시간씩 토론을 거쳐 주민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문화원에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문화원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층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답사 및 발굴 작업을 병행하여 매년 1편의 연구 논문을 작성 향토사료(鄉土史料)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실적에 따른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출품 2011년에는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2012년에는 논문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강원도 문화원연합회 주관 향토문화연구발표전에 논문을 출품 2012년에 최우수상, 2016년에 우수상, 그 외 장려상 3회를 각각 수상하는 등 전국과 도내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낸바 있다.



# 금년도

# 則 빛 ?

跌 誌 薦  
 에는 고려 왕 강 遙사 安軸 의 으로 에 건 創建  
 것으로 록 있으 생 謹齋先生集 卷之一 관 와 關東瓦注 의 記文 을 거  
 로 강 遙사 江陵道存撫使 의 재 는 고려 왕 왕 임으로 의  
 건 重建 이 로 발 다

상의 인사 이진 移建文 三 道 安軸 主張 而 君 州 董  
 치삼 장 이음 牛 墨공감 공역의 의 은 치 에 생이  
 장 여 음 牛 과 墨공으로 여 공역을 감 게 였다 상 는 여  
 치 상 의 연 은 에 당 으로 력 월 상 의 연  
 이상발 고려 왕 에 당 談다

箔 쑥 함 깃줄 責 노 薦  
 고 에 는 東淸 을 協 사당이 상고 다 림에 香 월 일 響이 響이  
 덕용왕 東淸廣듬미王之 에게 례 고 있는 것은 잘 이다 고려 공 왕  
 에 산 山 를 嶽 의 이 을 새로 命 포 은 東淸之 이상  
 고 예 에 嶽 를 動산 의 단 와 패의 상命 인의  
 는 사 中祀 이고 사 의 위관 位 은 東淸之 으로 다고 였다

# 양양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1

## 양양 5일장

영북지방의 가장 큰 시골 전통장으로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장터 구석구석은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들이 선보이며, 가끔은 희귀한 특산물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요품목으로는 각종채소, 해산물, 농산물, 버섯류, 농기구류 등이며, 인기품목으로는 무공해 채소류, 산나물, 더덕, 돌김, 미역, 농기구류 등이 있다. 장터 토속음식으로는 가시리묵, 장칼국수, 뚜거리탕, 십국, 송천떡 등이 있다.

2

## 송천떡마을

설악산과 점봉산 자락에 묻혀 있는 고향 내음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은 한쪽으로는 송천계곡 물줄기가 길게 흐르고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로 전체 30여 가구 중 15가구가 떡을 만든다. 기계떡이 아니라 찹쌀을 시루에 엮어 장작불로 찌고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빚어내는 떡이다. 떡메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떡이 쫄깃하고 말랑말랑하다. 쌀은 마을에서 농사지은 것을 사용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오색약수에서 흘러내린 물을 논물로 이용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다. 떡을 반죽할 때는 기름이나 물을 쓰지 않고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사용한다. 떡은 인절미와 계피떡, 바람떡, 송편, 백설기, 호박고지, 찹쌀떡, 가래떡, 경단 등 다양하게 만든다. 가장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절미인데, 반은 흰색 인절미로, 나머지 반은 취나물과 쪽을 섞어 만든다.

20여 년 전부터 떡을 빚어온 마을에서는 떡만드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떡빚기 행사도 개최한다. 겨울 설경이 아름다우



3

### 양양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며 까치구멍이 그대로 보존된 옛날 부엌도 볼 수 있다.

주변에 낙산사, 낙산도립공원, 신흥사, 미천골자연휴양림, 오색약수, 선림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시 현지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의 한곳이다. 유적지는 동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석호' 라고 불리는 호숫가의 모래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언덕을 파서 이 호수를 매립하던 중 발견되어, 19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하여 14기의 원형집터와 소할석 및 돌무지 유구, 다양한 석기와 토기를 발굴하였다. 특히 흙으로 만든 인면상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상징한 예술품으로 희귀한 예로 일컬어진다. 또한 출토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유적지가 B.C.6000년경의 유적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 중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어 사적 394호로 지정되었다.

양양군에서는 오산리 신석기 유적들을 소개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건축면적 3,194㎡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크게 도입부와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소개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에는 종합안내소와 PC를 통하여 박물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로비의 전망창을 통하여 야외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선사시대 유적 관람을 준비하며 현실에서 선사시대로 시간 이동을 유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에는 쌍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신석기시대 사람들, 그들의 어로생활, 토기를 만드는 모습, 움집 주변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사냥한 멧돼지와 어패류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롯한 주거생활 등이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강원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담은 전시실은 각종 어로기구와 돌칼, 돌화살, 돌도끼, 토기와 청동기 제작법 등 오산리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변에 오산해수욕장·동호리해수욕장·수산

항·연어생태학교[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일현미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4

## 탁장사마을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산나물로 밥을 하고, 고기 잡아 배불리 먹으며, 천년의 송이향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눈썰매도 타볼 수 있는 전통테마마을이다.

조선말, 커다란 나무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있었다.

강릉의 권장사가 실패하고 양양의 탁장사가 이겼다고 한다. 양양으로 나무를 지고 온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잔치가 열린다하여 탁장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통나무 자르기놀이, 지게지기, 목도놀이, 강강술래 등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주변관광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畵)수십 만 평이 마을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매년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도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5

## 곤충생태관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으로 건물외벽에 커다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모형이 걸려있어 관광객들 특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곳이다. 2층 내부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희귀한 곤충의 표본과 색색의 나비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잡아끈다.

1,200여 종의 곤충과 나비표본, 수서곤충, 갑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의 성장과정과 생태도 관찰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생명체로서의 곤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이다. 1층은 양양관광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낙산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연중무휴이며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소인 700원을 받고 있다. 주차는 무료이다.

6

###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24-1번지에 소재한 연어생태학교이다. 남대천가에 위치해 있어 태평양에서 돌아온 연어를 직접 포획하기도 하고 알을 채란하여 인공수정 및 부화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며, 성어가 된 연어를 방류하는 곳이다. 전시관에는 연어의 일생과 생태 등이 사진과 그래픽 패널, 연어표본 등을 관람할 수 있고, 10월~11월 연어축제가 개최 될 때에는 인공수정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무지개송어, 산천어 등 일반담수어양식장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연현장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 연어전시실은 연중 견학이 가능하다.

7

### 양양양수발전소 (양양에너지월드)

‘양양양수발전소’는 2006년 9월 12일에 준공되었다. 양양양수발전소 1~4호기는 국내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100만kw(25만kw, 4기)로 연간 약 7억 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 (주)삼안이 설계를 두산중공업(주)가 기자재 공급, 삼환기업(주), 삼성물산(주)가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1996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 공사비 1조 1,000억원과 연인원 170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0년 만에 완공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한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며 하부댐에는 대형댐으로는 처음으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기간 중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을 종합회관 건립,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관 건립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약 26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양수발전의 원리와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리를 체험 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1일 ‘양양에너지월드’를 개관하게 되었다. 양양에너지월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양양양수발전소의 홍보 전시관으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Zone(양수발전소 소개)’, ‘빛의 놀이터 Zone(에너지 체험)’, ‘빛의 중심 Zone(중부발전 소개)’ 등의 전시관과 60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갖춘 3D입체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밖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갖춰져 있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양양양수발전소’ 및 ‘양양에너지월드’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허리수술은 꼭 필요한 환자만 제대로 받아야

오전 외래 진료는 보통 9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침대에 실려 내원하는 환자는 대부분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 걷지 못하는 환자일 가능성이 많다. 지난 주 분당에서 다른 병원을 거쳐 내원한 34세 여자환자 역시 심한 엉치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 앉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평소 강남에 위치한 유명 임신 학원에 주말도 없이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면서 수학을 가르쳤다는 그 환자는 운동량 부족으로 최근 체중이 5킬로 가량 늘었다고도 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차분한 환자에 비해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보호자인 남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안해 보였는데, 타원에서 2주전 촬영후 가져온 MRI 사진을 검토하고 있는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꼭 수술이 필요한가요? 찾아보니 디스크 환자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정도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다. 교과서적으로도 허리디스크를 앓는 경우 보존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 반응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대략 10-15% 정도이다. 나머지 90% 가량의 대다수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꾸준하면서도 적절한 근력운동과 통증치료 정도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사가 개입할 부분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당장의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통증치료 정도이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통증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경마비로 발목이나 발가락, 무릎관절이나 고관절 등에 근력이 저하되거나, 심한 신경압박으로 인해 대소변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다시 그 수학강사의 얘기로 돌아가보면, 처음 증상이 생긴 건 한달 쯤 전이었는데 그 당시는 허리쪽 통증만 있어서 인근 한방병원에서 침맞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증상의 호전이 있는 듯하다가 2주 전부터는 엉치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와 인근 병원에서 MRI를 찍고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의 강도가 심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라는 믿음 하에 통증치료만 몇 차례 해왔다고. 그러다가 통증이 심해지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진을 들고 내원하였던 것이다. 정작 환자인 수학강사는 안타깝지만 본인이 그 10%에 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보호자인 남편은 허리에는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다가가 발가락과 발목을 움직여보라고 말한 후, 보호자인 남편에게 양쪽의 근력을 직접 비교해보라고 말씀 드렸다. 환자는 4-5번 디스크 파열로 왼쪽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드는 힘이 오른쪽에 비해서 반이상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다. 디스크 파열에 의한 신경손상은 마치 전선케이블을 양 끝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손상을 준다. 전선을 감싸고 있는 고무재질 때문에 겉으로 봐서 전선줄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의 구리선 가닥들이 몇 가닥 끊어지는 손상을 입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로 손상 입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마비가 발생하는 것.

의사의 입에서 수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직도 일부 환자들은 본인이 왜 하필 그 10%에 해당하는 지 신통 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MRI를 들고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 해준다는 광고나, 주위 사람누구가 허리에 주사 한방 맞고 좋아졌다는 뜬소문에 끌려 여기저기 치료쇼핑을 시작한다. 환자들의 이런 약한 마음을 악용해서 완치가 되는 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비수술치료만을 전문적으로 권하는 병원들도 이미 주위에 많이 등장한지라 악화가 양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더 이상 낮은 풍경은 아니다.

다행히도 그 수학강사는 합리적 사고에 익숙한 전공 탓인지 본인의 상황을 바로 인지하였고 무사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현재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해왔다.

서초21세기병원 신경외과 양경훈



##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

### ■ 정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정상 요추의 모식도

### ■ 원인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추간(척추 사이의)판이 노화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원심성의 균열(circumferential fissure)과 방사성 파열(radial tear)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추간판 중앙의 수핵은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방사성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

### ■ 증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된다. 제5 요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안쪽 발등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제1 천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발등의 외측에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각 과민으로도 나타난다. 근력 또한 약해져서 제5 신경근 이환 때에는 족부 신전근이 쇠약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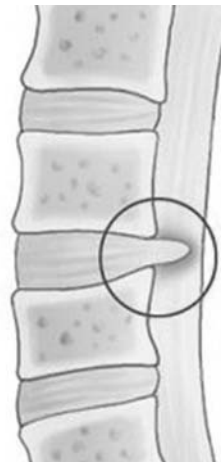
고 이 때는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진다. 드문 경우이나, 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 마비가 올 수 있다.

## ■ 진단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진찰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는 하지 직거상 검사(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통증이 느껴지는 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 고관절이 90도 될 때까지 들어올리는 검사)이다. 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올려 보았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하여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양성이다. 이 외에도 다리의 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며, 심부 건 반사에 이상이 초래되어 슬개 건 반사나 아킬레스 건 반사가 소실된다.

## ■ 검사

방사선 검사는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 요추 만곡의 감소 외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지만 다른 진단을 감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모든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자기공명영상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찰만으로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전체 환자의 80~90% 정도는 약 1~2달 간의 안정 및 보존적 치료만으로 잘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일단 안정과 보존적 치료를 하고,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나 수술이 필요할 때 정밀 검사를 시행해도 된다.



추간판 탈출증

## ■ 치료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보존적 치료

보존적인 요법으로는 절대 안정, 소염 진통제의 복용, 골반 견인, 열 치료, 초음파 치료, 피하 신경 전기 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마사지, 코르셋이나 보조기의 착용, 경막 외 부신피질 호르몬 주사(epidural steroid injection), 복근 강화 운동, 올바른 허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 절대 안정이 도움이 되지만 그 기간은 일주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골반 견인은 전반적인 요통의 대중적인 치료로 사용되며, 이는 침상 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가능하면 급성 동통이 사라지는 대로 코르셋을 착용하여 보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코르셋은 장기간 착용하면 근육의 위축이 초래되므로 복근 및 등 근육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2) 수술적 치료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인 치료를 6~12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하지 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 생활이 어렵고 여가 선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 수술 전 주된 증상이 신경근 자극에 의한 하지 방사통이 아니라 요통일 때에는 추간판 절제 수술을 시행하여도 요통은 별로 호전되지 않는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기존의 절개 후 수술하는 고전적 방법부터 최소 침습적 수술이 있고, 최소 침습적 수술로는 수술 현미경 하의 수핵 절제술,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 절제술, 자동 경피적 수핵 절제술, 레이저를 이용한 수핵 절제술, 약물을 수핵 내에 주사하는 화학적 수핵 용해술이 있다. 주사로 녹여내는 방법은 최근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 경과/합병증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 및 방사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료의 방법에 상관없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염증 반응이 소실되고 수핵의 수분이 흡수되어 수핵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신경근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신경근의 길이가 길어지는 생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환자를 편안하게 지내게 하는가가 치료의 근간이 된다. 급성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복근 운동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 조절이 힘든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극히 소수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 ■ 예방방법

지속적인 허리 운동을 하는 것이 요통 및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30분 가량 평지나 낮은 언덕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자유형이나 배영 중 편한 것)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올바른 허리 사용법을 익히고 습관화하는 것도 요통 및 추간판 탈출증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 ■ 생활 가이드

흡연은 요통이나 좌골 신경통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흡연자의 경우 우선 금연을 시행해야 한다.

비만도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서 적절한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

요통 및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에 좋은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들 때에는 항상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들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를 구부리면서 비틀지 않는다. 앉을 때에는 등받이가 약간 뒤로 기울어진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는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대어야 하며, 20~30분에 한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준다. 팔걸이가 있고 뒤통미가 땅에 닿는 높이의 의자가 좋다.

서 있을 때에는 한쪽 발을 낮은 발판이나 상자 등에 올려놓으며, 작업대를 편안한 높이에 오도록 하고 작업한다. 운전할 때에는 좌석을 운전대에 가깝게 하고 무릎 쪽을 높게 하고, 허리에 쿠션을 받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잘 때에는 바닥은 비교적 단단하되 약간의 쿠션이 있는 것으로 하며,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돌아누워서 자도록 한다.

## ■ 식이요법

비만인 경우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체중 관리를 고려한 식사를 하여야 한다.

## 출처(제공처 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추간판 탈출증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 2017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학교별	등위	신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양양초 최재용 (6학년)	양양초 조한결 (2학년)		양양초 김가영 (6학년)	손양초 김효경 (4학년)
		조산초 김지윤 (2학년)	조산초 송주연 (2학년)	조산초 최혁 (2학년)	손양초 이태형 (6학년)			양양초 이혜빈 (6학년)		
					손양초 윤정빈 (6학년)	인구초 김지효 (5학년)		회룡초 진세국 (4학년)	조산초 백승민 (1학년)	
중학교		강현중 최인정 (2학년)	강현중 김주영 (2학년)	강현중 이재승 (1학년)	양양중 양해찬 (3학년)	강현중 김상연 (2학년)	-	강현중 이선희 (1학년)	강현중 최민서 (2학년)	강현중 안지연 (1학년)
										강현중 김유빈 (1학년)



# 2017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시, 산문부문 입상작 심사평

심사위원 : 엄혜성(양양고등학교 교사)

먼저 2017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사의 기회를 주신 양양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및 성찰한 점이 경로효친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가, 독자에게 공감 및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초등 산문 부문]

최우수로 선정한 ‘할머니 기뻐하신 날(조산초2 김지윤)’은 할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잘 표현되었고, 단순히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간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났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요(조산초2 송주연)’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화목을 도모하겠다는 다짐이 잘 표현되어 있어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할머니 도와드린 일(조산초2 최혁)’은 친할머니뿐 아니라 길에서 만난 할머니께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세대 간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 장려로 선정하였습니다.

## [초등 시 부문]

최우수로 선정한 ‘할머니(손양초6 이태형)’는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현실적으로 느낄 법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어른들께 도움을 드린 경험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겨 보람을 느끼는 과정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엄마 아빠의 굳은 등(양양초6 최재용)’은 부모님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순수하게 표현하였

기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웃음꽃(손양초6 윤정빈)’은 ‘웃음꽃’이 ‘핀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드리며 느낀 감정을 진솔하고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할머니의 얼굴(양양초2 조한결)’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할머니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하였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였기에 장려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복숭아 파시는 할머니(인구초5 김지효)’는 시각적, 미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할머니와의 따뜻한 감정 교류를 발랄한 어조로 표현하였기에 장려로 선정하였습니다.

### [중등 산문 부문]

최우수로 선정한 ‘부모님(강현중2 최인정)’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죽음에 대한 성찰에까지 이르는 생각의 깊이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글쓰기 능력을 갖추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구성하였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술(강현중2 김주영)’은 간결한 문장으로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경험을 표현하였고, 부모님의 마음과 고단함을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기에 우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경로효친(강현중1 이재승)’은 경로효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였기에 장려로 선정하였습니다.

### [중등 시 부문]

최우수로 선정한 ‘발자국의 무게(양양중3 양해찬)’는 ‘발자국의 무게’라는 소재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부모님(강현중2 김상연)’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차분하게 시에 담아냈기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등외의 작품들도 노력이 담긴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주제가 더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자신만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양양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쓰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또한 양양군의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 원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경로효친문에작품 포스터부문 심사소감

심사위원 : 김정옥(양양여중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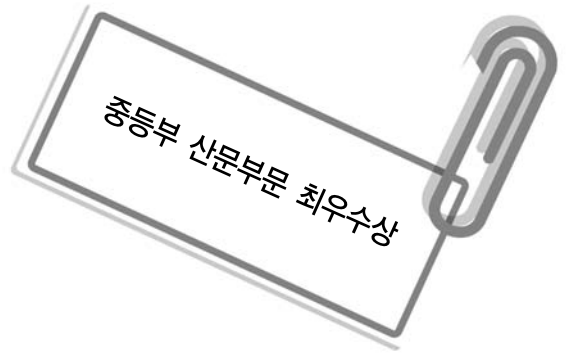
우선 '경로효친' 이란 포스터 주제를 대하면서 이런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노고와 감사 드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하고자 한다.

그림이란 마음에서 구상하여 떠오른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경로효친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며 마음속으로 효를 실천하는 밑바탕으로 삼아본다. 따라서 작품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우리나라왔는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림인지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심사하면서 학생들이 작품 속에 경로효친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중학교 최우수상으로 '어른들의 효자손 대신 되어 드리자' (이선희, 강현중1)의 작품은 기존의 포스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어와 다른 창의적이고 참신한 감각으로 그냥 한마디로 정감이 와 닿았으며, 그림 속 어르신의 표정은 어려움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문자체와 그림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그림만 봐도 효는,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깝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최우수상으로 '함께하는 경로효친 웃고 있는 우리세상' (이혜빈, 양양초등6)의 작품은 표어만 봐도 설득력이 있고 전달 효과가 있어서 타 작품에 비해 높이 평가를 했다. 이 작품을 보면 요즘의 어른공경은 어떤 모습인지 또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 해 주는 작품이었다.

그 외 많은 응모작품들을 보며 다양하고 순수한 표현의 작품들 모두 훌륭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아쉬운 점은 1인 심사를 하다 보니,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걱정도 해본다. 또한, 지역의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와 다시 한 번 경로효친 교육에 감사를 드립니다.



## 부모님

강현중학교 2학년 1반 최인정

얼마 전 엄마를 따라서 강릉에 있는 갈바리 의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체험학습서를 제출하고 엄마의 일터를 따라 가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주 수요일 음악치료를 하기위해 갈바리 의원에 가십니다. 강릉 갈바리 의원은 강원 영동권에서 하나밖에 없는 호스피스 시설이라 합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이 마지막을 통증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 두 분을 뵈었습니다. 두 분 다 직장암 말기라고 하셨는데 걸음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의료기기를 보기 전까지는 .....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에 기억을 떠올려 보려 노력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외할머니 모습이 그 할머니에게서 보였습니다. 머리모양과 앉아계신 모습이 참으로 닮아 보였습니다. 순간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 나이는 아직 죽음을 접해보기엔 너무 어린가봅니다. 마음이 찡하니 힘이 듭니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와 많이 닮아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렵게 저희 자매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우리 자매가 한참 공

부할 나이인 고1, 대학교 1학년 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결코 젊지 않은 나이..... 가슴이 멍멍해 집니다. 병실에서 보았던 할머니와 암 투병 하시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기억이 아빠 엄마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 철없이 굴었나 봅니다. 늘 묵묵히 일하고 웃기만 하시는 아빠의 귀 밑 하얀 머리가 새삼 마음속에 아프게 담깁니다. 매일 아이들과 수업을 끝내고 어깨며 다리며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도 마음속에 깊게 남아 슬퍼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아빠 엄마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엄마의 한 마디가 저를 울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 사춘기라고 툭 툭 내쫓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셨을까요?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이.....

엄마가 특별한 음식 앞에서 즐겁게 놀다가 왜 문득 슬픈 얼굴을 하거나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은 알 듯 합니다. 먼 훗날 제가 엄마만큼 나이를 먹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의 아이들도 저처럼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최선을 다 해서 서로 아끼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야겠습니다.

나의 미래 꿈을 위해 성적관리, 해결책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주는 엄마, 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응원 해주는 아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멀리서 보고 계실 우리 외할머니, 저는 이 자리에서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 해봅니다.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발자국의 무게

양양중학교 3학년 양해찬

어렸을 적 아빠의 발자국은  
유난히 깊고 선명했다  
아무리 깊게 눌러보아도  
낮게 파인 나의 발자국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  
아빠라는 돌을 들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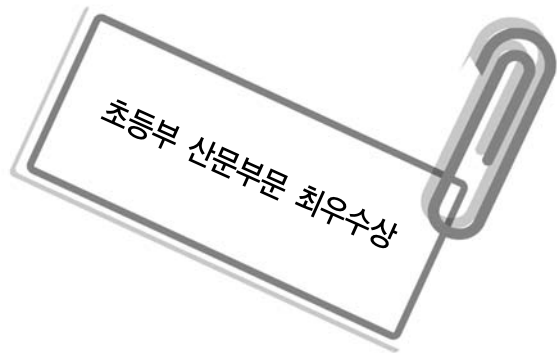
그제서야 깊게 파인 나의 발자국



중등부 포스터 최우수상

강현중학교 1학년 이선희





## 할머니 기뻐하신 날

조산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지윤

내가 놓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요리를 하시다가 칼에 손을 베이셨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손을 치료해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기특하다고 하셨다. 나는 신이 나서 할머니와 같이 가게로 가서 할머니 일을 도와드렸다.

나는 할머니 일을 조금 도와드린 것뿐인데 손님들이 기특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칭찬을 받으니 다음에도 또 많이 도와드리기로 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할머니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할머니 일이 끝날 때까지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들었다. 왜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로 했다. 할머니께 계속 안마를 해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지윤아,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음에도 할머니 일을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다. 오늘은 참 뿌듯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 할머니

손양초등학교 6학년 이태형

학교 가던 길에 만난  
할머니

그냥 보고 지나갔다

뒤돌아보니  
그 자리에 계시네.  
할머니 손에 있는  
여러 개의 짐

도와드릴까 말까

할머니한테 다가가  
할머니께 말을 건넨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손에서  
나의 손으로  
건네진 짐 몇 개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안아주었네  
슬그머니  
내 마음 속에  
자리잡는 뿌듯함

초등부 포스터 최우수상

양양초등학교 6학년 이혜빈



# 2017

##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2017.2.25.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4일 양양일출예식장에서 2017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양양]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

2017.3.6. 강원일보 - 박기용 기자

양양지역 문화·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난 3일 영어회화, 한글·작문교실 등 교양교육을 비롯해 정보화 교육, 라인댄스, 통기타, 한국무용 등 12개 과목에 20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양양문화원은 오는 9일부터 난타와 한글서예, 한국화, 통기타, 색소폰 등 10개 문화·예술 과정을 진행하며 여성회관도 총 36개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양양문화원 2017년 문화학교 개강

#### 11개 강좌 12월까지 진행/향토사 학술활동 활발

2017.3.13. 설악신문 - 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지난 9일 일출예식장에서 윤여준 문화원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문화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문화원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한글·한문서예, 한시, 사물놀이(초·중급), 통기타(초·중급), 한국화, 민요, 난타, 색소폰, 수채화 등 11개 강좌를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양양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향토사연구소의 학술활동과 주민들과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윤여준 문화원장은 개강식에서 “양양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생활 속에서 문화적 감흥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9회 양양문화제’ 8일 개막

2017.6.6. 이뉴스투데이 - 어경인 기자

양양지역의 향토문화축제인 ‘제39회 양양문화제’가 8일부터 3일간 양양군 남대천둔치와 문화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6일 군에 따르면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선사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양양의 문화적 독창성을 소개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군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전야제 행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 행차, 대표수군 만호행차

등 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이어진다.

제등행렬과 풍물패, 농악대가 함께 참여해 더욱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할 이번 행진에는 지역 아동과 학생, 각급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700여명이 함께한다.

시가행진 후에는 남대천둔치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과 지역 음악인, 인기가수 초청공연이 펼쳐지며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9일에는 연극협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140여명이 참여한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극이 식전행사로 진행되며 이어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제 축하비행과 농악공연, 어린이 유도시범, 8군단 특공대대 특공무술시범 등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9일부터 10일까지는 읍·면 대항 민속놀이와 농악경연, 체육경기가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이밖에도 수동골상여소리와 상복골농요, 동호리멸치후리기 등 지역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한 창작음악극 '손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연 작품) 시연과 함께 전국 한시 백일장, 강원도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체험, 본재·야생화·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김택철 위원장은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여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축제이자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양문화제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화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내일부터 남대천둔치서 개최 사흘간 시가행진·초청공연

2017.6.7.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양양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제39회 양양문화제'가 오는 8일부터 3일간 남대천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군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선사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문화적 독창성을 알리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주민 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게 된다. 전야제가 열리는 8일에는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에는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행차 등 대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시가행진 후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는 군민노래자랑과 인기가수 초청공연이 이어지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문화제 개막을 알리며 밤하늘을 수놓게 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에는 식전행사로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에 이어 축하비행과 농악공연, 8군단 특공무술시범 등과 함께 김용자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윤석 전진1리장, 김익환 군수영연맹회장이 군민문화상을 수상한다.

또 축제기간에는 읍·면 대항 민속놀이와 체육경기를 통해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을 잠시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을 다지게 된다.

## '3·1만세운동 재현' 39회 양양문화제 성료

2017.06.11. 매일일보 - 김현규 기자

양양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제39회 양양문화제'가 오는 8일부터 3일간 남대천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양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양양군은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양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만 명 이상의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지역화합의 축제로써 부족함 없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다.

사진은 군민노래자랑 수상자. (사진=양양군청 제공)

특히 군민노래자랑과 불꽃놀이, 초청가수 공연이 있었던 8일과 9일 야간에는 속초와 고성, 강릉 등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행사장을 찾아 구름관중을 이루는 등 지역 상경기가 모처럼 특수를 누렸다.

특히 지역 청소년과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군장병 등 민·관·군 700여명은 양주방어사행차와 대포수군만호행차, 신석기인 가장행렬 등을 연출하며 이틀에 걸쳐 대규모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는 기미년 양양 지역의 3.1만세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져 호국과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양지역 6개 읍·면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홍보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체육행사와 민속놀이, 농악경연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김택철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제39회 양양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문화제를 통해 보여준 군민 자긍심 단합된 의지가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 제39회 양양문화제, 지난 10일 성황리 폐막

2017.06.11. 브레이크뉴스강원 - 이우찬 기자

양양지역의 향토문화축제인 '제39회 양양문화제'가 지난 8일 개막해 3일간 남대천둔치와 문화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지난 9일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극을 식전행사로 읍·면 대항



민속놀이와 농악경연, 체육경기가 있었으며 10일에는 수동골상여소리와 상복골농요, 동호리멸치후리기, 지역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한 창작음악극 '손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연 작품) 시연과 함께 전국 한시 백일장, 강원도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체험, 분재·야생화·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가 열렸다. 한편 김택철 위원장은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축제이자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양양문화제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화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양양군청)

## 양양군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올해부터 전국단위로 확대

2017.8.13. 국제뉴스 - 최옥현 기자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양양 동구리 민요경창대회가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해 개최된다.

양양군은 예부터 지역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며 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 불리어 오고 있는 전통소리를 발굴·보존하고, 계



승해 나가기 위해 진행해 온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올해부터 전국단위 대회로 격상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록에서 유래되었다.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4일, 세조대왕이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무를 시,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의 실력이 가장 뛰어나 세조대왕이 명하여 아침, 저녁을 먹고, 악공(樂工)의 예로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했는데, 양양군은 국왕이 농가 경창대회를 현장 임석하여 우수 소리꾼을 발굴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지난 2001년부터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해왔다.

10회에 이르는 동안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군 단위행사로 개최해 오다 전국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난 2011년부터는 도 단위 대회로 격상해 운영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부터 전국단위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가, 어가, 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 전승 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61개 단체, 664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올해에는 양양연어축제(10월 19일~22일) 기간인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대회 격상 후 첫 대회인 만큼 전국의 참 소리꾼들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양양지역은 예부터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 다양한 전통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국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통해 전국의 참 소리꾼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전국단위로 확대

2017.8.14.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양양 동구리 민요경창대회가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된다.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1466년 세조가 강원도 순행 당시 농가를 잘 부르는 양양의 관노 '동구리'라는 소리꾼을 발굴한 사실에 주목,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되

고 있다.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군 단위 행사로 시작된 동구리 경창대회는 2011년부터는 도 단위 대회로 확대된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로 거듭나게 됐다. 한편 연어축제 기간인 10월 19,20일 이틀간 개최되는 올 대회를 위해 양양문화원은 전국의 참 소리꾼들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회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 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대상 동해문화원

2017.9.21. 강원일보 - 최영재 기자



도문화원연합회(회장:류중수) 주최 제2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20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동해문화원의 '빛오름'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도문화원연합회(회장:류중수)가 사물놀이의 전승·발전을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12개팀이 참가해 평소 연마한 실력을 펼쳤다. 동해 '빛오름' 팀은 수준 높은 연주 실력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춘천의 '모리'팀이 금상을 받았고 한가람풍물패(양양), 태봉풍물단(철원)이 은상을, 누리패(영월), 풍물패 파도소리(고성), 여울당(속초)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임영희(강릉), 큰너울풍물회(정선), 소리울풍물단(인제), 산소리패(평창), 무궁화풍물단(홍천)팀이 차지했다. 대상에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입상 팀에게는 모두 88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 19~20일 문화복지회관서 개최

2017.10.18 매일일보 - 이상훈 기자

양양연어축제 기간인 19일 20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제7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진행해 보다 수준 높은 경연이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록에서 유래되었다.

세조 12년(1466년) 세조가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무를 때,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중 양양 관노 '동구리'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동구리가 관노임에도 불구하고 악공(樂工)의 예로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했는데, 양양군은 국왕이 직접 임석하여 우수 소리꾼을 발굴하였다는 사실에 주목, 지난 2001년부터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해왔다.

10회에 이르는 동안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했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일반부 단체 17팀, 개인 25명 학생부 6팀 등 전국 48개 단체와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를 통해 실력을 겨룬다. 19일 예선과 20일 본선을 통해 3개 부문 통합대상을 비롯해 10개 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20일 본선 경연에서는 식전행사로 한가람풍물단이 사물놀이공연을 진행하며, 전년도 우승팀인 화천남천소리회, 대금연주가 최명호, 여울소리민요단, 국립국악원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경창대회를 추진한다"며, "전국단위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 첫 전국대회로 열려

일반단체·개인·학생 참가 ...

서면 아리랑 열창 양양팀 대상

2017.10.23. 설악신문 - 김주현 기자

올해부터 전국 대회로 격상된 제7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지난 20일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수준높은 경연으로 치러졌다.

이날 경창대회에는 일반부 단체 17팀, 개인 25명, 학생부 6팀이 참가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를 열창하며 자웅을 겨뤘다.

올해 3개 부문 통합 대상은 양양 서면아리랑을 열창한 양양팀(진영예 등 16명)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정선팀 아리수가, 우수상은 인제팀인 인제 뗏목 아리랑이, 장려상은 인천 노루막이 예술단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식전행사로 한가람풍물단이 사물놀이공연을 펼쳤고, 전년도 우승팀인 화천남천소리회, 대금연주가 최명호, 여울소리민요단, 국립국악원 등 수준급의 초청공연이 흥을 북돋았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전국에 알렸다.

양양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 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록에서 유래됐다. 세조 12년(1466년) 세조가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무를 때,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 중 양양관노 '동구리'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동구리가 관노임에도 불구하고 악공의 예로 어가를 따르도록 했다.

양양군은 국왕이 직접 임석해 우수 소리꾼을 발굴하였다는 사실에 주목, 지난 2001년부터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군 단위 행사로 개최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했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전국 행사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16년 동안 농가·어가·노동요 등 우리의 소리를 보존, 전승하는 데 일조했으며,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61개 단체, 664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 양양서 G-100 대규모 축하공연

양양군, '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 축하이벤트 개최희망의 불빛 강원엔 퍼지다... COUNTDOWN 2018 with 양양  
2017.10.26. 국제뉴스 - 김희철 기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들 동안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 기념, 평창동계올림픽이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양군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들 동안 올림픽 G-100일을 기념하는 "COUNTDOWN 2018 with 양양"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가 성대히 펼쳐진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사)한국예총양양군지회, 양양문화예술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양양군민이 즐겨 찾는 남대천둔치 특설무대 및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진행되어 올림픽 불업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한다.

행사 첫 날인 31일(오후 3시~9시)에는 한국예총 산하 국악협회와 음악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이 참여해 사물놀이와 관현악, 연극(꽃과 불), 연예인공연 등 각 단체가 주관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미술협회와 문인협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과 시화를 야외전시장에 전시하기로 했으며, 양양군체육회에서는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림픽종목을 홍보하는 미니올림픽게임을 진행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협회, 여성문화회관 등 관내 사회봉사단체에서도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둘째 날인 11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남대천둔치 야외특설무대에서 '희망의 불빛 강원엔 퍼지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인기 개그맨 박성호가 진행하는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바이칼, 하이큐티 등 남녀 아이돌 그룹과 함께 트로트가수 금잔디, 우연이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하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신홍 음원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기가수 헤이즈가 피날레공연을 진행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양양문화예술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공연작으로 선정된 창작극 '손님'을 선보여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손님'은 양양지역의 전통민요인 상복골농요와 수동골상여소리, 탁장사놀이 등을 융복합해 만든 문화콘텐츠로 지난 3월 강원도가 주관한 '동계올림픽 G-1 페스티벌' 공연 평가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올림픽 무대에 초청되었다.

행사 주관측은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10분)로 피날레를 장식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로 했다.

행사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감안해 관람객들에게 방한용품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민 결집력을 이끌어 내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양문화원 합창단 성금 기탁

2017.11.24. 강원도민일보 -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 600합창단(단장 김순남)은 23일 양양군청을 방문, 연탄은행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 편/집/후/기

2018년 무술년(戊戌年) 동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초년 사무국장 임에도 항상 격려를 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며, 문화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옛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역사를 발굴 조사하여 우리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은 새천년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계획하고 도약하는 해로 우리군민 모두가 역사에 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와 한시백일장, 6·25 한국전쟁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란 책 발간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며 가슴 한편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사가 있어 우리민족이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켜 민족혼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올해 발간되는 양양문화(제29호)에서 보듯이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내 고장의 역사부터 찾아서 보존하고 후세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원 여러분들과 같이하는 양양문화가 되기를 기원하며,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의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

## 양양문화 제29호

---

2017年 12月 22日 印刷

2017年 12月 27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 대한민국의 맥을 잡다

환경친환경 레미콘, 골재 전문브랜드 맥산

레미콘의 KS인증공장 지정과 골재생산플랜트의 부순모래 및 단입도(맞춤형) 골재 생산시설의 확장으로 최고(最高)의 제품으로 최선(最善)의 서비스와 최상(最上)의 감동으로 고객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KS인증업체



회장 김규석

(주)양양레미콘 / (주)솔향레미콘 / 양양자원개발(합) / 명일산업개발(합)  
(주)맥산주유소 / 대한광물(주) / (주)맥산산업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9-1 진흥빌딩4층

T. (033) 671-0841~3

F. (033) 673-222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2643

T. (033) 671-7755

F. (033) 673-3456 (주유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436

T. (033) 672-8000

F. (033) 672-6747 (골재사업부)

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돌길449

T. (033) 672-7979

F. (033) 672-6747 (레미콘사업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산15

T. (033) 671-9925

F. (033) 673-2228 (광산개발사업부)

#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http://www.naksansa.or.kr)